H

라디오서울 한국TV매거진

Jul 16, 2024 VOL.24

radioseoul1650.com 온라인뉴스
- -라디오서울 로컬, 미국 많이 본 뉴스클릭

H 피플 - 사람들
- 영화 제작자 변신한 가수·방송인 김흥국

서울경제 시사, 경제칼럼
- 워런 버핏에겐 있고, 한국 CEO에겐 없는 것

H 골프
- 두 홀 연속 홀인원, US시니어오픈 '역대급' 진기

한국일보 온라인 댓글와글와글
- 우표값 또 오른다 73센트로

이지효교수 한국사람 사는 이야기
- 한국인의 나이 문화

이서희 시사살롱
- 한동훈의 헤어질 결심

신혜원변호사 H법정스토리
- 재산분할금 1조 3808억원

정대용변호사 법으로 보는 세상
- 재산세보다 비싼 자동차 보험료

표지모델 - 배우_박서준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 (213) 725-2857
부에나 파크 (714) 455-3739
USC Norris Comprehensive Cancer Center
Keck Medicine of USC
BEST HOSPITALS US News 2023-2024

황인용 심장 / 혈관 내과
Inyong Hwang, M.D. FACC, RPVI, ABVM
www.HeartDoctorLA.com
www.황인용따뜻한심장내과.com
3130 West Olympic Blvd,
Suite #250, LA, CA. 90006
(213) 528-1111

성민산삼한방병원
www.sansamsale.com
809 S. Hobart Blvd. L.A., CA 90005
(진료시간 월-토 09:30am-06:30pm)
한의학박사 서영수
(213)385-3304 (산삼공사)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무 료 상 담
Ye ja Kim (김예자) Lic # : 0F07964 714.773.2939
Lee JiHoon (이지훈) Lic # : 4276029 714.872.9377
562.640.0643

은퇴, 상속, 절세,
401K 롤오버, 생명보험 학자금,
재정에 대한 모든 문의와 플랜은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토크
라디오서울 문선영의 머니토크
미국최초/미국최고, 미국유일의 재정방송
라디오문선영의 머니토크(라디오서울 AM
토요일 오후 4시/ 일요일 오후 4시

교통사고
213·468·1000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www.cz.law
CZ Law 그룹

미래관광
유럽에서 온 유럽 전문여행사
고객만족도 1위!
www.miretravel.com
213-385-1000

중국 정통 한의학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나음한의원
6281 BEACH BLVD #117
BUENA PARK, CA 90621
(657)325-4000

미국, 로컬, 한인뉴스는 가장 빠른 radioseoul1650.com

PECHANGA SUMMIT

KoreanConcert.net

UMEKEN

7월 20일, 토요일 • 6PM

KOYOTE 코요태

티켓 가격 $80부터 시작

PECHANGA SUMMIT 라이브 공연

티켓 구매 핫라인: 714.232.0000또는 온라인KoreanConcert.net
자세한 정보는 전화 문의888.810.8871또는 웹사이트 pechanga.com
방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our Diamond Award

877.711.2WIN • PECHANGA.COM

남가주 와인 컨트리 테메큘라 밸리에 있으며,
I-15 출구에 인접해 교통이 편리합니다.
45000 Pechanga Parkway, Temecula, CA 92592

본사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세 이상만 도박이 가능합니다.
도박 문제 상담 전화 1.800.GAMBLER.

PECHANGA RESORT CASINO

새로 1주년
감사 할인 프로모션
새로
Zero sugar
PER 1.5 FL OZ(44 ML) - AVERAGE ANALYSIS
CALORIES 39
CARBOHYDRATES 0g
PROTEIN 0g
FAT 0g
제로 슈거로 산뜻하고 부드러운 새로 25 17

대선 TV 토론이후 불거진 바이든 대통령 사퇴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라인 투표중〉

라디오서울1650닷컴 HOT POLL

대선TV 토론 이후 불거진 바이든 대통령 사퇴후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radioseoul1650.com 온라인 투표중>

6월 27일 대선 TV토론후 여야 할것없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후보 사퇴를 해야한다.

01 Choice 61.90%

사퇴하던 말던 관심없고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

02 Choice 19.05%

대통령 후보 사퇴를 반대한다.

03 Choice 19.05%

(7월9일 현재 225 VOTE 상황)

‘트럼프 성추문’ 포르노배우 94만달라 기부받아

“트럼프 유죄평결 힘 보탠 법정 증언 뒤 신변 위협 받아” 가족 안전한 곳 이사·변호사비 충당 위해 고펀드미 모금

'성추행 입막음 돈' 당사자 대니얼스(왼쪽)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당사자인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45)가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지금까지 94만달러(약 13억원)가량을 기부받았다고 가디언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니얼스 지지자 1만7천600여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의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은 형사재판에서 증언한 이후 안전한 집으로 이사하고 변호사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하는 모금에 참여했다.

이 모금 활동은 대니얼스의 친구이자 전 매니저인 드웨인 크로퍼드가 온라인 모금사이트 ‘고펀드미'(GoFundMe)를 통해 시작했다. 모금 목표액은 100만달러(약 14억원)다.

크로퍼드는 모금 사이트에 “스토미는 가족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들의 조건에 맞는 곳에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또 주머니 사정이 좋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선 대니얼스가 불어나는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지원을 호소했다.

대니얼스는 최근 미 MSN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을 괴롭히고 가족 살해 위협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2016년 대선 직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8천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 같은 평결에는 대니얼스의 증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담당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를 당초 공지한 것보다 두 달가량 연기해 9월 18일 할 예정이다.

“갑자기 선친 생각이 나네…” ‘인지력 저하’ 바이든에 동정여론

노화 지켜봤을 바이든 가족들이 연임 등떠미는 건‘노인학대’분노도

첫 대선 TV 토론 이후 후보 교체론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동정여론도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워싱턴포스트(WP)는 7일 바이든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노출한 81세 노인의 흔들리는 모습이 미국인들의 안타까움을 자극했다고 보도했다.

후보 교체론과는 별개로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가족이나 지인의 모습을 발견한 유권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분위기는 노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두드러졌다.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은퇴 공무원 드보라 프라이스(76)는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에서 70대에 들어 갑자기 건강 상태가 악화해 사망한 선친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프라이스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고 비통한 마음이 들었다면서 “선친도 벼랑 바닥에서부터 다시 기어오르려고 애썼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원인 그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가 교체후보가 되는 시나리오를 선호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할 경우에도 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은퇴 교사인 진 몰터(63)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몰터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뜻에는 변화가 없지만, 민주당이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년간 노화한 상황을 가족들은 지켜봤을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에 나서도록 가족들이 등을 떠미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공화당 지지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에 대해선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는 공화당 유권자 베브 오벌리(67)는 TV 토론이 끝난 뒤 질 바이든 여사에게 의존해 무대를 나서는 바이든 부통령의 모습에서 사망하기 직전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오벌리는 “만약 내 모친이 사망하기 전에 힘들게 거동하는 모습이 전국으로 방송되는 TV에서 송출됐다면 정말 분노했을 것”이라며 바이든 가족을 향해 “노인 학대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디오서울 생방송과 지난 방송 다시 듣기, 그리고 매거진에 게재된 뉴스 등 다양한 정보와 읽을 거리, 들을 거리가 있는 radioseoul1650.com 을 컴퓨터, 핸드폰으로 방문하세요.

조지 소로스 마저, 조지 개스콘으로부터 등돌리나?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지방검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회개혁주의 억만장자 소로스마저 등돌려…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자금을 지원하는 PAC는 11월선거의 불확실성에 직면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지원하던 검사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리버럴한 지방검사장를 후원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기부한 조지 소로스가 자금을 지원하는 PAC는 소로스가 후원하는 검사중 일부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주기에 아직 돈을 지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정의 및 공공 안전 PAC (California Justice & Public Safety PAC)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사장 조지 개스콘과 알라미다 카운티 지방검사장 파멜라 프라이스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00만 달러가 훨씬 넘는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검사장들이 현직에서 물러날 수 있는 어려운 선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소로스의 PAC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단 1불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캠페인 재정 기록에 따르면 소로스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위원회에 600만 달러 이상을 쏟아 부으며 California Justice & Public Safety PAC 자금의 대부분을 제공했습니다. 조지개스콘은 소로스가 지원하는 PAC의 가장 최근 수혜자로서 2020년 캠페인에 대한 지원으로 450만 달러 이상을 받았습니다.

53.7%의 득표율로 당선된 개스콘은 무단침입, 치안방해, 무면허운전, 면허정지, 범죄위협, 마약 소지, 범죄행위 등 특정 범죄를 더 이상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고 실행하여 엘에이 카운티를 무법천지로 만든 인물입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개스콘 취임 첫 해에 범죄가 급증했으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관할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11.8%나 증가했습니다.

조지 개스콘 검사장은 엘에이 카운티의 강력범죄가 폭증하고 사퇴 여론이 커지자 강력한 후원자인 사회개혁주의 억만장자 소로스로부터의 지원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떠나는 이주민 손실 240억달러에 달해… 가주의 재정적자 증가의 원인

부자들이 떠난 자리에 가난한 이민자들이 유입

워싱턴 익제미너는 새로운 IRS 데이터를 인용해 다른 주로 이주하면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캘리포니아 개인 소득에서 24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사람들은 들어오는 미국인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자녀나 배우자를 가질 확률이 더 높았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의 꿈을 찾으러 이주해 오고 부유한 사람들은 이 주를 떠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캘리포니아는 2년 동안 순 144,203명의 세금 신고자를 잃었으며 이는 주정부의 개인 조정 총소득 손실로 24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주를 떠나는 사람들은 세금 신고서에 부양가족이나 공동 신고자가 38% 더 많고 평균 AGI는 $130,946인 반면, 캘리포니아로 전입하는 사람들은 평균 AGI가 $111,689로 떠나는 사람들보다 소득이 약 15% 적습니다.

정부 및 연금 재정 전문가이자 전 주 상원의원이었던 John Moorlach는 The Center Square에서 "이것은 캘리포니아주와 향후 개인 소득세 수입에 좋은 징조가 아닐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떠나는 것은 직원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입니다. 결과적으로,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도 떠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정책 센터(California Policy Center)의 캘리포니아 탈출 기록(California Book of Exoduses)에 따르면 2019년 1월 이후 304개 기업이 캘리포니아를 떠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Gavin Newsom)은 외국인 이민 증가와 타주로의 이주 둔화 덕분에 올해 주가 다시 인구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말하지만, 이 금융 데이터는 주정부가 고소득 가족을 저소득층 개인과 교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9월 이후 주의 민간 부문에서 순 154,000개의 일자리가 줄고 361,000개의 공공 부문 및 세금으로 지원하는 자리가 늘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정보, 부동산, 금융, 산업 등 전국적으로 성장하는 부문에서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생산적인 일자리는 줄고 세금으로 지출하는 일자리는 늘어나는 나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것입니다.

주정부는 470억 달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출을 삭감하거나 연기함으로써 세금으로 지원하던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서 이러한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직업을 잃는 일이 발생할 것 입니다.

경찰이 길거리 펜타닐 흡입 단속 안하나? 못하나?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약물 소지 및 사용에 관한 상황은 복잡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주법과 지역정책도 상이점이 있습니다.

2014년에 통과된 프로포지션 47이 가장큰 이유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개인 사용을 위한 소량의 약물(펜타닐 포함) 단순 소지는 일반적으로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로 취급됩니다. 이는 2014년에 통과된 프로포지션 47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약물 사용자들 위해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에 대해 처벌보다는 치료를 우선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엘에이에서 약물 소지는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공공장소에서의 약물 사용은 여전히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길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경찰이 개입할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이러한 상황을 다루는 데 있어 종종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원을 제공하거나, 경고를 발행하거나,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프로포지션 47때문에 소량의 약물을 소지하거나 흡입하는 것이 주법으로 인정되기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그들의 공공장소에서의 약물흡입자체를 법적으로 제재하는것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마약후 강도나 절도 폭력행위가 뒤따른다면 경찰이 개입할 여지가 셍기나 그렇치 않으면 그들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11월 선거에서 프로포지션 47 개정안에는 펜타닐등 마약소지도 중범죄로 다루게 됩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마리화나 양성화등 마약에 관대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프로포지션 47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재산세보다 비싼 자동차 보험료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자동차 보험료 낮추는 방법 없냐는 질문
근본적인 방법은 무사고를 위해 안전 규칙을 잘 준수하며 운전하는 것

정대용 변호사

- 고려대 사회학과 / Abraham Lincoln 로스쿨 졸업
- 매일경제/미주한국일보 기자
- 마케팅 회사 URI Global 근무
- 주요 분야 : 교통사고/레몬법/유산상속 등

요즘 사람들 만나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자동차 보험료 낮추는 방법 없냐는 것이다. 교통사고 변호사로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자동차 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자동차 보험료 낮추는 방법을 소개했더니, 보험 전문가로 생각하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다. 학교 동창회를 가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는다.

물어보시는 분들의 사정도 이해할 만하다. 워낙 보험료가 비싸니 말이다. 어떤 분은 집에 차가 4대인데, 6개월 보험료가 8,000불이라고 했다. 1년이면 1만 6,000불이니, 옆에 듣고 있던 어떤 분이 그 정도면 재산세 아니냐고 해서 함께 씁쓸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그나마 최근에 사고를 낸 적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고라도 냈다면 2배가 오르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3배가 오르기도 한다.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보험을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는 꾸준히 오른다. 실제로 올들어 전국 자동차보험료 상승률은 1년 전보다 약 30% 올랐다고 한다. 1976년 이래 4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률이다 (다만, 사고가 났더라도 내 잘못이 아니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이러니 보험 없는 무보험 운전자도 크게 늘고 있다. 차량 다섯 대 가운데 한 대꼴로 보험이 없고, 한인 중에도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보험이 취소된 분들도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료가 왜 이렇게 오를까? 우선 사고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굳이 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코로나 이후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 매우 난폭해진 게 운전할 때마다 느껴진다. 그러니 자연히 사고가 늘어나고, 보험회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 수리비와 치료비, 보상금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동차 가격이 크게 오른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보험 커버리지를 꺼내보면, 보험료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차 보험(collision)'인 것을 알 수 있다. 요즘 신차 가격은 4-5만 불은 고사하고, 10만 불 넘게 하는 차도 적지 않다.

이런 차들이 사고 나면, 수리비는 몇만 불씩 나온다. '토털 로스(total loss)'라도 나면, 본인 부담금 500-1,000불을 제외하고는 자동차 회사들은 차값을 고스란히 손님들한테 물어줘야 한다. 그러니 보험료가 높아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책은 없을까? 우선 본인이 가입한 보험 커버리지를 꼼꼼히 살펴, 불필요한 커버리지는 빼는 것이 좋겠다. 가령, 의료보험을 갖고 있다면, 굳이 '의료비(medical payment)'는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자차 사고 시 본인부담금을 최소 1,000불 이상으로 높이는 것도 보험료를 낮추는 좋은 방법이다.

또, 같은 보험회사에 오래 있었다면 다른 보험회사를 통해 더 좋은 조건을 알아보고, 에이전트가 없는 온라인 보험회사를 통해 에이전트에게 돌아가는 수수료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만, 더욱 근본적인 것은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안전 규칙을 잘 준수하며 운전하는 것이라 하겠다. 본인 잘못으로 사고를 낸다거나, 법규 위반으로 벌금을 내는 것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문의:323-388-3535
myatty323@gmail.com

www.midwilshirehealth.com
MW
중앙양로병원
MID-WILSHIRE HEALTH CARE CENTER
20년 넘게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 양로병원
한인 전문 물리, 작업, 언어치료사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상주, 한인 의사 대기!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단기, 장기 요양 치료 환자 환영!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Admissions Coordinator Director of Social Services
Cell : (213) 483-9921 Fax : (213) 483-3606
676 S. Bonnie Brea St. Los Angeles, CA 90057

www.dentwayinc.com
DENTWAY
www.dentway.kr
자동차 흠집제거
부분도장 Before After
덴트 복원 Before After
범퍼복원 Before After
최저(低) 가격+최고(高)품질
그것도 단 하루만에 끝내드립니다.
각종 보험처리 환영
●일반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 ●서비스 평생 보증 ● 무료견적서비스
●최상의 복원 품질보장 ●최고급 재료 사용 ●1 day 수리 완료
DENTWAY, Inc. 32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월 - 금: 8:00 AM - 6:00 PM ■ 토: 8:00 AM - 12:00 AM
Tel. 213.383.7233
칠 이 삼 삼 합니다.

www.centurydayandnightspa.com
미주유일 골프연습장, 수영장, 스파, 찜질방, 식당,
헬스클럽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스파, 찜질방, 식당,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올림픽과 크렌셔
323-954-1020

USC
암 건강 관리 클리닉

암이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 원스톱 주치의 서비스를 USC 노리스 종합 암센터 LA 한인 타운과 부에나 파크 오피스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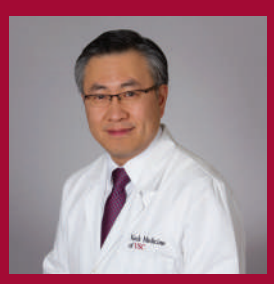
암 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는
USC 노리스 종합 암센터의 전문의들은 진단에서 질병 예방, 치료,
암 완치자들의 후속 건강 관리 및 2차 소견까지 암에 관한
모든 분야에 걸쳐 완벽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고위험군 환자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프리미엄 검진에서
유전자 검사, 생활 습관 및 영양 상담까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의 어느 단계에 있든 저희 암 전문의들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로서 가장 적합한 맞춤 치료 플랜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함께하면 한계는 없습니다.

미국내 탑 15 암센터



안상훈 MD, MPH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한국 국립암센터 암 예방검진 전임의
USC 의대 종양(암) 내과 부교수
USC 노리스 종합 암센터 LA 한인타운 및 부에나 파크 오피스 디렉터
미국 내과 전문의, 종양(암) 내과 전문의

메디케어, 메디칼, PPO 보험을 받습니다.
지금 한국어로 상담해 보세요!

LA 한인타운 (213) 668-5802
500 South Virgil Ave Suite 502, Los Angeles, CA 90020

부에나 파크 (714) 759-9613
5832 Beach Blvd Suite 201, Buena Park, CA 90621

KeckMedicine.org/KT

BEST HOSPITALS
U.S.News & WORLD REPORT
CANCER
2023-2024

USC Norris Comprehensive Cancer Center
Keck Medicine of USC

© 2024 Keck Medicine of USC

조선갈비 또아리냉면

OPEN HOUR
매주 화요일 쉽니다

월요일 - 일요일 (주 6일 OPEN)
오전 11시 - 오후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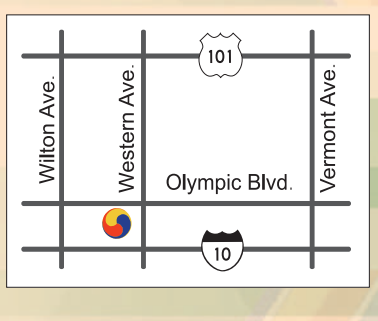
TO GO & Delivery 서비스 해 드립니다
딜리버리 Charge 가 있으며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런치 메뉴**

갈비 | 닭불고기 | 연어구이 | 우거지탕 | 비빔밥 | 김치찌개 | 육개장 | 떡국
불고기 | 돼지불고기 | 갈비탕 | 따로국밥 | 된장찌개 | 알찌개 | 만두국 | 떡만두국

- **디너 메뉴**

조선갈비 (프라임) | 칠리안 | 갈비찜 | 생선전 | 조선전골
조선갈비 (초이스) | 시배스 | 갈치조림 | 잡채 | 해물전골
갈비 주물럭 | 연어구이 | 은대구조림 | 두부전 | 곱창전골
소불고기 | 조기구이 | 새우전 | 물만두 | 은대구매운탕
닭, 돼지불고기 | 이면수 | 해물파전 | 홍어회무침 | 우럭매운탕



직원 모집
1) 캐시어 2) 주방 쿡 하실 분
3) 웨이트리스 4) 매니저
유경험자 환영
(323)734-3807

조선갈비 또아리냉면
Chosun Galbee Restaurant
3330 W. Olympic Bl., L.A., CA 90019
323·734·3330
323·737·3332
www.chosungalbee.com

트럼프, 바이든에게 골프대결 신청

'트럼프, 바이든과 골프쳐서 지면 100만불 내겠다'

(트럼프, 바이든에게 골프대결 신청)

Trump : 내가 골프에서 이기면 바이든이 지목하는 자선단체에 내돈 100만불 기부하겠다

Biden : 내 핸디가 6인데 나를 이긴다구? ㅋㅋㅋ

Trump : 나는 핸디가 2인데? 당신은 50야드도 못 넘길껄? ㅎㅎ

Biden : 다닌 핸디는 순전히 속임수로 만든걸 내가 모를줄? ㅎㅎ

Trump : 속임수던 뭐든 한번 붙어보자니까? 내 골프장에서.....

(참고 : 실제로 Trump의 갖가지 골프 속임수를 집대성한 책이 나왔음.ㅎㅎ
책 제목은 Commander in Cheat (속임수의 제왕) 뜨악~~~)

상업용부동산 대출 부실률 높아져 은행까지 긴장

'팬데믹때 저금리로 부동산대출받은 개발업자들, 재융자에 어려움...'

(사진 - 공실률 높아진 빌딩들)

개발업자 : 이자율 3~4%로 대출받아 편하게 왔지만 이제 재융자 해야할 시기네

금융기관 : 고객님, 지금 이자율은 8%정도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개발업자 : 네??? 그렇게 높은 이자로는 결국 지불불능에 빠지는데요?

금융기관 : 고객님이 지불불능 선언하면 우린 파산해요. 그건 안되죠~~

미국정부 : (지금 미국내 중간이나 그 아래규모, 즉 리저널뱅크나 소규모 커뮤니티 뱅크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의료관광 가도될까? 한국 의료계 이미 비정상

'의대생들 국가고시 안보겠다, 보이콧'

(사진 - 병원떠나는 의사들)

의대생들 : 정부의 근거없는 2천명 증원과 일방적인 정책에 대항해 의사가 되기 위한 시험도 거부한다!

정부 : (어? 왠만큼 밀어부치면 결국 돌아올줄 알았는데... 이거 장난아닌데??)

의료계 : 의대생들이 의사시험을 안보면 내년도 인턴이 없는거고 그상태로 몇년 후엔 전문의도 없는 상황이.....

LA 한 모씨 : (한국가서 건강검진 받으려고 했는데... 건강검진이던 의료관광이던 이젠 물건너 간건가??)

대한민국 드디어 초고령사회 진입

'한국, 65세이상 주민등록 인구 1,000만명 넘었다'

(사진 - 탑골공원 노인들)

정부 : 우리나라 5천만 인구에서 65세이상이 천만명 넘었습니다

노인 1 : 그게 뭐 어때서? 뭐 어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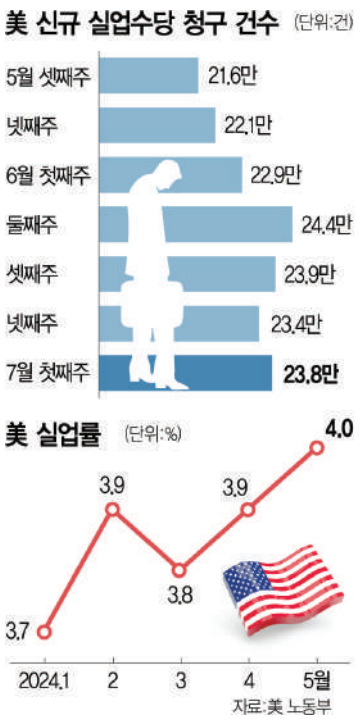
노인 2 : 65세이상이라해서 다 노인이 아녀!!

노인 3 : 목청 높이는거 보니께 노인. 맞네 그려.....

전문가 : 한 사회에 비생산인구가 지나치게 많으면 50세이하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이는 결국 청년층의 출산율 감소에 직결됩니다.....

송봉후 앵커
YouTube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라디오서울 AM1650 아침 6시 <스토리뉴스> 방송
저녁 6시 <뉴스 포커스> 방송

물가만큼 노동시장 주목하는 연준 "예상치 못한 경기둔화에 대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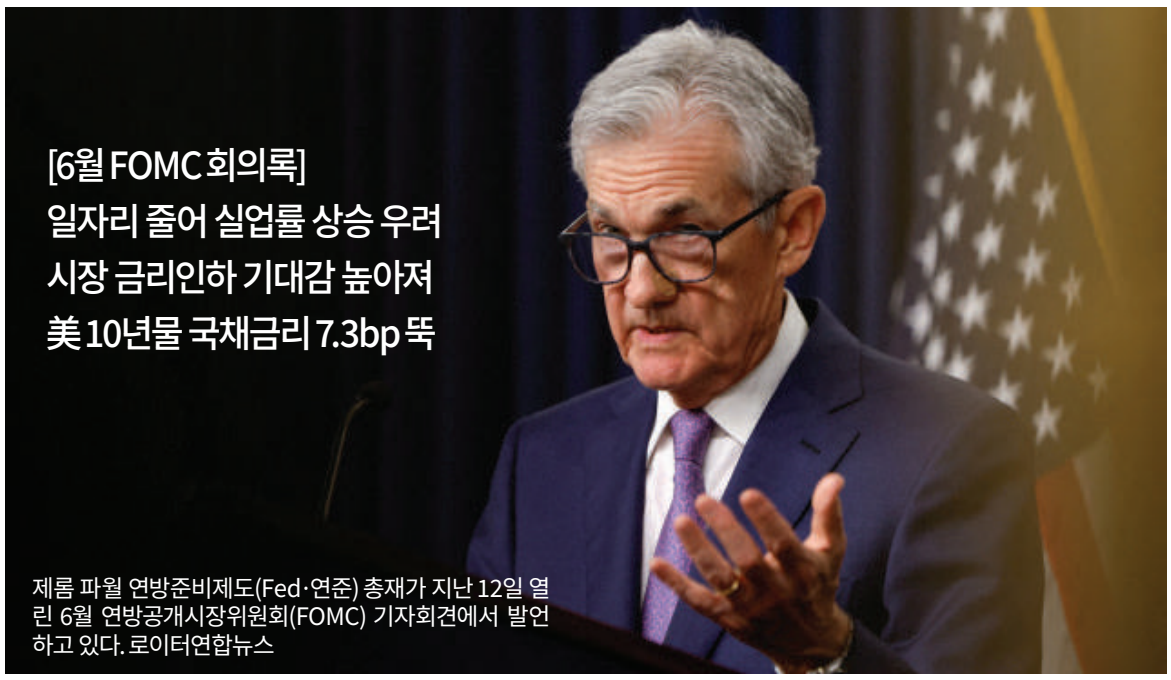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실업률 상승 등 예상치 못한 경기 둔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만큼이나 노동시장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최근 들어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는 지표가 잇따르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연준은 3일(현지 시간) 공개된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다수의(a number of) 참석자는 경제가 예상치 못하게 약화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측면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회의록에 등장하는 '다수'라는 표현에 대해 구체적인 숫자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경제학계에서는 5명 안팎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FOMC 점도표에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하를 전망한 위원 8명 중 상당수가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주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위원들은 강경론을 펼쳤다. 회의록은 "몇몇(several) FOMC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거나 반등할 경우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내 금리 동결을 전망한 연준 위원이 4명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연준 내에서는 경기 둔화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인플레이션 우려와 비등하거나 더 크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급격한 둔화를 야기할 수 있는 리스크로는 △노동시장 △저소득층 소비 감소 △상업용 부동산 부실 등이 지목됐다. 핵심은 노동시장이다. 회의록은 "많은 참가자들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지만 구직자 1인당 구인 건수가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점, 또 해고 증가로 고용이 지금보다 더 둔화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지적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날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서 5월 구인 건수는 814만 건으로 집계돼 구직자 1명당 구인 건수는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인 1.22건으로 낮아졌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1.19건)이다.

일부 연준 위원들은 일자리 감소가 가파른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회의록은 "여러 위원들은 노동시장의 정상화 추세와 맞물려 추가적으로 인력 수요가 약화된다면 실업률은 그동안 올랐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총재가 지난 12일 열린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고금리 효과에 따른 고용 둔화 추세는 더욱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이날 고용 정보 업체인 ADP에 따르면 6월 민간 부문 신규 일자리는 15만 건 늘었다. 시장 전망치(16만 3000건)를 밑돌고 5월(15만 7000건)보다 줄었다.

반면 실업 관련 지표는 상승 추세다. 노동부에 따르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8000건으로 전망치(23만 4000건)와 직전 주 수치(23만 4000건)를 모두 웃돌았다. 실업수당 증가는 예상치 못하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늘었다는 의미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5만 8000건으로 집계돼 9주 연속 상승했다. 지나 볼빈 볼빈웰스매니지먼트그룹 볼빈 회장은 "골디락스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지표"라며 "침체에까지 가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킬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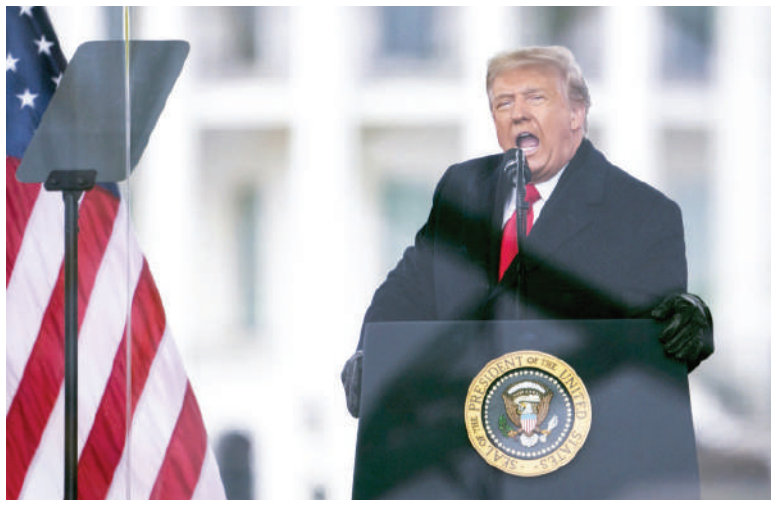
서비스업 경기 관련 지표는 발표기관에 따라 다소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6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8.8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월치인 53.8에서 5포인트나 낮은 수치이며 예상치 52.6 또한 밑돌았다. 50을 기준으로 이를 밑돌면 서비스업 경기가 위축 국면에 있다는 의미다. ISM의 조사는 그동안 미국 고물가의 주요 원인인 서비스업의 수요 둔화가 본격화해 인플레이션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이 발표한 6월 서비스업 PMI 예비치는 55.3으로 집계돼 여전히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P글로벌 서비스 PMI는 두 달 연속 상승세다.

연준이 노동시장 둔화 흐름에 주목하자 금리 인하 기대감은 높아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73.5%로 전날 68.9%보다 올랐다.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S&P500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51%, 0.88%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7.3bp(1bp=0.01%포인트) 내려갔다. 국채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뉴욕=김흥록 특파원>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신문 인터넷 사이트 sedaily.com 에 실린 핫한 기사 중 미주 한인들이 공감하며 읽을 뉴스를 H매거진에 게재합니다. 더 많은 기사는 경제전문지에서 종합 일간지로 독자들에게 호평 받는 서울경제 sedaily.com을 보십시요.

트럼프, 대선 이기면 연준 금리 5번 올려야 한다?…왜



트럼프 10% 관세 높이면 물가 상승 우려
골드만삭스 "연준 금리 약 5번 올려야 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복귀할 경우 모든 수입품에 10%포인트의 관세를 추가한다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행정부가 관세율을 높일 경우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5번 올려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관세가 높아져 수입 물가가 오를 경우 물가 안정이 목표인 중앙은행이 금리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3일(현지 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연례 포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대로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면 미국 물가 상승률이 1.1% 포인트 상승할 것"이라면서 "연준은 이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1.3% 포인트 올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연준은 한 번에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리거나 내린다. 이에 1.3%포인트 수준의 금리를 올린다고 가정하면 연준은 5번 가까이 금리 조정에 나서야 하는 셈이다.

하치우스는 미국의 관세인상 영향을 계산할 때 다른 나라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모든 관세수입은 다른 내국세 감세에 사용하며, 이후 글로벌 무역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초기처럼 최고로 높아진다는 전제를 덧붙였다.

이럴 경우 미국 물가상승률은 1.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의 물가 상승 폭 0.1% 포인트보다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반대로 작용해 유로 지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포인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0.5%포인트 정도만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유로 지역은 이 같은 경제성장 둔화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0.4% 포인트 내려야 한다.

하치우스는 "이런 비대칭적 결과는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국보다 유로 지역에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치우스는 물가나 경제성장률 변동과 이에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적정한 금리 조정 폭을 계산할 때 '테일러 준칙'(Taylor Rule)을 적용했다. 테일러 준칙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는 기준이다.

한편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양자 대결 시 각각 48%, 42%의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등록 유권자 1500명을 상대로 '오늘 대선이 열린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6%포인트인 두 후보 간 격차는 ±2.5%인 오차범위를 넘어 수준이다. 특히 올 2월 2%포인트 수준이었던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2021년 후반 이후 최대로 분석된다.

美 6월 비농업 일자리 20만 6000건 증가…실업률 4.1% 예상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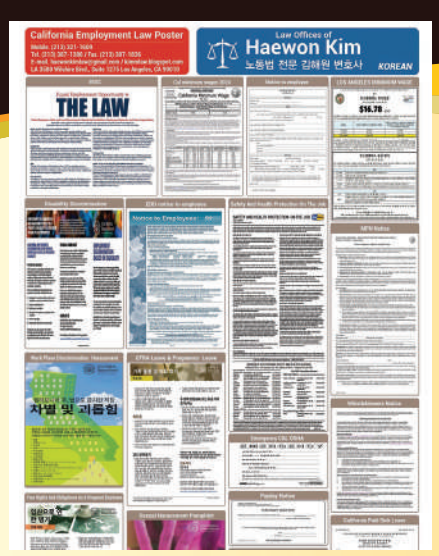
미국의 지난달 신규 고용이 20만 6000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4.1%로 시장의 예상을 웃돌았다.

5일(현지 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6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20만 6000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치(19만 건)를 웃도는 수치다. 다만 일자리가 급증했던 5월(21만 8000명)의 수준은 밑돌았다. 5월 신규 비농업 일자리는 당초 발표된 27만 2000건에서 5만 4000건 하향 조정됐다.

지난달 신규 일자리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데에는 공공 부문에서 고용이 7만 건가량 늘어난 영향이 컸다. 부문별로 헬스케어(4만 9000건), 사회복지(3만 4000건) 등에서 신규 고용이 활발히 이뤄졌다.

6월 실업률은 4.1%로 시장 전망치(4.0%)를 웃돌았다. 미국 실업률은 5월에도 4.0%를 기록했다. 시장은 예상을 상회한 실업률을 미국의 고용 시장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수치들은 2분기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냉각된 노동 시장을 보여준다"며 "고용 둔화가 지속될 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이르면 9월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가 4일 발표한 미국의 6월 민간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15만 명 늘어났다. 최근 4개월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다우존스 전문가 예상치(16만 명) 역시 하회했다.

Haewon Kim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



ENGLISH

SPANISH

노동법 포스터
온라인으로 받으세요

■ 김해원 변호사 무료 배포 ■ 최신 임금 • 상해 • 병가 정보

●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2024년도 개정된 노동법을 반영한 신규 노동법 포스터를 직접 제작해 PDF파일 형식으로 온라인을 통해 배포합니다.

● 노동법 포스터의 온라인 배부는 이메일(haewonkimlaw@gmail.com)로만 가능합니다.

Tel. (213)387-1386 / Mobile (213)321-1609 / Fax (213)387-1836
e-mail haewonkimlaw@gmail.com / kimmlaw.blogspot.com
LA 3580 Wilshire Blvd., Suite 1275, Los Angeles, CA 90010

FOMC에 쏠린눈…전문가 75% "美9월에 금리인하, 韓은 10월"

■ 서경 금통위 서베이
응답자 56%, 한은 10월에 정책 전환
환율 변동성 크고 물가 기조 따져봐야
"9월 인하 확실땐 8월 가능" 분석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9월이 될 것이며 한국은 이보다 뒤인 10월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내수의 급격한 둔화에 통화정책 전환 시점이 이슈인 가운데 변동성이 큰 환율과 아직은 불확실한 물가 움직임이 한국은행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뜻이다.

서울경제신문이 4일 금융사 이코노미스트와 경제학 교수 등 전문가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 전원이 이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통위는 지난해 1월 0.25%포인트 인상을 마지막으로 11회 연속 금리를 3.5%로 묶어두고 있다.

관심은 금리 인하 시점이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75%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미국의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9월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올해 남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현지 시간 기준 7월(7. 30~31)과 9월(9. 17~18), 11월(11. 6~7), 12월(12. 17~18) 등이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전에 사전 신호를 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에 바로 금리를 내리기는 어렵고 최소 9월은 돼야 한다는 의미다. 11월이라고 답한 이는 12.5%, 12월은 6.25%였다. 연내 한 번도 없을 것이라는 응답(6.25%)도 여전히 존재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기는 소비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고용은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가면서 균형점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9월 금리 인하가 '가까스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미 공급관리협회(ISM)의 6월 미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8로 전달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우혜영 LS증권 연구원은 "미국 서비스업 PMI가 낮게 나와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며 "서비스업의 수요 둔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개선 요인이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신호가 된다"고 평가했다.

고용 둔화 흐름도 엿보인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은 최근 들어 불법 이민에 대한 강도 높은 국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비농업 고용을 떨어뜨리고 물가를 낮추고 있다"며 "불법 이민에 따른 고용이 이슈였는데 대선을 앞두고 국경 보안 정책이 크게 바뀐 게 핵심 팩트"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9월에 움직이더라도 한국은 그 뒤에나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응답자의 56.25%가 10월을 골랐고 11월을 선택한 이들은 18.75%였다. 올해 금통위는 7월(7. 10~11)과 8월(8. 21~22), 10월(10. 10~11), 11월(11. 27~28) 네 차례다. 전체의 75%가 최소 10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본 셈이다.

이 중 10월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단행된 후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준이 먼저 금리를 인하한 뒤 금리 하강 기조를 확인하게 되면 한은이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승헌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는 하락하겠지만 환율 같은 대외 이슈가 남아 있으며 물가도 완전히 안정됐는지 좀 더 봐야 한다"며 "한은이 연준보다 먼저 움직이기에는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이들도 있다. 응답자의 25.0%가 8월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7월 금통위에서 인하 신호를 보내고 8월에 전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8월 인하를 내다본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금융 여건의 완화 필요성 등에 통화 당국도 대체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얼마 전 한덕수 국무총리도 "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며 한은에 메시지를 던졌다.

일각에서는 연준의 9월 인하가 확실하다면 한은이 8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인하 흐름이 분명하다면 한 달 정도는 양국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져도 버티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 입장에서는 물가 여건과 연준 신호까지 더해졌을 때 8월에 인하를 할 명분과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절반은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및 한은의 예상치와 같다. 2.4%라고 답한 이들은 18.8%였다. 반면 조 연구위원은 "서비스 물가가 쉽게 낮아지지 않고 전쟁 같은 지정학적 불안에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이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며 2.8%를 제시했다. 고물가가 더 오래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사고 • 알립니다

H매거진 동부지역판 창간, 발행

H매거진동부지역(워싱턴, 볼티모어, 뉴욕)판이 창간, 발행됩니다.

매거진은 이번주부터 격주로 발행돼 인쇄판 종이신문은 대형그로서리와 식당 앞 가판대에서 무료로 배포됩니다.

동부판 창간호는 텍스트 버전(https://online.anyflip.com/nqmlb/qcnk/mobile/index.html)과 PDF 버전(https://img.koreatimes.com/pdf/TVhankook_dc.pdf)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H매거진은 지난2023년 8월29일자 첫호를 시작으로 오프라인 인쇄 매거진 발행 후 koreatimes.com과 radioseoul1650.com 웹사이트에 온라인 매거진으로 상설 게제돼 전 미주 독자층을 확보했습니다. 본보 독자들은 물론 이메일 구독 신청 독자들에게도 이메일로 배포하면서 구독자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동부판 발행은 H매거진이 지역별 전국지로 발돋음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독자와 광고주, 좋은 칼럼을 기고해 주시는 칼럼니스트 여러분들의 조언에 더 귀 기울여 알찬 매거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고 및 구독문의 703-941-8001(VA·MD·DC) / 718-482-1111(NY·NJ·CT)

“기후변화로 인한 식품 인플레 지속될 것…피해는 빈국에 집중”

“식품가 향후 10년내 연간 3.2%P 상승”
올해 밀 17% · 팜유 23% · 돼지 21%↑
전세계 폭염 등 재해 등 발생 빈번해져

극심한 가뭄 등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줄어드면서 ‘밥상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와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글로벌 식량 가격 상승률이 기온 상승으로 인해 향후 10년 내 연간 최대 3.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2035년까지 전 세계 연간 물가 상승률은 최대 1.1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한때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식량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농업 헤지펀드 패러캐피털의 공동 설립자인 아담 데이비스는 기후변화로 인해 올해 거래된 많은 식료품들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밀 가격은 17%, 팜유는 23%, 설탕은 9%, 돼지고기는 21% 뛰었다. 영국 비영리단체 에너지기후정보분석원(ECIU)은 지난해 영국 식품 가격 상승분의 3분의 1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프레더릭 노이만 HSBC 수석 아시아 경제분석가는 “기후변화가 세계 식량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식량 공급 능력의 영구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미국 터프츠대 프리드먼 영양과학정책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1981년에는 100년에 1번 발생했던 폭염이 최근에는 미국 중서부에서 6년마다, 중국 북동부에서는 16년마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 대두, 옥수수, 감자 등은 수확량 급감이 예상되는 품목이다. 이들 작물은 20~30도 사이에서 안정적인 생산성을 보여 폭염에 수확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파키스탄의 경우 2022년 대홍수로 논이 황폐화했고 지난해에는 엘니뇨(적도 해수온 상승) 현상으로 설탕과 커피, 코코아 등의 수확량이 감소했다. 전 세계 코코아의 3분의 2를 생산하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에서는 폭우로 인해 기후가 습해지면서 식물 곰팡이 질병이 유행하게 됐다.

세계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가난한 국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노이만 분석가는 “밀 가격은 저소득과 중간소득 국가에서 빵 가격의 70%를 차지하지만 인건비와 에너지·운송 비용이 더 중요한 부유 국가에서는 10%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독일의 경우 밀 수확이 잘못되더라도 세계 시장에서 밀을 살 수 있다”며 “가난한 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많은 양의 식량을 수입할 수 있는 기반 시설조차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택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택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1년에 10% 벌금

◈ 파트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택스 크레딧이 40점이하인 경우 본인의 택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 동안 월 10%의 패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29점	30점~39점
매월 프리미엄	$ 505	$ 278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보험료는 2024년 현재 174.70 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날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의 패널티를 평생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패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날 3개월 전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쯤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 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 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친절히 도와주는 캘리포니아 공인 김예자 에이전트. 6400643@gmail.com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 은 소셜 연금이 주 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 자격이 주어 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큰 페널티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Extra Help 자격

Your Situation	Income Limit	Resource Limit
Individual	$ 22,590	$ 17,220
Married Couple	$ 30,660	$ 34,360

김예자 에이전트(Kim Yeja, Lic #OF07964)는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의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주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Ye ja Kim(김예자)
Lic # : OF07964
562.640.0643
714.773.2939

Lee JiHoon(이지훈)
Lic # : 4276029
714.872.9377

EBT, EBT CASH, OTC 카드 환영

연방정부 허가업체
원조 천종산삼 도매회사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

뉴욕주 정식 허가 업체-Permit No.: 463, 464

미 공인 뉴트리션-Certified No.: 6239

~~$610~~ $500

효도 선물 이벤트
7 그램 산삼공진단 + 메가구연산 3병

7g 산삼공진단
사향 / 산삼 / 녹용 / 당귀 / 산수유 (供辰丹)

"7그램 산삼공진단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10환
~~$1,000~~
$500

7그램 산삼공진단
삼대가 이어온 장인의 손길이 가득한

산삼공진단 효능
항산화 효과 미네랄 풀리페놀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진 수험생
스트레스 만성피로 증후군
원기부족, 기억력 향상
신경과민, 불면증, 우울증
허약하고 오장육부 기능저하
과음으로 지친 간기능 회복
갑상선 기능저하, 갑산성 항진증
허약체질 및 성장발육 부진
중풍 후유증,
혈액순환 장애, 고혈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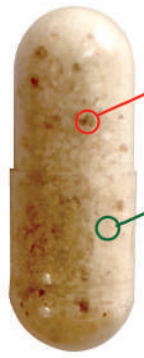
레몬 구연산 | 소나무 식이유황 | 천종 산삼

스티븐 조 공인 뉴트리션니스트
미 공인 뉴트리션-Certified No.: 6239

$45.00 +Tax

1캡슐 750mg 대용량 60 베지캡슐

메가 구연산 캡슐
Mega Citric Acid 60 v-caps



750 mg 대용량 베지 캡슐

노우스캐롤라이나 야생 천종산삼 분말
엄선된 미국 야생산삼을 상온 건조하여 삼증삼포하여 분말로 가공하여 담았습니다.

100% 레몬 추출 구연산
레몬에 3% 함유된 구연산을 추출하고 천연 레몬 비타민 C가 혼합된 최상급 구연산

소나무 식이유황
소나무 송진을 가공하여 분리 추출한 식이 유황

~~$135~~ $110

간기능 개선 / 피로 회복
각종 결석 예방 / 노화 개선
위, 장 건강 / 혈관 청소

3341-A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엘에이 조선갈비 건너편)

전화 주문 상담 환영 **213-277-8866**

EBT, EBT CASH, OTC 카드 환영

산삼이 들어가 더 뛰어난 효능!!
흔히 만병통치약이라 불려지는 산삼은 옛부터 동양의 여러 고전 의서에 그 효능과 다양한 질환 치료에 사용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야생 천종산삼은 간기능을 단기간에 촉진하여 신진 대사를 높이는 탁월함으로 다양한 약재와 좋은 궁합으로 혼용되어 그 효능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천종산삼 여주
120 베지캡슐
당뇨, 통풍
류머티스, 야맹증
피부병
천연인슐린
~~$55~~ $45

민들레/엉겅퀴/천종산삼
100 베지캡슐
간기능 개선
지방간
만성피로
혈액순환
$48

"하늘이 주신 신비의 식물, 시서스!"
산삼 시서스
120 베지캡슐
뼈, 관절 건강
체질 개선
지방증가 억제
지방 분해
$55

에키네시아/산삼
120 캡슐
당뇨 / 항염증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면역강화
각종 알러지 예방/치료
$55
면역력 강화 특화 영양제

노루궁뎅이 버섯+산삼
"치매 예방 및 완화 특효" 120 캡슐
Lion's Mane Mushroom
북미, 유럽의 의학계에서 인정하는
치매
알치하이머
파킨슨
우울증
$65

울트라 콜라겐
90 캡슐
콜라겐 (Fish / Bovine)
천종산삼 / 천연 식이 유황
히알루노닉 액기드
피부/손톱/모발건강
관절/뼈건강
장 건강
두뇌 건강
체중 조절
$65

동의 보감의 전통적인 의학 그대로
산삼경옥고
산삼, 지황, 복령, 당귀

600g $500

동의보감 경옥고 전통방식 그대로 산삼, 지황, 복령, 당귀 그리고 토종꿀을 섞어 수십차례 중탕을 반복하여 진한 원액 그대로 담았습니다. 산삼경옥고는 황제가 일일보약으로 장복하여 잔병을 막고 기력을 유지하는데 쓰였고 신진대사 회복에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면역증진 | 혈뇨 | 신장 건강 | 항암 | 방광염 | 요실금 | 폐건강

NK 면역세포 최대 250%까지
산삼후코이단
450mg 120 캡슐

2개월분 $310

간기능 향상
장건강 / 위 기능 회복
심혈관 질환 치료/예방
암세포 제거
콜레스테롤 상승 억제
혈당 상승 억제
면역력 증진

산삼 아나볼릭

12정 $85 | 24정 $150

남성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
조루 / 전립선 개선

天參濃縮液
천삼 농축액
산삼을 진하게 우려낸 건강 비법
300g/60일 복용
기력부진 / 식욕부진
면역력진 / 활력증진
신진대사 / 소화개선
수면장애 / 각종알러지 개선
선조들의 장수 비결

$240 $300

NHS 내추럴 헬스 시스템 제품 홍보 및 이벤트를 유명 미디어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미주 최고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 korea times.com에 게재된 뉴스 중에
댓글로 본 관심도 높은 뉴스를 선정하여 기사 원문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하고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댓글을 소개하는 지면입니다.
전체 기사를 읽고 싶으시면 korea times.com에서 제목을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표값 또 오른다 14일부터 68센트→ 73센트로

댓글 4 2024년 7월 3일 (수) 뉴욕한국일보 미주3면 기사 이지훈 기자

연방우정국(USPS)은 오는 14일부터 1종 우편물(1온스 이하)의 우표가격을 현행 68센트에서 73센트로 인상한다.

USPS에 따르면 1종 우편물(1온스 이하) 인상을 비롯 미국내 엽서 배송료는 현행 53센트에서 56센트로, 국제 엽서 배송료는 현행 1달러55센트에서 1달러65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USPS는 앞서 지난 1월에도 1종 우편물 우표 가격을 66센트에서 68센트로 올린 바 있다. USPS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USPS의 '딜리버링 포 아메리카'(Delivering for America) 10개년 계획이 추구하는 '재정 안정성' 실현을 위한 수익을 거두기 위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User_001 2024-07-03
나는 지금도 내 아내에게 편지를 써요. 그냥 직접 주지 않아요. 우표 붙여서 우편으로 내가 내집으로 부쳐요...해보세요 얼마나 좋아하는지..사랑의 편지를 써봐요..우표 붙여서 여성분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보내 보세요

User_002 2024-07-03
많은 사람들이 우표를 안쓴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아직도 50대 이상 많은 사람들이 우표를 사서 봉투에 붙이고 우체통이나 우체국에 부친다. 언젠가는 사라질 우리 생활 수단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User_003 2024-07-03
내가 미국에 처음 왔을때 우표값이 십몇전 했던것 같은데...73센트가 되는구나..인터넷이 생기면서 모두가 이메일로 페이먼트도 온라인으로 뚝딱인 세상이지만...그래두 아직두 나를 포함해서 주변에 적지 않게 우표를 사서 봉투에 붙여서 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DC 고급 아파트에 쥐가 득실득실

댓글 4 2024년07월2일 (화) 워싱턴DC 한국일보 미주판 기사 박광덕 기자

[사진ⓒ연합뉴스/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워싱턴DC의 한 고급 아파트에 쥐들이 득실거리고 다녀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WTOP 등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DC 북서부의 듀폰 서클에 위치한 아파트인 '더 플랫츠 앳 듀폰 서클(The Flats at Dupont Circle)' 주민 50여명은 쥐가 들끓는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전했다.

한 주민은 "쥐들은 침대 아래는 물론 식료품 보관 공간에도 있었다"며 "쥐 때문에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나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남동생이 쥐 때문에 우리 아파트로 옮겨와 살고 있다"며 "아파트 측에 이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으나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달에 2,500달러를 내고 스튜디오에 산다는 또다른 여성은 "쥐들이 냉장고 아래에도 있고 부엌, 욕실도 차지했고 이제는 침실마저 들어오고 있다"며 "아파트 측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부동산 정보사이트인 질로우닷컴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원 베드 스튜디오 렌트비는 월 2,200달러~2,600달러, 1베드 렌트비는 3,300달러 수준의 고급 아파트로 파악되고 있다.

User_001 2024-07-03
LA에 사는데 여기는 다운타운 뒷골복에나 가야 쥐가 있지 한인타운에서는 잘 보기 힘들어요. 물론 식당 쓰레기 컨테이너 같은데를 뒤지면 쥐들이 설치고 있을지도 모리지만유

User_002 2024-07-03
미국이 정말 왜이러나요... 증말 싫다 싫어.. 결국엔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세상이 되나여?

User_003 2024-07-03
동부지역에 코로나 이후로 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홈리스들이 많아지면서 거리에 먹을꺼를 막 버려서 그런건 아닐런지...

User_004 2024-07-02
이거시 미국의 클라스

홈쇼핑월드 HOME SHOPPING WORLD

BODYFRIEND

독점계약체결

FALCON

홈쇼핑월드 LA점
확장이전기념 세일가
$4,490

오직, 홈쇼핑월드에서만!
아주 획기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로봇의 더욱 다이내믹한 마사지감
두 다리의 자유로 경험하는 코어근육 스트레칭
장요근 이완, 사이클 운동, 전신 스트레칭, 하체 스트레칭 등
새로운 형태의 마사지 패턴인 로보워킹 테크놀리지기술 탑재

팔콘 마사지 체험은 엘에이/부에나팍 점으로 오세요!

홈쇼핑월드 HOME SHOPPING WORLD
• hswUS.com
• youtube.com/tvkoa

LA 올림픽지점 (213)380.3330/3307
3071 W. Olympic Blvd, LA, CA 90006
올림픽 + 아드모어 (구 김윤성 자동차 자리)
자동 주문 전화 1-855-818-0050

OC 부에나팍지점 (714)522.2494/2496
5300 Beach Blvd #118 Buena Park, CA 90621
비치 + 멜번 BANK OF HOPE 몰
자동 주문 전화 1-855-818-0050

*광고 내용 중 오타가 있을 수 있으며 본 상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각 매장 상황에 따라 상품의 판매 수량과 세일 가격이 변경 및 제한될 수 있으며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There may be a typo in the content of the advertisement, and the image of this product may be different from the actual one. *Depending on the situation of each store, the sales volume and sale price of the product may be changed and restricted, and may be sold out early.

이지효 교수
문화콘텐츠학 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의 나이 문화>

초면에 나이를 물어온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

빈번하게 나이를 묻는 이유 – 예로부터 전해 내려온 관계 성립의 시작
나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호칭 결정 위한 이유

한국에서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당당하게 나이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나이를 묻는 경우, "실례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와 같이 정중하게 묻기도 하고, 또한,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후에는, 나이에 맞는 존댓말이나 반말을 사용하기도 하며, 만약 상대방의 나이를 모르는 경우에는, "저와 비슷해 보이시는데, 어떻게 되세요?"와 같이 조심스레 질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초면에서의 나이 질문 문화가 외국인에게는 낯설고 심지어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빈번하게 나이를 묻는 이유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한국어의 존댓말과 반말이 있어서 나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존칭을 결정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나이의 친구를 '동갑 친구'라고 부르며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고, 한국 사회는 연공서열 사회인만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렇듯 예로부터 한국인에게는 나이가 서로를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문화적인 특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구성원들은 나이 질문 문화를 기피하는 시대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상대가 내 나이에 대해 질문해오면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분이 좋고 안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굳이 알아야 할 이유가 없는 내 나이에 대한 질문에 반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기치 않게 나이에 대한 부담감을 줄 수도 있고, 연령차이가 큰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다양한 해프닝이 생기기도 하는데, 첫째, 나이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장수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나이 들고 있다는 사실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내면 깊이 깔려 있기 때문에, 가리고 싶은 부분을 상대가 물어오면 달갑지 않은 건 당연지사입니다. 또한, 이성 간의 말실수에서 생각하지 못한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상대가 실제 내 나이보다 더 높게 예상하며 나이를 물어올 경우 불쾌감으로 치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성 간의 말실수에서도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특히 초면일 때 서로 상대가 나이가 위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먼저 나에게 윗 사람 존칭을 해올 경우 언쟎은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상대에 비해 내 나이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외에도 많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나이를 묻는 문화에서 누구나 겪고 있는 일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요즘의 한국은 나이 묻는 문화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긴 것일까요? 지금의 한국인들은 한국의 앞선 IT기술 개발과 함께 핸드폰, 아이패드 등 IT기계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PC 이용 시간은 약 5시간이고 이것은 평균 수면 시간인 7시간을 제외하고 활동 시간의 약 3분의 1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의 커뮤니티 플랫폼 이용자도 증가하다 보니 오프라인에서의 만남보다는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같은 어플에서의 소통에 더욱 치중하게 되면서 가정 내에서의 소통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해결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습니다.

'함께'보다는 '혼자'가 편해지는 세상으로 바뀌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많아지고, 나만의 세계에 타인이 깊게 들어오는 것도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고령자들의 충실한 건강관리와 외모관리로 '동안 외모'가 인기로 자리잡게 되면서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 우리들 삶에 중요하지 않은 화두로 변모되었습니다. 즉, 나이는 더이상 중요한 화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초연결사회에서의 의식과 라이프스타일의 트렌드가 바뀐겁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이해하면 나이문화에 따른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나이 파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 즉, 인간과 인간 간에서의 우리는 어떠한 공감대가 있으며 어떻게 하면 함께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지금 시대와 트렌드에 적합한 의식일 것입니다.

jihyol@gmail.com

실버시티보험
A division of HUB International

시니어 생활 상식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Medicare Advantage)

메디케어 파트 A 및 B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민간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플랜의 유형입니다.
많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처방약 혜택도 포함됩니다.

마취 Anesthesia [ænəsθíːʒə] 애너스씨이져

My leg began to feel numb like under **anesthesia**.
다리에 **마취**주사를 맞은 것처럼 감각이 없었다.

더 자세한 문의 (213)387-6505, (714)690-1300

라디오서울과 서울경제가 만드는
경제라디오프로
'라디오서울경제'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신문
서울경제 기자들의 생생경제리포트
일요일 오후 5시 30분
AM1650 라디오서울
YOU TUBE 라디오서울 채널,
라디오서울 앱에서 청취하세요.
YouTube
AM 1650 RADIO SEOUL

융자나라

주택구입 / 재융자 / CASH OUT / Home Equity Line of Credit 전문

"집 융자, 정말 쉽게 나옵니다."

주택구입 — 재융자 — Cash Out

"융자나라는 집 융자가 제일 쉬워요."

전화 주세요. 다 해결해 드립니다.

비상자금
(인컴부족 세금보고 없어도)

Home Equity Line of Credit
$500,000 까지
(자영업 / 직장인 / 직업이 없어도) 융자는 다 됩니다.

이자가 너무 좋아졌어요
(인컴부족 세금보고 없어도)

주택구입 재융자
Cash Out
(자영업 / 직장인 / 직업이 없어도)
융자는 다 됩니다.

집만 가지고 있는데
(급한 Hard Money 7일 내 펀딩)

No Credit Bad Credit
다른 곳에서 융자 거부된 분
외국인도 한국에서 여행온 분도
융자는 다 됩니다.

융자나라

CENTRAL FINANCIAL GROUP INC

처음 약속한 것은 융자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213) 388-5600

Email: ak4989@gmail.com
Main: 3700 Wilshire Blvd. Suite 480
Los Angeles, CA 90010
2nd Office : 3055 Wilshire Blvd. #1150, LA, CA 90010

All rates, terms, and figures are estimated and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NMLS#2318997

“박정희·육영수 삶을 그린 영화 없어 직접 제작”

영화 제작자 변신한 가수·방송인 김흥국
‘건국전쟁’에 감명, 윤희성 감독 만나
다큐 ‘그리고 목련이…’ 내달 개봉

김흥국이 다음달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에 대해 설명하면서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성형주 기자

보수단체 지원 안받고 저예산으로
평소 존경…‘산업화’업적 이견 없을 것
첫 영화제작 큰 도전이자 자부심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초석을 다졌다는 사실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의 전기를 제대로 다룬 영화가 없다는 게 아쉬웠고, 그래서 제가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수 겸 방송인에서 최근 영화 제작자로 변신한 김흥국은 요즘 박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의 막바지 작업에 여념이 없다. 5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가진 김흥국은 “처음으로 영화 제작에 뛰어들었는데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은 상업 목적은 아니고 많은 사람이 박 전 대통령 부부의 삶에 대해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작하게 된 것”이라며 “평소 존경하는 박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다큐 영화다 보니 고뇌하고 신경 쓰는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그가 박정희·육영수 관련 영화를 만들게 된 데는 올해 2월 개봉했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삶을 그린 다큐 영화 ‘건국전쟁’의 영향이 컸다. 김흥국은 ‘건국전쟁’을 보고 그동안 자세히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과 이승만의 업적·노력 등에 큰 감명을 받고 울었다고 한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다큐 영화도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김흥국은 “‘건국전쟁’의 여운은 하루아침에 가시지 않고 오래갔고,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화가 없다는 아쉬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윤희성 감독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윤 감독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했다면서 나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삶을 다룬 다큐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 가뭄에 단비를 만난 기분이었다”고 영화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흥국은 즉시 ‘흥·픽쳐스’라는 영화사를 설립하고 3월부터 윤 감독과 함께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제작에 돌입했다. 이 영화는 실록 영상 70%, 재연 영상 30%를 섞은 120분짜리 작품이다. 박정희 역에는 김궁, 육영수 역에는 이수아를 낙점했다. 이들은 평소 연극과 뮤지컬 분야에서 활동하던 배우들이라고 한다.

영화 제작비는 지인들이 도움을 줬다. 그는 “이번 영화는 저예산 영화이고 제작비는 3억 원가량 투입됐는데 주변에 고마운 분들이 제작비를 지원해줬다”며 “일부 보수 단체 등에서도 제작비를 지원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지만 마음만 받고 실제 금액 지원은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은 애초 박 전 대통령만을 다루는 영화로 기획됐다고 한다. 그런데 김흥국이 윤 감독에게 “박 전 대통령의 동반자인 육영수 여사를 빼놓고는 박 전 대통령의 삶을 완전히 그려내기 어렵다”고 강하게 어필했고 이에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 두 인물을 그리는 영화로 제작하기로 했다. 축구광으로도 잘 알려진 김흥국은 육 여사를 영화의 주제로 함께 다루기로 한 것을 축구 경기에 비유했다. 그는 “축구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골을 많이 넣어야 하는데 골을 넣는 선수만큼 중요한 게 바로 도움을 주는 어시스트”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간 것은 육 여사의 훌륭한 내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영화 제목에 목련이 들어간 것도 육 여사가 목련을 좋아했던 게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영화는 15일 시사회를 열고 다음 달 15일 개봉할 예정이다. 영화 개봉일은 육 여사 서거 50주년이기도 하다. 그는 “영화 시사회에는 박 전 대통령의 딸과 아들인 박근혜 전 대통령, 박지만 EG 회장도 초청할 계획”이라며 “이번 영화 제작은 나에게 큰 도전이고 자부심이다. 영화 시사회 때 아마 눈물을 흘릴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욱 기자>

김흥국이 다음달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에 대해 설명하면서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성형주 기자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 영화 포스터. 사진 제공=흥·픽쳐스

워런 버핏에겐 있고, 한국 CEO에겐 없는 것

김흥록
뉴욕 특파원

美 연준부터 기업, 일상적 외부활동
솔직함으로 더 큰 안정성, 신뢰 가져와
한국 기업들도 시장과 소통 강화 나서야

1976년 발표된 이글스의 유명 팝송인 '호텔 캘리포니아'는 후렴구 내내 '호텔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외치다가 정작 마지막 소절에서는 '체크아웃을 할 수는 있겠지만 떠날 수는 없다'는 가사로 끝난다. 이글스의 이 가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 딜레마를 설명할 때 종종 인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정책 소통 분야 연구의 권위자로 평가받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이를 인용했다. 그는 만약 연준이 성명이나 정책 결정 내용을 간략하게만 알리고 풍부한 맥락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성명 문구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될 경우 연준은 시장의 예민한 반응 때문에 정작 필요한 변화를 적시에 표현하지 못할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통화정책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나갈 수는 없는 '호텔 캘리포니아'의 딜레마에 빠져들게 된다는 논리다.

메스터 총재가 주문한 것은 결국 시장과의 더 많은 소통이다. 이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때마다 성명을 발표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45분가량 기자회견을 매번 진행하는 등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19명의 FOMC 위원들은 수시로 언론과 접촉하고 대중 연설을 통해 통화정책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말한다. 이미 많은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더 치열하게 소통의 형식과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

이는 연준뿐 아니라 미국의 금융시장을 관통하는 고유의 문화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에서는 주요 상장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방송 출연이나 대중 강연을 통해 회사 비전과 성장 계획을 직접 설명한다. 코미디언이 진행하는 팟캐스트까지 가리지 않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물론,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올 3월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사업 현황과 중장기 계획을 소상히 설명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브라이언 모이니한 뱅크오브아메리카 CEO도 언론의 단골 손님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회사 주가에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올해 연례 주주총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는 고충을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다.

이렇듯 솔직한 소통 방식이 과연 득이 될까. 메스터 총재는 "(더 많은 소통을 할수록) 결정의 변화가 있을 때 시장 참여자와 일반 대중은 이를 약속 위반으로 인식하지 않게 되며 결국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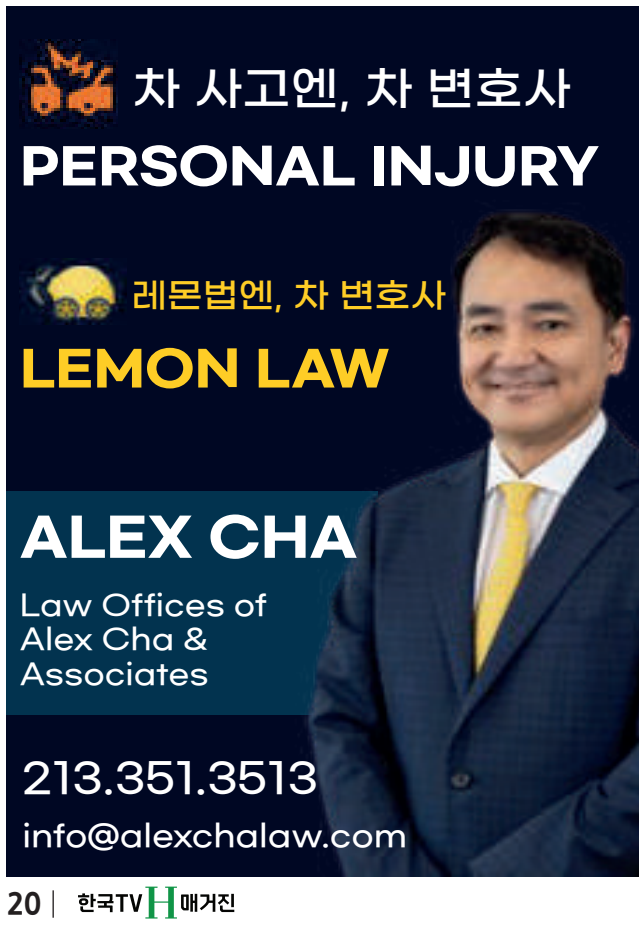
투명성과 소통이 안정성을 의미한다는 점은 정책 당국이나 일반 기업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미국 상장사와 비교하면 국내 상장 기업의 소통 문화는 여전히 폐쇄적이다. 일부 대기업 CEO가 신제품 출시 등 이벤트에 맞춰 언론과 접촉하기는 하지만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일상적인 공개 소통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내로라하는 국내 기업의 CEO나 오너 중에서는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개방적 문화를 가진 업종으로 불리는 테크 업계의 창업자들조차 직접 회사의 리스크나 비전을 자신의 입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기 힘들다. 대규모 투자 계획이 별다른 설명 없이 미뤄지거나 취소·변경되는 모습을 보면 투자자들에게는 의심과 불확실성만 남을 뿐이다. 기업 스스로 호텔 캘리포니아의 문제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최근 국내 개인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115조 원을 돌파해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개방적인 글로벌 기업들을 접할수록 한국 상장사들의 폐쇄적인 소통 방식에 대한 불만과 불신도 커질 것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나 위상은 커졌지만 국내 주요 주가 지수는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내 상장사들이 주가 상승에 소극적이라는 투자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정부도 증시 밸류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회사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고 싶은가.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소통하라. 투명성은 안정성을 낳고, 안정성은 시장이 좋아하는 덕목이다.



ALDI 마켓, 가보셨나요?

정재윤
방송인, Adsense 대표

1950년 독일에서 식료품 가게로 출발 1976년 미국까지 진출
좋은 품질의 제품으로 '싸고 좋은 것' 쇼핑 문화를 선도

Non-Korean들도 한인 마켓을 즐겨 찾는 요즘, 우리 한인들은 한인 마켓 외에 어떤 마켓을 주로 갈까? 아마도 가까운 랄프스, 가성비 좋은 코스코를 들 수 있겠다. 조금이라도 좋은 질의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유기농 제품으로 가득한 Whole Foods Market이나 Trader Joe's도 한인들이 자주 찾는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요즘, 알디(ALDI) 마켓 간판이 부쩍 눈에 띈다. 그만큼 지점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알디 마켓은 1950년 독일에서 식료품 가게로 출발하여 1961년 알브레히트 형제에 의해 수퍼 체인으로 발전한다. 알브레히트 형제의 이름 앞 자 'AL'과 디스카운트(Discount)에서 'DI'를 따와 'ALDI'로 탄생하게 된다.

두 형제의 컨셉은 시작부터 확실했다. 마켓들의 횡포와 폭리, 그리고 매년 오르는 물가로 인해 소비자가 힘들어하는 것을 해결해 주고 싶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든 저렴하게 판매하는 마켓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여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마켓'이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도 저렴한데 품질도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점점 부자들마저 알디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 여세를 몰아 1976년 미국까지 진출하게 된다. 1990년엔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 호주까지 그 확장세를 넓혀갔다.

현재 12,000여개의 점포가 전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 미국에만 2,500개가 넘는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2022년 미국 소비자 선호도 조사에서 부동의 1위였던 Trader Joe's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알디는 어떻게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일까?

거기엔 알디만의 몇가지 전략이 숨어있다.

첫째, 알디의 제품들은 90%정도가 PB제품 (Private Label Brand)들이다. 그만큼 중간 유통 마진이 사라져 판매가격이 낮아질 수 있었다.

둘째, PB 제품이 대부분이다 보니 제품당 종류가 많지 않아 재고도 적고, 매장과 창고가 크지 않아도 되니 직원도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런 지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다른 마켓들보다 저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알디의 제품들은 포장이 촌스럽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품 종류가 많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이 필요 없으니, 고급 포장으로 낭비되는 비용을 막을 수 있었다. 알디의 제품들 대부분 겉포장을 보면 바코드가 촌스러울 정도로 엄청 크다. 그런데 바코드가 크면 계산대에서 소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소비자에게는 시간이 단축되어 좋다.

또한 불필요하게 지불되는 저작권료를 아끼기 위해 매장에 음악도 틀지 않는다.

물론 불편한 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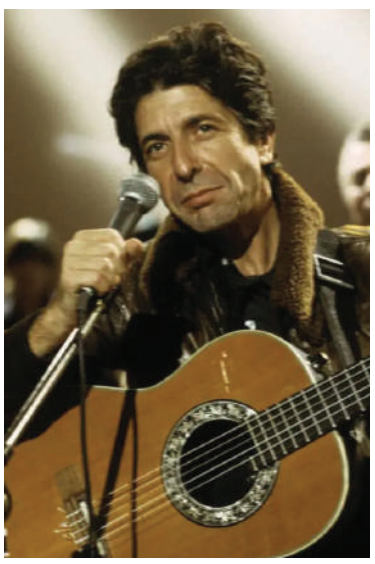
공항처럼 카트를 동전을 넣고 직접 가져와야 한다는 점, 봉지(백)를 주지 않는다는 점, 카드를 받지 않는 점포가 많다는 점, 시식 행사도 없고, 할인 쿠폰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하지만 이런 사소한 불편은 좋은 품질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이라는 혜택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싼 게 비지떡'이라지만, 알디는 지금 '싸고도 좋은 것'이라는 새로운 쇼핑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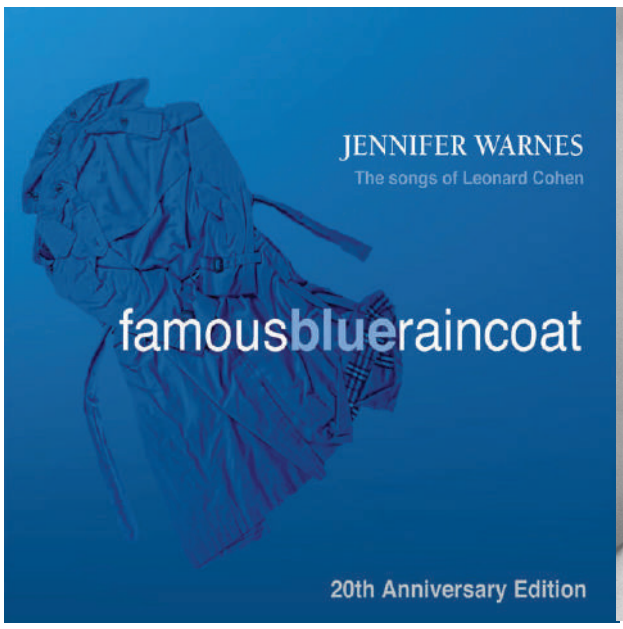
Jennifer Warnes(제니퍼 원스)와 Leonard Cohen(레오나드 코헨)의 45년간의 아름다웠던 동행! 그리고 그 산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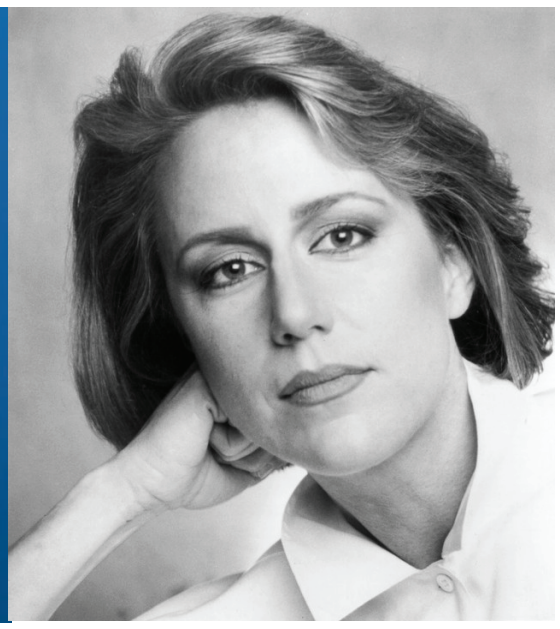
Jennifer Warnes(제니퍼 원스)라는 가수는 80년대에는 나름 음악 좀 들었다는 자칭 팝 전문가들에게도 그저 82년도 영화 '사관과 신사'의 주제곡인 'Up where we belong'을 Joe Cocker와 함께 부른 가수, 또는 87년도 영화 'Dirty Dancing'의 주제가 'The Time of My Life'를 부른 가수 정도로 알려진게 전부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는 그래미상을 두 번, 아카데미 음악상을 세 번을 탄 화려한 수상경력을 지닌 가수이며 1987년도에 발표하여 평론가들의 극찬을 받은 [Famous Blue Raincoat - The Songs of Leonard Cohen]이라는 앨범을 발표한 이후에는 발표하는 앨범마다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고 음악 애호가들은 물론 오디오 매니어들에게도 특별한 대우를 받는 가수이다.



이 [Famous Blue Raincoat - The Songs of Leonard Cohen] 앨범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와 45년간의 특별한 우정(?)을 이어간 '노래하는 음유시인' Leonard Cohen의 음악들을 재해석한 앨범으로서 가사와 곡의 완성도에 비해 편곡들이 너무 조촐(?)했던 원곡들에 현대 감각에 맞는 활력있는 편곡과 Jennifer Warnes의 미성을 바탕으로한 영혼을 움직이는 가창력을 더해서 '대중성'이라는 날개도 함께 달아주었던 소위 '명반'이라는 칭호가 어색하지 않은 앨범이라고 생각한다.

첫 곡인 'First We Take Manhattan'에서는 당시 최고로 잘 나가는 블루스 록 기타리스트 Stevie Ray Vaughan이 참가하여 블루스 휠이 나면서도 비트있고 리듬감있는 세련된 음악을 들려주고 있고 타이틀 곡인 'Famous Blue Raincoat'에서는 끈적한 테너 색소폰이 등장하기도 한다. 명곡 'Bird on a Wire'도 원곡과는 분위기가 매우 다른 신선한 팝 감각으로 가볍고 경쾌한 리듬에 코러스까지 동원된 새로운 별천지를 개척해 놓았다. 그밖에도 작곡자 Leonard Cohen이 직접 2절에 깜짝 등장하여 분위기를 평정해주고 있는 'Joan of Arc', 이전에 발표된 적이 없는 Leonard Cohen과 Jennifer Warnes가 공동 작곡한 신곡 'Song of Bernadette'과 'Came So Far for Beauty' (이 두 곡은 앨범의 가장 빛나는 트랙들이기도 하다) 등등 주옥같은 곡들로 가득한 앨범이 가깝게 지난 앨범이지만 여전히 들을때마다 아주 오래전 그날의 그 '발견의 기쁨'을 추억하게 해주는 명반이다!





Jennifer Warnes와 Leonard Cohen과의 관계는 1971년 Leonard Cohen의 순회공연에 Jennifer Warnes가 백업 싱어로 참가하면서부터였고 그녀의 재능을 발견한 Leonard Cohen은 그녀를 단순한 백업 싱어로서뿐만 아니라 백업 보컬의 어레인지먼트를 맡겼고 음악적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소울 메이트와 같은 관계가 되었다.

Jennifer Warnes가 2016년 11월 Leonard Cohen이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후 L.A. Times와 가진 인터뷰에 밝힌바에 따르면 72년도 유럽 순회 공연 중 당시 23세였던 그녀와 14세 연상이었던 Leonard Cohen과 짧은 연인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코헨의 주변에는 언제나 여자가 있었고 선천적 사랑꾼(?)인 그의 기질을 어쩔 수 없었던 그녀는 곧 결심을 했다고 한다. "나는 그의 유일한 여자가 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로맨틱한 친구가 아닌 예술적인 친구, 창의적인 친구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그녀의 결정이었고 실제로 그녀와 그의 관계는 코헨이 세상을 떠난 2016년까지 45년이나 이어졌다. 그녀는 코헨의 6장의 앨범에 깊게 관여했고 순회공연에도 여러차례 함께했으며 각자 인생의 난관에 부딪혔을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 하나가 된 듯 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때도 Jennifer Warnes는 코헨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 그때 그녀가 그에게 물었다고 한다. 한 사람의 인생을 어머니에 대한 사랑으로 온전히 그 어머니에게 바치는게 이상하고 바보스럽지 않냐고. 그의 대답은... "제니, 그 사랑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 알려고 하지 말어. 우리는 그걸 콘트롤 할 수 없어. 그게 이방인에게서 오든, 어머니에게서 오든, 반려견이든, 완벽한 소울메이트이든...! it comes from wherever it comes....." 이건 뭐...., 정말 완벽한 '사랑꾼'의 멘트 아닌가...!

그날 그녀는 한가지 더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한다. 다음주에 공연이 있는데 자신의 이 큰 슬픔때문에 도저히 공연을 할 수가 없을것 같다고. 그때 그의 대답은 이랬다. "절대 공연을 취소하지 말아. 나가서 당신의 목청에게 당신의 슬픔을 알게 해. 기억해 제니 모두에게 어머니는 있어. 그리고 청중들은 진심을 원해." 결국 힘들었지만 그녀는 공연을 했고 그날 앞에서 네 번째 줄에 Leonard Cohen이 와서 그녀를 시종 응원했다고 한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숙한 이들의 우정(?)이 아닌가....!

frisell66@gmail.com

박기한
음악칼럼니스트

musicplaza.com

MUSIC PLAZA+

나는 임영웅! 너는 BTS!
자녀와 함께 즐기는
뮤직플라자

아이돌 응원봉, 굿즈
포스터, 사진집 등
인기 K-POP 상품

인기 한국스타 음반
TV 드라마, DVD
한국영화, 팝송
클래식 뉴에이지 등
각종 CD

뮤직플라자
(213) 385-4725

코리아타운 플라자 1F #107, 3F #307
928 S Western Ave, Ste 107 & Ste 307 Los Angeles, CA 90006

재산분할금 1조 3808억원

신혜원 변호사
Certified Specialist,
Family Law

미주 한인들도 '특유재산'에 대한 문의 많아져
캘리포니아 주 재산분할법은 한국법과 달라

최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엎고 최회장이 노관장에게 재산분할 금액으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이 곳 미국 한인들 사이에서도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노 관장이 재산분할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50%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1심 재판부는 SK 주식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 즉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 부모에게 건넨 자금 및 정치적 영향력 행사는 SK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를 했으며, 이러한 노 전 대통령의 유, 무형의 기여를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 SK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1조 3808억원을 재산분할 금액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미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자, 요즘, 최 회장 노 관장 이혼소송 판결로 인해, 미국 한인 들 사이에서도 '특유재산'에 대한 언급, 문의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말하는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 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에도 한국법과 동일한 '특유재산'의 개념이 있을까요? 캘리포니아 주 가정법에 의하면, 이혼소송에서 분할되는 재산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부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으로 혼인 이후에 취득한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단, 여기에 예외가 되는 것이 바로 개인 사유재산(SEPARATE PROPERTY)입니다. 개인 사유재산으로는 (1) 개인이 혼인 이전에 취득한 재산, (2) 혼인 중이라도 증여, 상속을 통해 취득한 재산, (3) 이러한 개인 사유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 이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은 부부간에 정확히 50/50으로 분할되며, 개인 사유재산은 100%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단, 개인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부부 공동재산이 개인 사유재산의 가치 유지나 증가에 사용되었다면, 이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재산의 지분을 계산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예컨대, 혼인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혹은 상속을 통해 개인 단독의 명의로 부동산을 받았지만, 이 부동산에 대한 은행 모기지 융자금의 원금을 혼인 중 발생한 수입으로 갚아 나갔거나, 또는 혼인 후 취득한 재산으로 이 부동산을 수리, 리모델링을 해서 그 가치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개인 단독 명의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시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부 공동재산 지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캘리포니아 주 재산분할법은 동산(PERSONAL PROPERTY)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 이후 부부 중 한 쪽 명의로만 주식을 샀을 경우, 주식 매입에 사용된 돈의 출처가 부부 공동재산이면,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이어도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반면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사용하여 단독 명의로 주식을 사서 별도로 유지했다면, 이는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최 회장,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심리 될 경우, 대법원은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항소심 판결에 법률적 위반이 있었는 지를 심리하게 됩니다.

자, 어려운 법, 절차를 떠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SK 주식은 증여, 상속을 통해 받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다, 아니면, 노 전대통령의 자금 유입,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오늘날 SK 가치를 만들었으니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 재산분할 대상이다, 어느 쪽에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213)385-3773

볼 빨개지는 이야기

남자를 죽이는 말

오늘 밤 잠자리에서 당신의 남자의 기를 죽일 수 있는 말…
말하고 싶어도 참고 남자 기 좀 살려줍시다 !

* 빨리 끝내
* 당신 것 좀 작은 거 같애
* 지금 다 한거야?
* 똥 마려
* 다른 남자랑 비교하는 말

아재아재 개그코너

***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 십구만

*** 가수 비 매니저가 하는일은 ?**
- 비만 관리

*** 인천 앞바다의 반대는?**
- 인천 엄마다

*** 사과가 웃으면?**
- 풋 사과

*** 소가 노래 하면?**
- 소송

*** 소들이 떼창 하면?**
- 단체소송

*** 공기를 먹으면 커지는 것은?**
- 에어로빅

*** 죽집 사장님이 위험한 이유는?**
- 죽을 준비 해야하니까

*** 세상에서 가장 큰컵은?**
- 월드컵

*** 헌병을 가장 좋아 하는 사람은?**
- 고물상주인

얼굴 표정으로 시작된 부부싸움

상대방을 내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결국 배우자에 대한 깊은 오해와 분노를 느낄 수있어
서로의 다른점들을 공부하고
판단없이 받아 들여 주는 숙제로 풀어야

성소영
임상심리학박사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고 각자의 심리적인 필요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부부들은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함께 키우며, 인생의 목표가 같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숙제를 하지 않는 부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숙제를 하지 않는 학생이 공부를 잘 할수 없듯이 숙제를 게을리 한 부부 역시 결혼생활이 순조로울수는 없겠죠. 부부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내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결국 배우자에 대한 깊은 오해와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성별은 물론 자라온 환경과 문화 가치관과 사고의 방식이 다른 서로를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서로의 다른점들을 공부하고 판단없이 받아 들여 주는 숙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차이점중에서 오늘은 얼굴 표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대화 내용에 반응을 하며 표현하는 얼굴 표정에 남녀의 차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를 하는 동안 얼굴 표정의 변화를 연구한 학자들은 여성들의 경우10초 동안에 평균 6개의 다른 얼굴 표정을 나타내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성들은 말을 하고 있는 상대방 음성의 높낮이, 얼굴 표정, 바디 랭귀지들을 모두 읽어내고, 이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신이 뇌에서 파악한 내용을 얼굴표정으로 모두 표출해 내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성들은 10초안에 평균 1개의 얼굴 표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상대방 얘기의 내용이 슬픈 내용이든지, 무서운 내용이든지, 화가 나는 이야기든지 상관없이 남자들은 한가지의 똑같은 표정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남성들은 얼굴의 표정이 단조로울까요?

이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남자들의 심리를 이해해야만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 지라도, 컨트롤, 즉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심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청소년기 시절부터 훈련을 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깊은 진짜 감정을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으려 표정을 관리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얼굴 표정으로 들어 내지 않는다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무심한 남편의 듣는 태도가 아내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남기고, 결국 부부간의 대화를 막아버리는 문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친밀한 대화를 원하는 아내는 남편의 무심한 듯 보이는 얼굴 표정을 보며 내심 불안감이 쌓이게 됩니다. 남편이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공감했는지, 자신이 말하는 동안 딴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통 감을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하는 동안 느껴진 불안감은 남편에 대한 불만감으로 변질되기 시작하고 결국 대화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심한 듯 보이는 남편에게 짧게 포인트만 전달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포인트만 말하는 대화 스타일의 훈련이 안되어 있는 여성입장에서는 대화 도중 더욱 심한 반발심을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목소리에 힘을 주며 남편에게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내 말 잘 안듣지?"라는 질문아닌 질문으로 말이죠. 잘 듣고 있던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뭘 잘못 했는지도 모른채 갑자기 아내에게 억울하게 혼나고 이유없는 질타를 받게 되니 기분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듣고 있었다고, 이해하고 있었다고 대답하기 싫은 반발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결국 서로의 마음문을 닫아 버리고 오해하는 상황으로 부부 대화는 끝을 맺게 됩니다. 서로 다른 얼굴 표정으로 시작된 부부싸움의 슬픈 결말입니다.

ssung0191@yahoo.com

아세요 이 말? 이렇게 깊은 뜻이~

하자

흠집, 결점, 흠을 나타내는 말
옥의 얼룩진 흔적이라는 뜻으로 '흠'을 나타낸는 말이다.
한자로는 허물 하와 허물 자로 표기된다.

"그 남자는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데 속으로 **하자**가 너무 많아"

알아두면 이득, 사자성어 한마디

고식지계
姑息之計

시어미 고(姑), 숨쉴 식(息), 갈 지(之), 꾀할 계(計)

우선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꾀나 방법.

한때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임시로 둘러맞추어 처리하거나 이리저리 주선하여 꾸며 내는 계책을 이른다.

LA Times Sep.16.2009

E1 WEDNESDAY, SEPTEMBER 16, 2009 http //www latimes com/food

"Southern California's Most Dilicious Bargains"

"남가주에서 제일 맛있고 싼집"

LA타임즈도 극찬한 해장촌

한인의 입맛뿐 아니라 주류시장의 입맛을 사로잡은 자랑스런 해장촌돌구이!

나는 아직 가격, 맛, 서비스 그리고 분위기에서 비교할만한 음식점을 찾지 못했고 먹을 수 있는 메뉴도 다양하다.
아이린 S. LA 거주

해장촌은 한인타운에서 가장 독특한 BBQ집!! 돌판 위에서 구워지는 고기는 최고다!!
조 L., 아케디아 거주

지금까지의 최고의 한국 BBQ집! 해장촌은 일반 갈비집보다 뛰어나다.
Sung Y., West LA 거주

All-You-Can-Eat Korean BBQ at the hip Hae Jang Chon!
LA Times Sep.16, 2009

We only use USDA Choice and Prime Meat

USDA 프라임 차돌+USDA 쵸이스 양념갈비+USDA 쵸이스 생갈비+프라임 블랙 앵거스 소불고기+프라임 블랙 앵거스 매운 소불고기 프리미엄 블랙 앵거스 혀밑+매운 돼지불고기+천겹살+캐나다산 생삼겹 (두껍게 또는 얇게)+닭불고기+매운 닭불고기+쭈꾸미+새우 오징어 불고기+막창구이+매운 소벌집양+핫도그 +계란찜+김치부침+흰밥 또는 볶음밥+된장찌개+떡보쌈+무쌈+버섯+양파+샐러드

- **LUNCH** : 11am~4:00pm on Weekdays, Except Holidays
- **DINNER** : 4:00pm to Closing Weekdays, All day on Weekends and Holidays.

무제한도 따져보고가자!

LUNCH $37.99 +TAX

DINNER $43.99 +TAX

33가지 다양한 메뉴

마무리는 기가막힌 돌판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드립니다!

가격은 내리고, 양은 더 푸짐하게!
고추장양념쌈밥 삼겹살 or 오징어
+ 된장찌개 $21.99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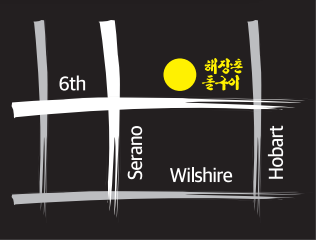
해장촌 특선 런치 $17.99 +TAX

신내해장국/ 살코기 해장국
묵은지 김치찌개

입맛 없을땐, 이거 하나면 끝!
열무양푼비빔밥 +된장찌개 $17.99 +TAX

해장촌돌구이
haejangchon.com

HaeJangChon Dolgooi Restaurant
213.389.8777 3821 W 6th St, L.A., CA 90020 (6가와 세라노)
월-목 11am-12am 금-토 11am-2am *일요일은 쉽니다.



한동훈의 헤어질 결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원희룡·나경원 후보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서희
캘코보험 마케팅 디렉터

국민의 힘 당권 레이스의 선두주자로 부상한 한동훈
당권 도전한 그의 앞 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아 보여

윤석열 대통령만큼이나 빠르게 정치권에 입문한 인물이 바로 한동훈이다. 더 엄격히 말하자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는 여론에 밀려 등용된 정치인이란 공통점을 가졌다. 물론 정치행 최종 의사결정은 사변독행의 과정을 통해 자신들이 직접 했지만 적어도 분골쇄신의 의지를 갖고 준비한 정치인들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과는 마치 연예계처럼 예견하지 못했던 '눈 떠보니 스타'가 되었다.

한동훈 후보는 현재 국민의 힘 당권 레이스의 선두주자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이제 그를 지지하는 여론의 힘이 스스로도 정치인의 길을 확고히 결심하는데 동력이 되고 있다. 지난 총선 참패에도 그의 존재감 만큼은 확실히 새겼던 한동훈 후보가 당내 높은 지지를 받으면 당권 도전을 했건만 앞으로의 길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한동훈 후보는 윤석열 정권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최연소 장관이 되었다. 그가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사실은 자명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등판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당 대표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힘과 의지가 담긴 과정이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를 '윤석열의 황태자',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불렀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달라졌다. 총선 중이었던 지난 1월 당시 논란이 되었던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이슈에 대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 공개 요구를 했고 이에 대통령실은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며 1차 갈등은 시작되었다. 결국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충남 서천 시장 화재 현장에서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기다린 끝에 현장을 방문한 윤 대통령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마찰은 봉합이 되었다.

이어진 두 번째 갈등은 지난 3월에 있었다. 당시 한 후보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귀국과 황상무 수석 사퇴를 공개 요구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했다. 이어 이 대사가 귀국하고 황수석의 사퇴로 또 한 번의 충돌이 마무리되었지만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을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 소위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 은 앞선 두 차례의 갈등과는 강도가 한층 달라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비대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이끌던 지난 1월 김건희 여사에게 문자를 받고도 무시했다는 논란이 7.23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불거져 나온 것이다. 이제는 윤한 갈등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왜 하필 이 문제가 지금 국민의 힘 전당대회의 핵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로 한 후보의 지지율 추락을 기대하는 다른 후보들과 당원들은 연일 한 후보의 김건희 여사의 문자 대응을 비난하고 있다. 핵심은 윤 대통령이 한동훈 후보와의 탯줄을 확실히 끊어 버리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는 과거와 다른 자리에 와 있다. 힘의 우위에 밀려 '폴더 인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와 지금의 그는 달라졌다. 지난 몇 달간 한 후보의 힘이 키워졌다.

이번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전당대회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일은 한동훈 후보에게 악재가 될지 모멘텀이 될 지 궁금하다.

내가 좋아하는 명화 “애수”

안젤라 장 Lic.#0B84924
실버시티보험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

1940년에 나온 영화 ‘애수’는 한국에서는 1952년에 부산에서 상영된다. 부산 피난 시절인데 피난 내려온 문인들, 예술인과 청춘들은 ‘애수’를 보며 남포동 거리에서 한 잔 하며 상실한 시대를 위로받았다고 한다.

우리가 잘 아는영화 ‘애수’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원 제목은 ‘Waterloo Bridge’인데 한국에서는 애수로 상영되었다.

남자 주인공 ‘로이 크로닌’(로버트 테일러 분), 여자 주인공 ‘마이러 레스터’(비비안 리 분).

이미 다 알다 시피 영화 ‘애수’는, 48살이 보는 25세의 기억이 이 영화의 주제이다. 줄거리를 보면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한 1939년 9월 어느 저녁, 안개 낀 워털루 다리위에 지프가 멎고 로버트 테일러 대령이 내린다. 그는 전선으로 부임하기 위해 워털루 역을 향해 가는 중이었다.

테일러 대령은 48세의 독신 군인장교 인데 단정하고 기품이 있고 잘생긴 얼굴을 이미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훔쳤을게다. 차에서 내려 워털루 다리 난간에 기대어 호주머니에서 작은 마스코트를 꺼내든다. 자신의 일생에서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마스코트를 만지작 거리며 옛 추억에 빠진다.

제1차대전. 전쟁 소용돌이 가운데 워털루 다리 위를 산책하던 25살의 대위 로버트 테일러는 공습경보로 사람들과 지하 철도로 피신한다. 내일 있을 부대 귀환을 앞두고 있었다. 그때 핸드백을 떨어뜨려 쩔쩔매고 있는 아가씨를 도와주고 함께 대피한다.

대피소 안에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진다. 비비안 리는 발레단의 발레리나였다. 공습이 해제되고 밖으로 나오자, 비비안 리는 테일러가 전선으로 출정한다는 말을 듣고서 “행운이 있기를 빈다”며 마스코트를 쥐어준다.

그날 밤 극장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비비안 리는 객석에서 테일러의 얼굴을 보고 놀란다. 놀라움은 기쁨으로 변하고 설레는 가슴을 안은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된다. 테일러는 비비안 리에게 쪽지를 전하다가 완고한 극장 직원에게 발각되어 야단을 맞지만 친구 버지니아 필드의 도움으로 몰래 만난다.

싹트기 시작한 두사람은 다음 날 테일러의 청혼으로 이어져서 결혼 하기로 했는데 테일러의 일정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채 전쟁터로 떠난다.

상심이 된 비비안 리는 전쟁터로 떠나는 테일러를 마중하러 워털루 브릿지 역으로 나가고 이로인해 공연 시간을 맞추지 못하게 되어 발레단에서 해고된다.

살길이 막막해진 비비안 리는 직업을 찾아 헤매다가 테일러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전사자 명단에 들어있는 테일러의 이름을 발견한다. 이리 저리 할 일을 찾아 헤메지만, 결국 일을 찾지 못한 그녀는 결국 친구를 따라 거리의 여자가 된다.

어느 날 워터루 역에 나갔던 마이러는군인들 사이에서 살아 돌아온 테일러를 발견하였고, 테일러는 그녀에게 결혼하자며 가족들에게 소개하지만, 가족들은 그들의 결혼을 반대하며 비비안 리를 근본없는 여자라고 싫어한다.

테일러와 하나가 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회한의 눈물을 흘리던 비비안 리는 결국 워털루 브릿지에서 자살한다.

물론 나는 첫번째 상영일때 이영화를 볼수는 없었다. 나중에 청년이 되어 이영화를 여러번 보면서 눈물 콧물 흘린기억이 있다. 그런데 요즘 배우들이 들으면 항의(?) 할 일이지만 왜 옛날 영화들은 더 아련하고 멋있게 보이는지 나만의 착각인지 모르겠다.

요즘 신문에 양극성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해 관심을 많아지는데 평생을 양극성 장애를 앓았다던 비비안 리를 생각하며 옛 영화의 추억에 잠겨 본다. 고전중에 고전인 이영화에 로버트 테일러와 비비안 리에대한 아스라한 옛 추억에 모두다 함께 “풍덩” 잠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323) 707-4242

세상이 불공평하다면 할리우드도 마찬가지다.

리처드 김

- CSUF 사회학과 졸업
- 다음 행시문학, 미주 행시문학 카페지기
- 페이스북 〈오늘의 사색〉 작가
- SAG AFTRA 배우 조합 회원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유명 배우들과 촬영 하며 신기함 느껴 그후로 예술은 배고프다는 현실을 할리우드를 통해 절실히 깨달아

우연히 시작한 백그라운드 배우 일이 7년이 되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할리우드의 TV와 영화와 광고가 만들어 지는지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새로웠다. 특히 세계 유명 배우들과 같이 촬영을 하며 그들의 연기를 가까이서 지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일이 아주 재미있고 신기했다.

하지만 이 일의 생태계를 알아가면서 백그라운드 배우 일만큼 임금 인상에 인색한 직업도 드물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예술은 배고프다는 현실을 할리우드를 통해서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대부분의 백그라운드 배우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재미있게 시작하다가 1년쯤이면 경제적 현실때문에 80%가 그만 둔다. 이 일은 공급에 비해 백그라운드 배우들의 수요가 너무나 많기에 프로덕션이 임금을 적게 지불해도 경쟁이 치열하다. 그래서 대부분 백그라운드 배우들은 촬영장의 거리가 멀고 배역이 힘들어도 감사하며 일을 하려고 한다.

할리우드의 TV 쇼와 영화와 광고 촬영을 하다보면 촬영마다 불공평 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이유는 이 일은 편한 배역을 맡으나 힘든 배역을 맡으나 시간당 하루 일당은 모두 똑같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프로덕션 촬영은 하루종일 놀면서 하루 일당을 받기도 하고 어떤 촬영은 생고생을 하면서 촬영을 해도 받는 일당은 같다.

백그라운드 배우 촬영이라 하더라도 조금 힘든 배역들이 있다. 유니폼을 입는 배역으로 소방관이나 경찰관 또는 병원 응급 구조사 주방장 바텐더 웨이터 웨이츄레스등의 촬영은 의상부터가 번거롭고 다른 배역들에 비해 디테일한 마임 연기를 요구하기에 촬영이 조금 더 힘들다. 상식적이라면 촬영의 강도에 따라 임금의 차등이 있어야 하는데 불공평하게도 프로덕션이 지불하는 임금은 언제나 같다.

시간당 미니멈 법정 시급을 받는 난유니온 백그라운드 배우들은 촬영 일을 대신 잡아주는 콜링 서비스만 있어도 일주일에 평균 3일 정도는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유니온은 사정이 다르다. 시간당 임금을 $26을 받기에 난유니온 때보다 촬영 일을 잡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 그

래서 유니온이 되어서 어느정도 일거리를 보장 받으려면 유니폼이 잘 어울리고 남들이 귀찮아하는 배역을 많이 맡아서 일해야 한다. 하지만 유니폼 배역을 맡고 싶다고해도 아무나 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나마 내가 작년에 6주동안 유명 TV 프로덕션과 계약이 되어 코어 백그라운드 배우로 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찰관 배역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니온 백그라운드 배우로서 어느정도 일거리를 보장 받으려면 자신이 캐스팅 회사로부터 유니폼이 잘 어울리는 배우라는 것을 부각시켜야 한다. 특히 이런 유니폼 배역들은 인물 신장 체형등을 까다롭게 선발을 한다.

백그라운드 배우 일은 나이가 들 수록 힘들어 진다. 그 이유는 매 촬영마다 촬영 장소와 시간이 불규칙 하고 배역의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 난유니온 백그라운드 배우 때는 경찰관 배역은 한 번 밖에 없었다. 그래도 유니온이 되니 시간당 임금이 늘어난 만큼 비중있는 경찰관 바텐더 쉐프 웨이터등의 유니폼 배역을 가끔씩 맡는다. 그만큼 프로덕션은 돈을 지불한 만큼 일을 시킨다.

백그라운드 배우 일은 25년동안 일을 했던 파이낸스 일을 그만두고 7년째 앞만 보고 달려 온 길이다. 어떤 귀찮은 유니폼 배역일지라도 항상 감사하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상 일이란 남들이 귀찮아 하는 일을 해야 그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데 특히 할리우드 유니온 백그라운드 배우 일도 마찬가지다.

외워두면 좋은 오늘의 영어 단어

unprovoked

[ə¸nprəvou'kt]

1. 자극받지 않은 2. 이유 없는 3. 까닭이 없는 4. 명분 없는

The **unprovoked** shelling that day by the North killed two South Korean marines and two civilians..

그 날 북한의 **이유 없는** 포격으로 두 명의 한국 해군과 두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unprovoked attack **명분 없는** 도발>

내몸에 좋은 H 꿀Tip

구기자 Goji berry

슈퍼푸드로 떠오르는 구기자는 영어로 고지베리라고 한다.
구기자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말린 건구기자로 먹는 경우가 많다. 베타인 성분이 풍부해 간세포 재생, 지방억제, 피로회복에 좋다.
또 베타카로틴, 루틴의 항산화작용으로 피부노화 방지 및 피부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밖에 눈건강, 성인병예방, 면역력강화 등에도 좋다.
미국 마켓이나 코스코에 가면 말린 goji berry를 구입할 수 있다.

취업이민 1순위(EB-1A)와 추가서류 요청

이경희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JD 법학박사)
- Immigration Law Associates, PC
- Legal Department of Centro Romero(Intern & Extenship)
- Asian Human Services
-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AILA) 회원

현재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닫혀 있어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직 종사자들은 취업이민 2순위 보다는 1순위 (EB-1A)에 관심이 많다. 왜냐하면 1순위는 대부분 문호가 열려있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 스폰서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민국의 심사 기준이 높아 추가서류 요청이 많이 나오게 된다. 1순위 추가서류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였다.

1. 이민국의 1순위 심사 기준은 어떠한지

우선 신청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수상한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아래의 10가지 조건 중에서 3가지를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다. 먼저,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상경력, 둘째는 회원 가입이 까다로운 단체의 가입 여부, 셋째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가 한 일에 대해 발표된 기사 등 매체 자료, 넷째로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는지 여부, 다섯째는 저명한 저술, 여섯째로는 해당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는지 여부, 일곱째는 전시회 등에 작품이 걸린 적이 있는지 여부, 여덟째로는 유명한 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부, 아홉째는 같은 분야의 다른 전문인에 비해 더 높은 보수를 받는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연예술 분야의 상업적 성공 여부이다.

2. 이민국은 어떤 서류를 추가로 요청하는지

이민국은 추가서류를 요청하면서 신청서에서 설명한 조건들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려준다. 예를 들어, 신청서에서 4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한 경우 이민국은 추가서류 요청서에서 이 4가지 조건들 중에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는지를 알려준다. 만일 이민국이 두가지 조건을 받아 주었다면 한가지만 더 충족시키면 된다. 따라서 추가서류 요청서를 보면 이민국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충족시키지 못한 조건들에 집중해서 보완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 만일 신청자가 해당 분야의 다른 전문인들 보다 연봉이 높다면 한가지 조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여 다른 전문인들의 작품 또는 논문을 심사하였다면 이 조건도 충족될 수 있다. 예들 들면, 저널이나 회의 등에서 논문이나 작품을 심사했다면 가능할 수 있다.

3. 추가서류를 위해 자료를 일부 남겨 두는게 좋은지

아니다. 많은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 나오지만 처음 신청서를 제출할때 자료를 다 제출해서 결정을 받는게 좋다. 왜냐하면 1순위인 경우 객관적인 자료가 많다면 이민국의 추가서류 요청을 받지 않고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 1순위 (EB-1A) 신청시 국가이익면제(NIW)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1순위 심사 기준이 높다보니 2순위인 국가이익면제와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어려운 케이스인 경우에는 1순위로 이민청원 (I-140)과 신분조정 (I-485)를 함께 신청하지 않고 먼저 이민청원만 급행으로 신청하여 3주 안에 승인여부를 받는게 좋다. 만일 추가서류 요청이 나와 보완서류를 제출했는데도 거절된다면 이번에는 국가이익면제로 이민청원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1순위 이민청원이 거절되더라도 국가이익면제로 다시 신청할때 불이익은 없다. 둘 다 준비과정은 유사하다. 논문이나 객관적인 자료가 많을 경우에는 1순위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반면 객관적인 자료는 부족하지만 향후 미국 국익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국가이익면제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2순위인 국가이익면제 신청은 문호가 닫혀있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만일 미국에서 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에 문호가 열려 있다면 이민청원과 신분조정을 동시에 신청하여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를 빨리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현재 이민국 심사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미국에서 1순위로 진행하면 1년 정도 걸린다. 하지만 한국에서 신청할 때는 이민청원이 승인된 이후 국무부와 미대사관 수속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 그런데 1순위도 문호가 닫히는 시기가 있다. 주로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8월이나 9월에는 문호가 닫힐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새 회계연도가 열리는 10월 이후에는 영주권 문호가 열릴 가능성이 많다. 설령 문호가 닫혀 있더라도 대기기간이 길지는 않다.

(213) 385-4646
imin@iminusa.net

하드머니 7%대 이자

☑ 일주일 안에 처리 가능 ☑ 저렴한 비용(Point)

융자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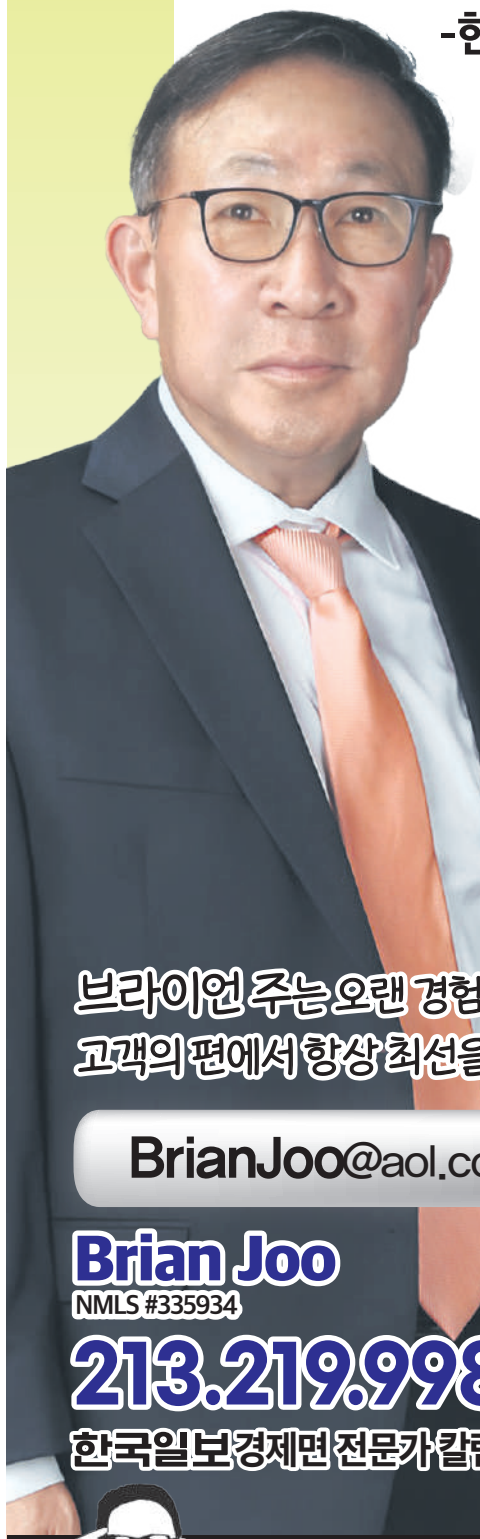
융자외길 34년, 브라이언 주의 경험과 완벽한 일처리,
꼼꼼한 마무리 헤일리 홍에게 맡겨주세요!

● 주택 2차 융자
-현재 저렴한 융자 유지하며 집 가격의 **75%까지** 융자 가능
-세금 보고 필요 없음 (직장인, 자영업)
-이자 8% 후반 30년 고정

● EASY DOC
-25-30 % DOWN 7.5%부터 시작
-재직증명만으로 융자 가능
-12Mons Bank Statements 만으로 융자 가능

● Merchant Credit Card Loan
-크레딧 카드 매출이 매달 $50,000 이상이면 가능
-Credit Score 580점 이상/
2-3일 만에 Funding 가능
-NO FEE

● 30년 고정 6.25% 부터



브라이언 주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편에서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BrianJoo@aol.com

Brian Joo
NMLS #335934
213.219.9988
한국일보경제면 전문가 칼럼 게재 중

- 최저이자 서비스
- 신속 친절 융자
- NO Cost 융자
- 개인별 맞춤 융자

헤일리 홍이 여러분의 꿈을 위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Hailey Hong
NMLS # 2389535
714.253.2937
leewayfunding4@gmail.com

브라이언 주 융자 3600 Wilshire Blvd. Ste 410, LA., CA 90010 | **213.219.9988**
BrianJoo NMLS #335934

In New York

'NYU 랭곤 메디컬센터' 전국 최우수병원 2위

머니닷컴 선정 최우수 병원에 뉴욕·뉴저지서 10개 병원 포함
노스쇼어 11위, 마운티 사이나이 17위

■ 머니닷컴 선정 '2024 전미 최우수 병원' (뉴욕/뉴저지) <출처-머니닷컴>

순위	병원(도시/주)	총점	최고 전문분야	의료비 투명도	최고 서비스
2	NYU 랭곤 메디컬 센터(NYC/NY)	A+	정골의학(OMM)	B-	중증패혈증(SS)
11	노스쇼어 유니버시티 병원(맨하셋/NY)	A	핵의학(NM)	B-	중증패혈증(SS)
12	모리스타운 메디컬센터(모리스타운/NJ)	A	중환자집중치료(CC)	B	심장판막교체(CVR)
17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NYC/NY)	A	중환자집중치료(CC)	B+	심장판막교체(CVR)
19	SUNY 스토니브룩 병원(스토니브룩/NY)	A	일반진료(GP)	B	중증패혈증(SS)S
22	St. 프렌시즈병원 심장센터(로슬린/NY)	A	통증관리(PM)	C+	심장판막교체(CVR)
51	해켄색 유니버시티 메디컬센터(해켄색/NJ)	A-	감염성질병(ID)	B	중증패혈증(SS)
63	Ns/Lij Hs 헌팅톤 병원(헌팅톤/NY)	B+	감염성질병(ID)	B	중증패혈증(SS)
90	와잇 플레인스 병원(와잇플레인스/NY)	B+	일반진료(GP)	B	중증패혈증(SS)
92	밸리 병원(릿지우드/NJ)	B+	CCNS	B	호흡기감염(RI)

미 전국 최우수 병원에 뉴욕과 뉴저지 일원 10개 병원이 선정됐다.

전문 경제매체 머니닷컴(money.com)이 최근 선정한 '2024 전미 최우수 병원(The Best Hospitals of 2024)' 명단에 맨하탄에 위치한 NYU 랭곤 메디컬 센터 등 뉴욕과 뉴저지 10개 병원이 올랐다.

이번 평가는 6,000개가 넘는 전국 병원을 상대로 환자 사망률과 안전기록, 의료비 투명도, 환자 만족도, 의사 및 의료진 경험도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머니닷컴에 따르면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C)로부터 별 4개 이상 평가를 받은 병원 1,300개를 1차로 골라낸 후 의사 및 의료진의 경험도와 가격 투명도 등을 평가해 최종 115개 우수 병원을 선정했다.

전국 2위에 이름을 올린 NYU 랭곤 메디컬 센터는 전국 1위 어드벤트헬스 올랜도 병원(FL)과 함께 총점에서 A+를 받았다. 뼈를 바로잡는 정골의학(OMM)이 이 병원의 최고 전문분야였고 패혈증 특히 중증패혈증 치료가 최고의 서비스로 꼽혔다. 공개된 의료비와 환자가 실제 낸 의료비를 비교한 의료비 투명도는 B- 평점을 받았다.

이어 뉴욕주에서는 롱아일랜드 맨하셋에 위치한 노스쇼어병원이 전국 11위, 뉴욕시에 위치한 마운티 사이나이병원이 전국 17위, 롱아일랜드 뉴욕주립대(SUNY) 스토니브룩병원이 전국 19위, 롱아일랜드 로슬린에 위치한 세인트 프렌시즈병원 심장센터가 전국 22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의료비 투명도가 가장 좋은 병원은 B+를 받은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이었다.

뉴저지주에서는 모리스타운에 위치한 모리스타운 메디컬센터가 전국 12위에 랭크되며, 뉴저지에서 가장 우수한 병원으로 꼽혔다. 버겐카운티에 위치해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켄색 유니버시티 메디컬센터는 51위에 이름을 올렸다.

In San Francisco

SF자이언츠 구장에 울려퍼진 한인 합성

한국 문화유산의 날 행사…다양한 한국문화 소개
경기장에 한인 900여명 모여…이종범 선수 시구

지난 26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장인근과 구장에서 한국 문화유산의 날 행사가 성대하게 열린 가운데 이날 구장에는 900여명의 한인들이 자이언츠를 응원했다. 이날 대형 전광판에 한인들과 관중석 대형 태극기가 중계되고 있다.
<사진 SF 한인회>

베이지역 프로야구장에서 한인들의 목소리가 하나의 함성으로 울려 퍼졌다.

메이저리거 이정후 선수의 환영 행사 겸 한국 문화를 알리는 '한국 문화유산의 날(Korean Heritage Night)' 행사로 열린 지난 26일 밤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경기는 이정후 선수의 메이저리그 입성을 환영하고 그의 부상 쾌유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오후 3시 30분부터 오라클 구장 옆 차이나 베이슨(파크)에서부터 시작됐다.

본보 이민규 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차이나 베이신 행사는 김한일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한인회장, 임정택 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 필립 원 샌프란시스코 체육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애런 페스킨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의장, 데이빗 리 중국계 미국인 유권자 교육위원회 디렉터 등의 인사말이 이어졌으며 북가주 주민 5백여명이 참석, 한국 음악과 무용, 음식 등을 즐기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공연은 유니스가 '아름다운 강산'을 열창하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고, 만남중창단의 '오데니보이'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갓스이미지의 힙합댄스, 버클리대학 K-pop Dance Group의 케이팝 댄스, 엘리트도장의 태권도 시범, KCCU 우리사위의 가야금 연주, 연희놀이, 버나놀이, 열두발, 난타공연 등 다채로운 한국 전통 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참석자에게 갈비 및 음료, 경기 티켓 900여장 등을 제공하며 행사의 실질적인 산파역을 담당한 김한일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한인회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지속되어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또 "이날 자이언츠 경기에 앞서 구장내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짤막한 동영상이 마련되었으나 불발되는 아쉬움을 남겼으나 한인 사회의 단결을 알리는 좋은 모습을 보여줘 다음 행사 때에는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동영상과 함께 더욱 세련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큰 성과"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경기는 한인 900여 명이 관람했다. 자이언츠 구단은 이날 시구와 시포에 대해 "한국인의 밤을 기념해 '바람의 아들'이 이종범이 시구를, 바람의 손자(이정후)가 시포를 했다"고 소개했다. 또 북가주 어린이 합창단의 미국 국가 제창에 이어 태권도 시범 등이 이어졌다. 이날 자이언츠와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는 자이언츠가 홈런 3개을 뽑아내며 시카고 컵스를 4-3으로 물리쳐 관객들에게 기쁨을 배가시켰다.

<이정훈 기자>

In Washington D.C.

싱글홈 렌트비 "장난아니네"

북버지니아 싱글홈 세입자의 30%가 월 5,000달러 이상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사이트인 포인트2(Point2)에 의하면 버지니아 알링턴은 고급 임대 주택 부문(The luxury tier)에서 전국 10위로 나타났으며, 임대 싱글홈의 29.67%가 월 최소 5,000달러의 렌트비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알링턴 주택 세입자의 3.3%는 한 달에 1만 달러 이상을 지불했다.

알링턴에 인접한 DC 역시 싱글홈 세입자의 29.09%가 월 5,000달러 이상, 2.55%는 월 1만달러 이상을 내면서 알링턴의 뒤를 바짝 쫓았다.

팬데믹 이후 싱글홈 렌트 분야에서 새로 건설된 주택의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렌트카페(Rent-Cafe)에 따르면 지난해 미 전역에서 2만7,500채가 완공돼 렌트됐다. 이는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이다. 현재 미 전역에 건립 중인 싱글홈 4만5,000채가 렌트 예정이다.

이처럼 아파트보다 렌트비가 훨씬 비싼데도 싱글홈 임대가 크게 증가한 것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재택근무의 확산, 프라이버시를 위한 충분한 실내 및 실외 공간 확보, 모기지나 유지 보수 비용이 없고 스트레스도 없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22년 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모든 가격대의 싱글홈 렌트 가구 수는 1,400만 명을 넘어 현재 전체 렌트 가구의 32.5%를 차지했다.

포인트2 조사에 따르면 가계 소득이 15만달러 이상인 싱글홈 세입자의 수가 2017년 이후 2배 이상 늘어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고급 싱글홈 렌트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6개 대도시 지역 중 5개(LA, 샌프란시스코, 어바인, 애나하임, 샌디에고)가 캘리포니아에 있으며 동부의 보스턴(매사추세츠주), 마이애미(플로리다주), 알링턴(버지니아주)도 높았다.

캘리포니아의 글리지 로스앤젤레스(Glitzy Los Angeles)는 월 1만달러 이상의 초호화 싱글홈 임대(The ultra-luxury tier) 비율이 29%로 탑을 기록했으며 캘리포니아 여러 도시들과 뉴욕이 탑 10에 들었다.

> 미주 한국일보 10개의 지사를 통해 매일 게재되는 뉴스 중 어느 지역에 살든 공감할 수 있는 소식, 정보와 각 지역의 한인사회 뉴스를 뽑아서 4 페이지에 걸쳐 게재합니다. 지역별, 지사 별 더 상세한 뉴스와 정보는 korea times.com 을 보십시오.

반려동물에 마이크로칩 무료 이식

볼티모어카운티 동물보호소, 3일까지 볼드윈 지점서

볼티모어카운티 동물보호소가 3일(수)까지 반려동물에 마이크로칩(무선식별장치) 이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마이크로칩 이식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유기되거나 유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피부 아래에 삽입하여 동물을 식별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동물보호소 볼드윈 지점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4시 방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전예약 없이 가능하다. 카운티 거주자는 무료이나 비거주자는 10달러이다.

문의 (410)887-7297

장소 13800 Manor Rd. Baldwin, MD 21013

<배희경 기자>

'베이글 세서미' 한국 가져갔다가 봉변

트레이드 조 제품…마약류인 양귀비 성분 함유 통관 안돼

베이글 빵이나 스테이크 등에 뿌려 먹는 인기 양념류인 트레이드 조의 '에브리띵 벗 더 베이글 세서미' (사진)를 선물용으로 한국에 가져갔다가 세관에서 특별 짐 검사는 물론 몰수당하는 등 봉변을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베이글 세서미는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비롯해 여러 SNS에서 빵에 뿌려먹는 맛있는 양념으로 소개되면서 한국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으며, 한국 방문 시 챙겨가야 할 선물리스트에도 자주 오르고 있다. 문제는 베이글 세서미 속에는 마약류 성분인 '파피 시드(Poppy Seed. 양귀비 씨)'가 아주 적게 있는데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약간의 파피 시드가 들어간 베이글 세서미를 식용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다며 반입 금지 물품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베이글 세서미 양념을 선물용으로 구입해 비행기를 탔다가 한국 세관에 적발되어 특별 수하물 검사로 넘겨지고 모조리 빼앗기는 것은 물론 훈방까지 받는 등 예상치 못한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최근 한국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한 여행객은 "인천 공항에 도착하니 짐 가방이 노란색 잠금 장치로 잠겨 있어 처음에는 무작위로 세관 짐 검사에 걸렸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알고 보니 선물용으로 가져 간 베이글 세서미 양념이 문제였고 다 몰수당했다"고 전했다.

In Hawaii

제20회 코리안 페스티벌, 2주 앞으로

8월2, 3일 이틀간 카카아코 공원에서 열려

한국영화의 밤, 배우 신현준 초대
케이팝 걸그룹 수피아 무대도 선보여

하와이 다민족 축제로 자리한 제20회 코리안 페스티벌이 한 달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하와이 한인상공회의소(회장 지나 김)는 축제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제20회 코리안 페스티벌이 오는 8월2일(금)과 3일(토) 카카아코 게이트웨이 공연(Cooke St과 AlaMoana Blvd. 사이)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이틀간에 걸쳐 열리는 올해 축제에는 8월2일 전야제 행사로 배우 신현준을 초대해 한국 영화의 밤 행사를 개최하며 하와이 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데 이어 3일 축제에는 걸그룹 수피아가 참석해 K-팝의 뜨거운 무대를 선보인다.

이외에도 한인농악단, 할라함 스튜디오의 전통무용공연, 아랑고고장구단의 신명나는 장구 장단과 필리핀, 중국, 일본커뮤니티의 전통공연단들이 출연해 다민족사회 문화축제로 함께 즐기는 축제 한마당 열기를 더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에서 방문하는 전통 무용 공연단과 아랑고고장구단 한국 본원 연주단이 참석해 화려한 전통무용과 흥겨운 장구가락외에도 화려한 한복 패션쇼도 선보일 예정이다.

제20회 하와이 코리안 페스티벌은 2003년 미주한인 이민100주년 기념사업 성공 개최 여부를 미리 가늠하기 위해 2002년 처음으로 선보인 이후 다민족사회 하와이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문화행사로 자리하며 미주한인 이민 121년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하와이 한인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다.

In Seattle

시애틀 미국내 최고교육 도시중 한 곳... 월렛허브 조사서 150개 도시 중 10위 랭크

문화와 교양의 도시인 시애틀이 주민들의 교육 수준에 있어서도 전국 최고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금융 정보사이트 '월렛허브(WalletHub)'는 미국 150개 도시권을 대상으로 교육수준을 조사한 결과, 시애틀 교육 수준이 10위에 랭크됐다고 밝혔다.

월렛허브는 교육 정도와 교육의 질과 성취도 차이 부문을 종합해 교육수준이 높은 도시 순위를 매겼다.

평가 기준은 고교 졸업자 이상 25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장 소지율 ▲학사 비율 ▲준 학사 혹은 대학 재학 경험비율 ▲대학원 졸업자 비율 ▲공교육 질 ▲인종별 교육 격차 ▲성별 교육격차 등 모두 11개 항목을 조사했다.

시애틀은 특히 주민들의 준학사 및 대학재학 경험비율이 전국에서 8위를 기록했고, 주민들의 학사 비율이 12위, 대학교 질 부문 16위, 고등학교 졸업장 소지율 13위, 석사학위 소지율 15위, 공교육질 부문에서 15위에 각각 선정됐다.

미 전국에서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로는 미시건 대학이 소재한 앤아버였으며 산호세/산타클라라가 2위에 워싱턴 D.C., 노스캐롤라이나 더햄/체이플힐, 위스콘신 매디슨 등이 5위 안에 포함됐다.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전체 14위에, 유진시는 37위에, 워싱턴 주립대학이 소재한 스포캔 밸리는 65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

미 전국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도시는 캘리포니아주 비살리아-포터빌, 텍사스주 맥앨런-에딘버그,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 캘리포니아 모데스토 순이었다.

In Canada

온주서 가장 저렴한 부동산은 오타와에

오타와 주변 도시들은 현재 온주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어드벤처스닷컴

경쟁력 있는 주택가, 낮은 실업률

토론토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은 도시 중 하나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온타리오주 내 다른 지역이나 타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광역토론토지역 바깥 멀지 않은 곳에 부동산이 더 저렴한 지역들이 있 다.

캐나다의 부동산 리스팅 웹사이트 졸로(Zolo)가 온주 내 100여 개 도시의 저렴한 부동산 순위를 조사했 다. 목록에 오른 도시들의 실업률은 토론토의 현재 실업률 7.8%보다 훨씬 낮아 3.8%에서 5.1% 사이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온주 내 부동산이 가장 저렴한 도시 중 다섯 곳은 오타와 지역에 있다. 오타와 주변 도시들은 현재 온주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수도인 오타와도 평균가, 지역 경제의 전 반적인 성공, 인구 성장, 실업률 등을 고려해 생활 비용이 가장 효율적인 도시에 속한다.

졸로의 순위표에서 1위를 차지한 도시는 네피안 (Nepean)이다. 이곳은 현재 오타와의 일부로 간주되 지만 원래는 독립된 자치구였다. 2024년 3월 기준 이 곳의 평균 주택 가격은 572,388달러이며, 평균 가구 소득은 137,000달러이다.

토론토에서는 평균 주택 가격이 약 120만 달러로, 이 를 감당하려면 연간 소득이 215,920달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오타와에서 약 40분 거리에 있는 소도 시 칼튼 플레이스(Carleton Place)가 있다. 이곳의 평균 주택 가격은 555,174달러로 더 낮고, 주민들의 평 균 가구 소득은 약 100,700달러이다.

상위 5위 안에는 카나타(Kanata | 평균 주택 가격 810,021달러 | 평균 소득 146,600달러), 틸슨버그 (Tilsonburg | 평균 주택 가격 588,172달러 | 평균 소득 87,600달러), 아른프라이어(Arnprior | 평균 주택 가격 482,732달러 | 평균 소득 92,300달러)가 있으며, 이들 중 두 곳은 오타와 근처에 위치해 있다.

캐나다 도피 8년만에 덜미

42억 투자 사기 50세 남성 체포

【서울】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 후 8년여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이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이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권모(50)씨를 구속기소 했다 고 밝혔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약 420 만 달러)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거주했다.

검찰은 2016년 9월 권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권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국경서비스관 리국(CBSA)과 적극적으로 공조해왔다.

특히 권씨의 부인과 자녀가 캐나다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소재지와 동향에 관한 자료를 관리 국에 지속해서 제공해 현지 탐문 수사가 이뤄질 수 있 도록 했다.

이런 노력 끝에 권씨는 지난달 7일 밴쿠버공항에서 검거돼 18일 송환됐다.

지난해 이후 캐나다에서 검거·송환된 국외 도피 사범은 권씨 외에도 전세 대출 사기범, 100억원대 업무 상 배임 혐의자 등 총 3명이다.

사기 혐의를 받아온 50세 남성이 캐나다 도피 8년만에 밴쿠버공항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밴 쿠버공항 모습. CTV 방송 사진

In Atlanta

조지아 두 여교직원 학생과 관계 기소

칼훈 시 학교시스템 직원 남학생과 관계 혐의 기소

당국에 따르면 전 칼훈(Calhoun) 학교 시스템 직원 두 명이 학생들과 성적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든 카운티 슈피리어법원 문서에 따르면, 전직 칼훈 시립 학교 직원인 레일리 그리슨(Railey Greeson)과 브루클린 슐러(Brooklyn Shuler)는 지난달 27일 대배심에서 특별 발표의 일환으로 "직원 또는 대리인에 의한 성적 접촉" 1급 혐의로 기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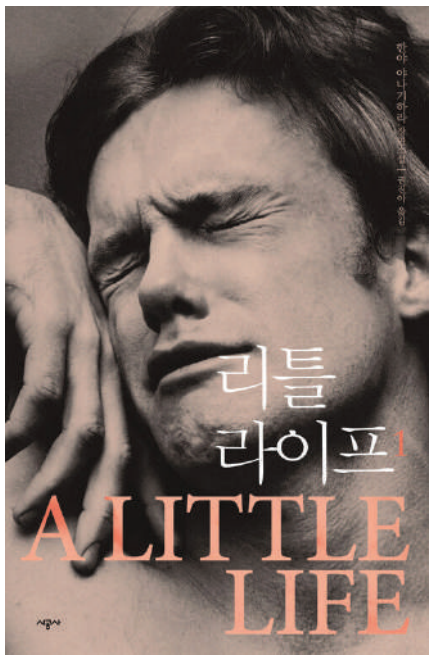
기소장은 그리슨이 2021년 10월 말부터 2022년 1월 초 사이에 학교 시스템의 남학생과 "성교 및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에 가담했다고 적고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리슨은 남학생이 학교 시스템에 등록된 학생임을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다". 그녀는 조지아 규정 16-6-5.1 (b)를 위반했다. 그녀는 직원이나 대리인에 의한 두 건의 성적 접촉 혐의로 기소됐다.

슐러는 직원이나 대리인에 의한 한 건의 성적 접촉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CCS 시스템에 등록된 별도의 남학생과 "성교 및 성적으로 노골적인 행위"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학생은 학생으로 등록되어 그녀는 조지아주 규정 16-6-5.1(b)을 위반했다.

사건에 포함된 남학생들의 나이는 공개되지 않았다.

▲ 레일리 그리슨(왼쪽), 브루크린 슐러<사진=고든카운티 셰리프국>

리틀 라이프〈A LITTLE LIFE〉 1, 2



리틀 라이프 1, 2

한야 야나기하라(지은이),
권진아(옮긴이) | 시공사

알라딘서점 LA점
송명국이사

유튜브,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이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리는 유행이 불고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아 '역주행 돌풍'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다. 작년 말부터 틱톡에서 <리틀 라이프> 바람이 불었다. 틱톡에서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 말하는 '북톡(BooktTok)'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리틀 라이프>를 읽은 사람들의 영상은 좀 달랐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오열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들은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다", "눈물이 나 몇 번을 읽다 멈춰야 했다"고 했다.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한 남자의 얼굴이 책 표지인 것도 인기에 한몫했다.

<리틀 라이프>는 미국에서 2015년에, 한국에서는 2016년 변역된 출간된 소설로 영미권을 대표하는 문학상 맨부커상과 전미도서상 최종후보에 나란히 오르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25개 언론사에서 '올해의 책'으로 꼽은 화제작이었다. 영국과 미국의 대표 문학상 후보에 선정되기 전부터 독자들 사이에서는 "밤을 새워 읽었다" "천 페이지가 더 길었으면 하는 소설은 처음이다" "눈물이 나 몇 번을 읽다 멈춰야 했다"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다" "읽는 내내 매일 밤 이 소설에 관한 꿈을 꿨다" 같은 리뷰와 함께 이미 입소문이 퍼진 작품으로, 맨부커상 후보작으로 선정된 후 이례적으로 홈페이지에 응원 댓글이 달리며 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어린 시절 끔찍한 학대와 폭력의 트라우마를 간직한 비밀스러운 인물 주드의 이야기를 담은 <리틀 라이프>는 또한 그 소재의 선정성과 가차 없음으로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가장 논쟁적인 작품이 되기도 했다.

현대 소설로는 드물게 요약본과 해설서가 등장하고, 서평 사이트 '굿리즈'에 4만 명이 넘는 독자들이 별점 4점 이상의 평점을 남기고 있으며, 영화 <캐롤>의 배우 루니 마라가 추천 도서로 꼽는 등, 독자들의 가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학 동창인 네 친구 윌럼, 맬컴, 제이비, 주드는 각자의 꿈을 안고 뉴욕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윌럼은 배우, 맬컴은 건축가, 제이비는 화가이고, 주인공인 주드는 고통으로 가득 찬 비밀스러운 과거가 있는 변호사다. 주드는 잘생긴 외모와 비상한 머리에도 불구하고 대학 시절부터 비밀투성이에 자존감이 낮았지만 친구들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사랑한다. 친구들은 주드가 왜 다리를 저는지, 팔과 등에 상처는 왜 끊이지 않으며, 어려서는 어떻게 살았고 가족은 있는지 등 그에 대해 모르는 게 많지만 주드가 불편해하기 때문에 묻지 않는다.

사실 주드는 태어나자마자 쓰기레봉지에 담겨 버려졌고, 수도원에서 자라는 동안 끔찍한 학대를 당했다. 아홉 살 때 한 수사와 함께 수도원을 도망쳐 나오지만, 그를 기다리는 바깥세상은 수도원보다 더욱 끔찍하기만 했다. 그러다 십대 후반 어느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대학에 들어간 뒤에는 "마치 인생이 그에게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 것처럼 끔찍했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 펼쳐졌다.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믿을 수 없는 행복을 마주한 주드. 하지만 한 번도 자신의 것이라 여겨본 적 없는 행복이 커져갈수록 과거의 기억 또한 점점 또렷해지며 현재의 그를 비난하고 조롱한다. 과거의 불행과 현재의 행복 사이의 낙차가 클수록 그는 자신의 생이 견디기 어렵다. 생의 지옥은 어디까지이며 생의 행복은 어디까지일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부당함을 넘어서려 했던 남자, 살아내기 위해 스스로를 파괴해야 했던 한 남자의 삶을 그린 이 작품은, 한 가닥 희망의 가능성마저 거부하며 생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한다.

비평가들이 "잔인한 걸작"이라고 찬사를 보내는 <리틀 라이프>는 마지막까지 예측을 거부하며 거듭 충격을 안겨주지만, 쉽게 예측할 수 없기로는 작가 한야 야나기하라 또한 마찬가지다. 맨부커상 최종후보까지 오른 작가로는 드물게 야나기하라는 전업작가가 아니며, 단순히 생계를 위해 부업을 유지하는 작가도 아니다. 야나기하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 여행 잡지 <콘데나스트 트래블러>에서 일했고, 지금은 <T: 뉴욕타임스 스타일 매거진>의 부편집장으로 있다. 한 인간의 생의 어둠을 끝 간 데까지 파고든 작품으로 화제를 몰고 온 작가치고는 화려한 이력이다. 작가 약력에는 자신을 "뉴요커"로만 소개해,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작가라는 복잡한 정체성들을 모두 걷어낸다.

"본업을 갖는 것은 창작할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창의적인 예술가가 될 자유를 준다"라고 말하는 야나기하라는 자신의 두 번째 소설 <리틀 라이프> 역시 잡지사를 다니는 동안 주중에는 세 시간씩, 주말에는 여섯 시간씩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작품을 썼고, 그 결과 18개월 만에 대작을 완성했다. 천 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보더라도 놀라운 창작력이지만, 그 천 페이지가 무색하도록 엄청난 흡인력으로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 또한 대단한 성취가 아닐 수 없다. 스스로 "주로 밤에 집필을 하면서 이 어두운 세계에 파묻힐수록 다음 날 출근을 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고 말할 만큼 묵직한 울림을 주는 이 소설을 통해 야나기하라는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 작가에게 흔히 기대할 법한 소재들과는 어떠한 접점도 없는 독창적인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해냈다.

<리틀 라이프>의 표지에 쓰인 인물 사진은 유명한 미국의 사진작가 '피터 후자'의 작품으로, 야나기하라는 처음부터 이 사진을 표지 이미지로 염두에 두었다고 전해진다. 피터 후자는 소외된 사람들의 고통과 고독,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특유의 섬세하고 애잔한 시선으로 담아낸 흑백 초상 사진들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사진 속의 가차 없고 무력한 어떤 것이 내 소설 속 인물인 주드와 윌럼을 떠올리게 했다"는 야나기하라의 말처럼 힘겹게 울음을 참는 듯한 남자의 얼굴은 소설 속 주인공의 인생과 맞닿아 있어, 이 사진을 염두에 둔 작가의 의도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사진의 제목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작품의 제목은 <절정에 달한 남자(Orgasmic Man)>다) 출판사 측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이 남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인지 기뻐하는 것인지"의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기자는 야나기하라의 말에 동의했고, 그 결과 한국을 비롯한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저 '우는 남자'의 얼굴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소셜미디어에 이 책을 읽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올리는 유행에 '역주행 돌풍'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으로 틱톡에서 <리틀 라이프> 열풍

한인 일식당 업주들을 위한 스시뉴스 LA

일식당에 적합한 노동법 정보 제공 뉴스레터 창간
업계에 도움되는 정보 교환같은 사랑방 역할 기대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식집, 일명 스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은 대부분 한인들이다. 오히려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인들이 소수에 불과한 현실이다. 그런데 다른 업종에 비해 일식업은 잘 뭉치기 힘들다. 그 이유로는 일식당들이 협회를 만들거나 모이기 위한 동기가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 한인 일식당 업주들이 협회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지난 2015년 3월에 60여 명의 한인 일식업주들이 뭉쳤었다. 이들은 당시 '미주 한인일식업협회'를 발족하고 '생선이름 표기 공익소송'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었다. 당시 2014년 12월부터 LA 지역 일식당 업주들 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하면서 거액의 보상액을 요구하는 편지들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이들은 당시 협회나 조직이 없어 개별적으로 행동했지만 협회와 함께 2년에 걸쳐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서 결국 2017년 이 소송을 취하시키는 개가를 올렸다. 당시 롱비치 지역의 웨이드 밀러 변호사는 한인 일식당들이 '에스콜라'를 '화이트 튜나' 로 잘못 표기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의 발단은 한인 일식당에서 '에스콜라'를 '화이트 튜나'로 표기하던 관행 때문이었다. 에스콜라는 고등어의 일종으로, 당시만 해도 일식당에서는 일반적으로 화이트 튜나로 통했다. 이 때문에 마켓에서도 화이트 튜나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수산품 도매업체도 화이트 튜나로 공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주 의회는 2014년 잘못된 해산물 표기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엉터리 표기 해산물 판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SB1138)을 통과시켰는데 첫 적발시에도 최고 1000달러의 과태료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도 부과받게 됐었다.

밀러 변호사는 이 법안의 통과를 이용해서 지난 2014년 부터 일식업주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기 시작했고, 실제로 지난 2015년에는 4개의 한인 업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이 변호사가 보상금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일식당은 3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 졌다. 2017년 10월 밀러 변호사는 자기가 직접 소송을 제기한 4개 업소 뿐만 아니라 보상금 요구에 공동으로 대처한 미주한인일식업협회 소속 일식당들에게도 앞으로 관련 소송을 제기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이후 미주한인일식업협회는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하지 않았고 유명무실 해졌다.

많은 일식당들을 운영하는 한인들은 의외로 서로 너무나 잘 안다. 샌디에고, 온타리오, 애나하임 힐스, 랜초 쿠카몽가에서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필자의 클라이언트들은 모두 샌버나디노의 한 일식당 출신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너무나 잘 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주의 한인 일식 업계는 바닥이 아주 좁다. 그리고 노동법, 고용법 분야에서 겪는 아픔은 거의 동일하다. 대부분 이 샐러리로 임금을 받는 스시맨들의 소송이 전체 소송의 90%에 달한다.

왜냐하면 샐러리로 받으면 타임카드가 없어도 되고 오버타임을 페이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들을 하시기 때문이 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런 노동법 정보들을 공유하면 도움이 되지만 모두 바쁘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다. 이렇게 노동법 지식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미주한인일식업협회는 노동법 소송들을 자주 제기하는 직원들의 명단 (일명 블랙리스트)을 공유하자는 불법적인 시도를 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필자가 한인사회에서 최초로 일식당 업주들을 위한 온라인 뉴스레터 '스시뉴스 LA'(Sushi News LA)를 창간한다고 고객들에게 알리니까 모두 찬성했다. 7월중으로 런칭할 이 온라인 뉴스레터에는 고용 주들을 위한 노동법 칼럼, 한인 운영 일식당 관련 뉴스와 소개, 일식당 매매 리스팅, 일식당 용품 등 관련 광고, 직원 구인 및 구직 광고 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갈 예정이다.

한인들이 운영하는 일식당은 일반 식당과 다른 노동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식당에 적합한 노동법 정보뿐만 아니라 업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 교환같은 사랑방 역할을 할 목적이 이 뉴스레터 런칭의 이유다.

이미 필자는 LA를 비롯, 새크라멘토와 샌디에고 등 100여개의 한인 운영 일식당 연락처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스시뉴스 LA를 이메일로 통해 배부할 계획이다. 스시뉴스 LA를 받고 싶은 한인 고용주들은 필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기 바란다.

김해원
노동법 전문 변호사

(213)387-1386
haewonkimlaw@gmail.com

황인용 심장 / 혈관 내과

Inyong Hwang,
M.D. FACC, RPVI, ABVM

www.HeartDoctorLA.com
www.황인용따뜻한심장내과.com

3130 West Olympic Blvd,
Suite #250, LA, CA. 90006

오피스: (213) 528-1111

올림픽을 압도하는 종목들

문상열
스포츠전문기자

지구촌 축제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이 7월26일 개막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은 매우 취약한 전력을 안고 참가

프랑스 파리 통산 3번째 올림픽 개최

지구촌 축제 2024년 파리 하계 올림픽이 7월26일부터 거행된다. 8월11일까지 32종목에 329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인다.

프랑스 파리는 이번까지 1900, 1924년을 포함해 총 3차례 올림픽 제전을 개최했다. 올림픽은 프랑스 출신 피에드 드 쿠베르탱으로 시작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창설한 주인공이다. 올림픽과 IOC의 공용어가 프랑스어인 배경이다.

올림픽은 도시 개최이고, 축구 월드컵은 국가다. IOC(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의 회원국은 206개국이다. FIFA(Federation International De Football Association)는 211개국이 속해 있다. 대회 기간도 FIFA 월드컵이 길다. 단일 종목에 축구의 특수성으로 날마다 경기를 벌일 수 없는 이유 때문이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은 매우 취약한 전력을 안고 떠났다. 2020 도쿄 올림픽(금6-은4-동 10=20)의 메달 획득보다 목표가 미달될 가능성이 높다. 이웃집에서 벌어졌던 도쿄 올림픽은 1984년 LA 올림픽 이후(금 6-은6-동 7=19) 최악의 성적이었다. 통상적으로 시차없는 같은 시간대의 올림픽 대회는 유리한 편이다. 2008년 베이징 대회 때 한국은 금13-은 11-동 8=32개로 역대 최고의 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파리 대회는 스포츠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 구기 종목은 거의 전멸이다. 여자 핸드볼만 출전권을 획득했다. 아시아 최강의 축구 탈락은 충격이었다. 야구는 애초부터 정식 종목에서 제외돼 있다. 야구가 인기없는 유럽 개최국은 늘 정식 종목에서 제외한다. 미국, 아시아권 국가들이 개최할 때 소프트볼과 종식 종목으로 채택된다. 거꾸로 해석하면 야구는 글로벌 종목으로 미흡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구기 종목은 같은 메달이라도 팀 스포츠인 터라 감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대회 9연패 기록 이어가

올림픽 종목은 국가 및 대륙별로 특화돼 있다. 중국은 다이빙, 체조, 탁구 등에서 독보적이다. 자메이카는 단거리에서 미국을 능가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의 단거리 최대 라이벌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를 배출한 자메이카다. 아프리카 케냐와 이티오피아는 중장거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최근들어 이들 국가들의 기량은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경제가 낙후한 이들 국가에서는 '스포츠가 돈이 된다'는 것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스포츠 마켓이 커지고 해외유학을 통한 선진 기술 습득으로 지존의 대열에 올라섰다. 이제 마라톤에서 케냐와 이디오피아를 제칠 수 있는 국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대한민국도 압도하는 종목이 있다. 바로 양궁이다. 여자 단체전은 올림픽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988년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2020도쿄 올림픽까지 대회 9연패다. 여자 양궁 단체처럼 9연패를 이룬 게 중국의 탁구다. 여자 개인전을 9연패했다. 탁구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복식은 정식 종목 채택이 현 야구처럼 꾸준하지 않았다.

구기 종목에서 한국 양궁, 중국 탁구같이 압도적인 게 미국의 농구다. 농구는 캐나다-아메리칸 제임스 네이스미스가 매사추세츠의 스프링필드에서 발명했다. 농구 명예의 전당(Hall of Fame)이 이곳에 있다. 농구는 미국의 자존심이다. 잉글랜드가 축구 종주국이면서 월드컵을 단 한 차례(1966년 잉글랜드 대회) 밖에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영국은 축구가 잉글랜드, 스콧틀랜드, 웨일스, 노던 아일랜드 등 4개 협회로 나뉘어져 최강팀을 만드는 게 역부족이다. 잉글랜드 대표팀이 다른 유럽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여기에 있다.

농구는 남자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여자는 1976년 몬트리올 대회에서 각각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미국은 남여 모두 한 차례도 메달을 놓친 적이 없다. 1980년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모스크바 대회 불참만이 예외다. 카터 대통령의 실정 가운데 하나가 정치와 스포츠를 분리하지 않고 모스크 올림픽 불참을 선언한 점이다. 뒤이은 1984년 LA 올림픽도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불참으로 반쪽 올림픽으로 전락했다.

농구는 미국의 자존심

미국의 남자 농구는 딱 3차례 금메달을 놓쳤다. 1972년 뮨헨, 1988년 서울,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다. 뮨헨 대회는 결승전에서 심판의 타임을 석연치않게 작동해 미국은 50-51로 소련에 졌다. 이 때까지 대회 7연패였다. 미국은 이에 불복하고 시상대에 참가하지 않았고, 메달을 받지 않았다. 순수 기량으로 패한 게 1988년 서울과 2004년 아테네 대회다.

서울 대회는 소련과 유고슬라비아에 완패했다. 1988년은 올림픽 사상 미국이 스스로 인정한 첫 노 금메달이다. 자존심을 구긴 미국은 올림픽에 NBA 프로팀이 출전하겠다며 드림팀을 구성했다. IOC 입장에서는 흥행 최고 카드 미국이 프로, 아마추어를 합한 드림팀을 구성한다고 하더이상 참가에 의의를 두고 아마추어리즘으로 출전하는 국가 대회가 아니다.

그러나 2004년 아테네 대회는 프로가 출전한 드림팀은 속빈 강정이었다. 이미 1992년 바르셀로나, 1996년 애틀랜타, 2000년 시드니 대회 연속 금메달로 기고만장한 드림팀은 베스트로 짜여지지 않았다. 결국 준결승에서 아르헨티나에 패해 동메달에 그쳤다.

미국 여자 대표팀은 1996년부터 2020 도쿄 대회까지 7연패 행진중이다. 파리 대회도 WNBA 최고 스타들로 구성돼 금메달이 유력하다. 남자는 베이징 대회를 시작으로 다시 4연패다. 최근의 올림픽 농구는 미국이 금메달을 확신할 수 없다. NBA에 밀워키 벅스 야니스 아테토큰보(그리스), 댈러스 메버릭스 루카 돈치치(슬로베니아), 덴버 너기츠 니콜라 요기치(세르비아) 등 슈퍼스타들이 즐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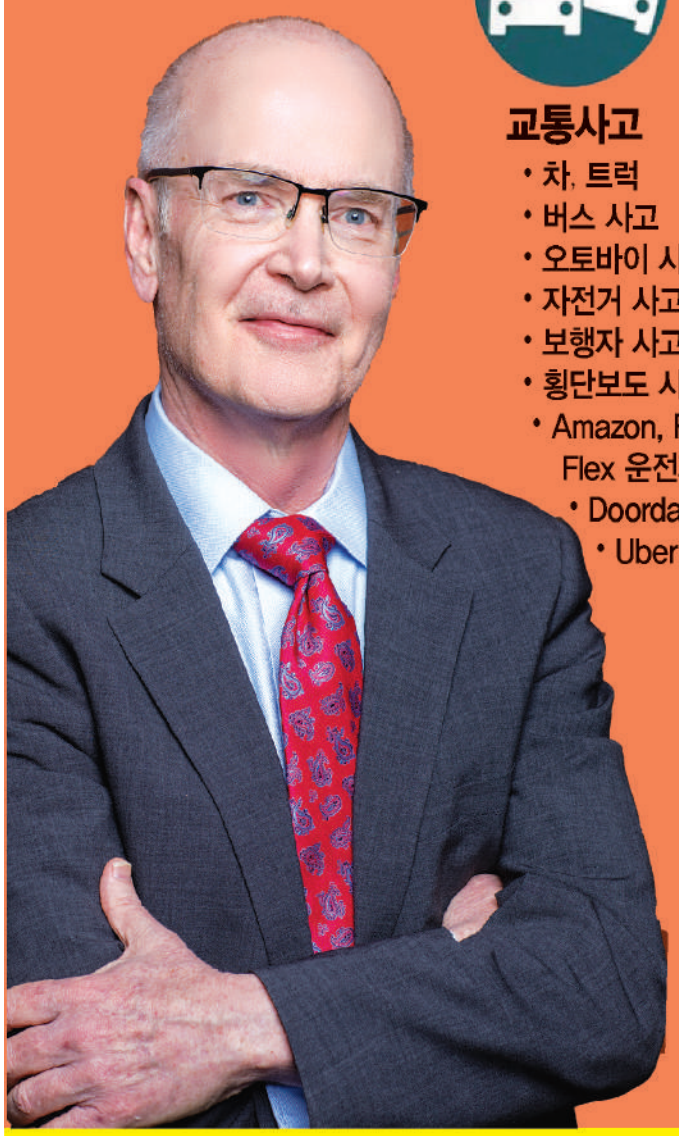
미국 대표팀도 최정예로 맞서야 금메달이 가능하다. 르브론 제임스, 스테펀 커리, 케빈 두란트, 콰와이 레너드, 앤서니 데이비스, 엔서니 에드워즈, 타이리스 핼리버튼, 데빈 부커, 조엘 엠비디, 뱀 아데바이요, 드루 할러데이, 제이슨 테이텀 등 NBA 스타 12명이 출전한다.

moonsytexas@hotmail.com

교통사고 및 개인 상해

총 20억 달러 승소

개인상해 교통사고 전문 로펌 CZ Law.



교통사고
- 차, 트럭
- 버스 사고
- 오토바이 사고
- 자전거 사고
- 보행자 사고
- 횡단보도 사고
- Amazon, FedEx 와 Flex 운전자 사고
- Doordash & Grubhub 사고
- Uber, Lyft 사고

심각부상
- 뇌 손상
- 척추 부상
- 부당한 사망

낙상사고
-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
- 가게 사고
- 아파트 사고
- 보행길 사고
- 헬스장 사고
- 뒷마당 사고
- 익사 사고

폭행
- 경찰에 의한 폭행
- 유명인물에 의한 폭행
- 경비에 의한 폭행
- 파티에서 일어난 폭행
- 개에 물린 사고

기타개인상해사건
- 소유부지법적책임
- 생산물 책임
- 의료사고
- 분만/출산 손상
- 뇌성마비
- 수술오류
- 투약과오

2000여명의 직원과
한국인 부인, 한국인직원들이
작은사고부터 대형사고까지
친절히 상담해 드리며
현재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중인 케이스도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브라이언 타필라

상담 문의 **213·468·1000**

SCAN ME

브라이언 타필라 & CZ Law 그룹

폴 주커맨

www.cz.law 3600 Wilshire Blvd., Suite 1108, L.A., CA 90010

일상이 화보

배우 김지원이 명품 패션 브랜드 부티크 오픈 기념 행사 참석 차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대만으로 출국하고 있다.

2024 파리하계올림픽

2024 파리하계올림픽 미디어데이가 열린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공개훈련하고 있다.

믿고 보는 배우들

배우 서이숙, 정지훈, 김하늘, 기은세, 정겨운이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화인가 스캔들'(극본 최윤정/연출 박홍균)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영웅을 기리며...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노년의 참배객이 고개 숙여 참배하고 있다.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전문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 합니다
이민법에 관한 모든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비자신청, 변경 및 연장

- 투자비자 (E-2)
- 취업비자 (H-1B)
- 학생비자 (F-1)
- 종교인비자 (R-1)
- 주재원비자 (L)
- 교환학생 및 비전문직종사자 (J-1)
- 특수기능인비자 (O-1)
- 예술계 종사자 (P-1)
- 재입국 허가서
- 그 외 모든 비자

영주권신청

- 투자이민
  - 이민국 지정 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투자
  - 사업운영을 통한 직접투자
-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지사간부
- 석사학위자 및 5년 이상 경력 소유자
- 전문직, 숙련직 및 비숙련직
- 종교이민

시민권신청

- 시민권신청 부적격성 판단

이경희 변호사 ***Kyung Hee Lee***

서울대학교 졸업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법학박사)
Immigration Law Associates, PC
Legal Department of Centro Romero (Intern & Externship)
Asian Human Services
미국 이민법 변호사 협회 (AILA) 회원
논문 : Human Rights Abuse in China
A Comparative Study of Human Rights and Economic Development in South Korea and Taiwan
Diversity-based Affirmative Action under International Law 등

LA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os Angeles, CA 90010
(Equitable Building)
Tel:(213) 385-4646 (imin)
Fax:(213) 385-4040

Irvine Office
20 Corporate Park, Suite 330
Irvine, CA 92606
(Between Jamboree & Beckman)
Tel:(949) 551-4646 (imin)

Website:www.iminusa.net Email:imin@iminusa.net

강혜신 보도위원 진행

라디오서울

매주 금 저녁 7시방송

radioseoul1650.com
koreatimes.com
매주 금 영상 업로딩

AM 1650 RADIO SEOUL
라디오서울
radioseoul1650.com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오늘 아침 신문 그대로!

한국 TV

뉴스 • 드라마 • 예능 • 다큐 • 시사프로
YOUTUBE 인기영상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shop.koreatimes.com

인터넷 쇼핑

한국 홈쇼핑

한국에서 잘 팔리는 핫! 품목

싸게! 빨리!

한국 홈쇼핑

백만불 보험을 들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문선영 재정 전문가
- 〈문선영의 머니토크〉 유튜버
- 영화평론가A 출신의 11년 차 재정전문가
- 넘버만이 아닌 인문학으로 풀어내는 돈의 세계라는 분야의 전문가

Q. 안녕하세요 저는 오리건주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 에스더 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4년 전에 남편의 직업 때문에 미국에 오게 되었고, 현재 딸 아이가 이번 가을에 중학생이 됩니다. 지난번 남편이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어서 남편이 생명보험을 좀 알아보라고 저에게 말하길래 이곳에서 에이전트를만났고 상담을 받던 중 의아한 게있어서 유투브를 검색하다가 문선영 선생님 유투브를 보았습니다. 에이전트는 우리에게 백만불 짜리 보험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남편이 넣어야 할 보험료로 850불을 뽑아줬는데 저희 형편에 좀 망설여 집니다.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지만 저희에게 백만불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보험료 850불은 정말 무리인데 에이전트가 워낙 강하게 얘기하니 다른 것을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 조차 용기가 안나네요. 백만불에 850불 보험료가 저희 형편에 맞을까요?

A : 안녕하세요, 생명보험을 고려하시는데 과연 얼마짜리가 필요한가라는 질문과 그 금액에 맞는 프리미엄, 보험료는 얼마인가 하는 질문이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은 크게 들면 크게 들수록 당연히 좋겠지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나 건강보험을 들 때에도 커버리지를 크게 하면 크게 할 수록 좋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컴 형편이라는게 있으니까 이럴 때 정말 현명하게 그 기준을 알아보시는 것도 중요 할 겁니다. 보험금액을 정하는데에는 사실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방법은 내 인컴과 내 지출,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의무 등을 고려하는 방 법인데요, DIME Method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D는 Debt(빚)으로 지금 현재 에스더씨 집이 가지고 있는 각종 빚, 자동차 론 이라던지, 학자금 론, 크레딧카드 론 등등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I는 Income(인컴), 앞으로 몇 년간 인컴을 벌어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M은 Mortgage(모기지 집을 사셨다면 페이해야 할 남아있는 모기지 M(Mortgage) 그리고 여기에 앞으로 E는 Education(학비)로, 자녀를 키우는데 금액을 합쳐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 얼마의 프로텍션이 필요한지, 필요한 생명보험액을 추정해 볼 수 있죠. 에스더씨 가정의 빚이나 인컴, 모기지 상황이나 교육비 등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만약 에스더씨께서 10만불의 보험이라면 지금 현재 자녀를 고려해서 턱없이 부족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백만불이 절대로 필요하다, 그런데 그 에이전트가 제안한 850불은 형편상 너무 크다라고 생각한다면 다음 두가지 방법을 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생명보험의 사망시 나오는 사망보상금과 중병시 미리 받을 수 있는 리빙베네핏만 일정 기간 보장되는 텀, 기간성 생명보험을 일단 고려하시는 겁니다. 텀라이프인슈런스는 에스더 씨 네가 은퇴 전 인컴이 필요한 그 상황까지, 아이가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는 시기까지 20년, 혹은 30년 정도 커버되도록만 가입하시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훨씬 아주 많이 싼 보험료로 백만불 생명보험을 가입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20년, 3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험도 종료되고 그 이후에도 오히려 나이가 들어 내가 찾아 쓰거나, 내가 아파서 받을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한 시기에 보험이 없다는 것이 아쉽다 싶으실 때에는 둘째 평 생 보험을 가입하시는데, 보험료가 부담스러우니 처음 50만불 정도로 셋업을 하고, 이자를 받아서 그 보험혜택금이 매년 받은 이자가 붙어서 점차 늘어나는 그래서 백만불까지도 올라가는 보험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혜택금은 50 만불로 시작해서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덜 부담스럽고, 하지만 사망혜택금이 매년 증가하는 보험으로 가입하신다면 자 녀가 다 성장하고 은퇴한 후라면 그 보험을 이제 자녀나 가족을 위한게 아닌, 나를 위한 은퇴 플랜으로 전환시켜서 쓸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 될 수 있겠죠.

생명보험은 모든 가정의 재정플랜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시급한 플랜입니다. 에스더씨의 가정 상황과 미래의 계획을 잘 반영하는 플랜을 꼭 갖으시길 바라며, 상담이나 문의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626)827-9599
symoonmoneytalk@gmail.com

LA 올림픽길 송영 통큰 설렁탕 드디어 몸보신 삼계탕 개시

48시간 동안 우려낸 국물 맛을 자랑하는 올림픽길에 위치한 '송영 통큰 설렁탕' 에서 여름철 맞이 특별 보양식 메뉴인 통큰 삼계탕을 선보이고 있다.

순수한 사골 육수 국물을 베이스로 진한 국물에 푹 익힌 닭고기 육질로 맛을 내고 보양 식재료들을 듬뿍 넣은 통큰 삼계탕 판매를 시작했다.

송영 삼계탕의 가격은 요즘 물가로 믿기 어려운 특별 봉사가격인 $17.35이다.

통큰설렁탕 코리송 대표는 "송영 통큰설렁탕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번 여름은 무척 더울거 같은데 삼계탕 좀 하면 안되냐는 많은 요청을 하셨습니다. 몸을 보신해주는 건강 음식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일반 삼계탕과 다르게 푹 고아낸 닭육수에 사골 육수를 더한 그야말로 특별한 통큰삼계탕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라고 소개했다.

송대표는 덧 붙여서 소의 양고기와 쫄깃한 순대를 듬뿍 넣어 내놓는 푸짐 콤보해장국도 인기 신메뉴라고 설명했다.

엘에이 한인타운 올림픽길 한남체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통큰설렁탕은 설렁탕, 표고 우거지해장국, 북어국, 육계장, 도가니탕, 갈비탕과 최고급 육질을 자랑하는 수육을 판매하고 있다.

송대표는 몸보신 신메뉴에 많은 호응을 기대하고 있다며 연중 내내 통큰 설렁탕만의 찐 스페셜 프로모션이 있다고 덧 붙였다.

통큰 설렁탕 관계자들도 그 반응에 놀랄 만큼 인기 몰이 중인 화요일 원플러스원 (1+1) 스페셜이 식당의 시그니쳐가 되었다고 설명하며 갈비탕 또는 도가니탕을 주문하면 해장국을 FREE 로 드리는 TO GO only, 테이크아웃 스페셜이란다.

송대표는 전화로 미리 주문하고 픽업하러 오시라고 당부했다.

주 7일 오픈하며 오픈시간은 이른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다.

단체주문 환영하며 딜리버리도 가능하다.

• 주소 :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 • 전화 : **(213)277-1339**

브라이언주 융자전문인– 융자외길 34년

하드머니 7%대 이자 획기적 프로그램 선보여
꼼꼼한 파트너 헤일리홍과 팀웍이뤄 완벽한 융자업무 처리
저렴한 융자 비용으로 일주일 안에 처리 가능

융자업계에 종사해온지 34년째인 브라이언주 LEEWAY FUNDING 대표가 일반적인 주택융자 업무는 물론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하드머니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평균 시중 하드머니 이자율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인 7%대 이자율로 드리는 획기적인 낮은 이자율로 드리는 하드머니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문의 전화가 폭주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하드머니 융자는 일주일 안에 처리가 가능한 서비스이며 비용 또한 최대한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어서 급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융자 프로그램이다.

브라이언주 대표는 꼼꼼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파트너인 헤일리홍 융자전문인과 팀웍을 이뤄 고객들에게 완벽한 일 처리로 평가를 받고 있는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현재 저렴한 융자를 유지하며 집가격의 75%까지 융자가 가능한 주택 2차 융자는 30년 고장 8%대 이자율로 서비스 해드리고 있다.

30년 고정 이자율을 6.25% 부터 소개 하고 있으며 식당등 스몰비지니스 운영자들에게 업소 크레딧카드 매출이 $5만 이상 월 매출을 갖고 있으면 머천트 크레딧카드 융자도 2-3일만에 처리해 드리고 있다.

이 머천트 크레딧카드 융자 비용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 **브라이언주 대표 (213)219-9988** / brianjoo@aol.com • **헤일리홍 에이전트 (714)253-2937** / leewayfunding4@gmail.com

나음 한의원의 생로병사

무릎의 통증

고기연
원장

오늘은 우리가 걷고 움직일 때 중요한 무릎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중심은 척추이지만 무릎이 몸의 하중을 지탱하고 제대로 움직여 주질 않으면 우리는 걷지 못하고, 어디에 오르거나 내리지도 못합니다.

걷거나 서 있기 위해서는 무릎이 건강해야 합니다.

무릎은 왜 안 좋아지게 될까요?

일, 나이가 점차 들면서 연골이 닳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무릎을 갑작스럽게 비틀거나 회전시키는 동작으로 인해 인대와 연조직에 손상이 생기면서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삼, 무릎 관절의 과사용과 근력의 부족함 등으로 인해서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사, 교통사고나 넘어짐으로 인한 부상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오, 체중이 늘어나면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근육의 스트레스가 늘면서 안 좋아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일단 문제가 생기고 통증이 나타나면 걷고 앉거나 서는데 어렵게 됩니다.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예방하는 거겠지요.

미리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세와 생활습관을 좋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반다리로 앉거나 다리를 꼬는 자세는 무릎 관절에 스트레스를 주고 근육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항상 앉을 때 자세를 살펴보고 무릎을 편안하게 만드세요. 무릎이 편안하면 골반과 요추도 같이 편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무릎과 허벅지의 근육들을 꾸준하게 운동시켜 주십시오.

제가 추천 드리는 운동은 수영과 제자리 자전거 타기 입니다. 무릎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근육을 운동시켜 주게 됩니다.

운동 전과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켜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이 많이 약해져 있을 때에는 무릎 보호대를 일시적으로 착용해 주시고, 적절한 쿠션이 들어간 신발을 착용해 주세요.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꼬리곰탕과 사골국물이 있습니다. 뼈 국은 뼈의 구성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모든 관절 통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발생하고 오래 되었거나, 연골의 마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한의학적 치료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증의 완화와 근육의 불균형 해소, 그리고 연골의 재생을 도와서 다시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영위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 657-325-4000
naumacupuncture@gmail.com

나음 한의원에서는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침치료와 추나 요법, 괄사 치료를 증상에 맞춰서 진행 합니다. 우리 몸의 기초이고 근원이 되는 몸의 중심 척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척추의 건강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NHS 건강 정보

동의보감 삼대 명약 중에 하나 공진단

스티븐 조
NHS GOLD R&D Inc
대표 뉴트리션니스트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환 이렇게 세가지는 한방의학에 있어 삼대 명약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약은 동의보감, 제중신편, 방약합편과 같은 전통 한의서에 기록된 처방이다.

공진단은 녹용, 사향, 당귀, 산수유 그리고 산삼을 정해진 비율로 섞어 자연적으로 채취된 꿀의 원액으로 단을 만들어 일정기간 숙성을 시킨다음 순금으로 싼 복약이다. 귀한 약제들이 들어간 것으로 임금 또는 고위 관료들이 정무에 시달려 미약해진 심신을 보강하고 기운을 되찾는 원기 회복 보약으로 처방되었다.

공진단에 사용되는 녹용은 공진단의 원조인 몽고족의 전통 제조 방법을 사용해야 그 효능을 제대로 얻을 수 있는데 그 효력은 뼈와 관절의 근육에 영양분을 보충하여 힘이 소생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녹용 제조 방법이 까다로와 옛부터 아주 귀한 약제로 취급되었다. 사향은 온 몸의 기와 혈을 열어주는 효능을 있고 당귀는 혈액 생성량을 높이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 그리고 산수유는 혈액 순환과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는 효능이 있어 남성 성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효능이 있다.

이들 약제를 가공을 하지 않은 천연꿀에 버무려 단으로 만드는데 그 크기는 총포알의 크기라고 하는데 이는 달걀 노른자 보다 약간 작은 사이즈를 말하며 무게는 대략 7-8그램이 된다. 복용은 기력의 정도에 따라 반개에서 한개를 조석으로 공복에 복용할 수 있으나 주로 아침 공복이 일반적이다. 복용할때는 움직임을 멈추고 편한 자세로 앉아서 입의 열기가 밖으로 빠지지 않게 다문 채로 씹어서 공진단이 온 몸에 퍼지는 것을 느끼면서 복용한다.

특히 산삼이 들어간 공진단을 산삼공진단이라고 하는데 사고나 급작스런 체력 소모로 심신이 약해진 사람, 집중력과 지구력이 필요한 학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이 예민한 직장인, 기력이 소진된 노약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이 복용할 수 있다.

전통 방식으로 제조된 공진단은 근력을 높이면서 모세혈관의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재구성하고 각종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게 하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되살아나고 머리가 맑아짐으로 모든 일을 의욕적으로 하는 정신 부양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단 한개의 공진단으로도 효능을 발휘하여 기력이 회복된다는 것이 명약으로 불려지는 이유이다.

산삼공진단! 선조들의 지혜와 놀라운 의술이 집약된 명약으로 83세의 장수를 누렸던 제21대 조선의 왕 영조대왕이 경옥고와 함께 즐겨 복용하였다고 한다.

▲ 213-905-0439
iswjo@yahoo.com

보다 젊고 건강한 라이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염원일 것이다. 올바른 건강 뉴트리션 상식으로 속시원한 해답을 드리는 뉴트리션니스트 스티븐조와 함께 변화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통증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침과 부항요법, 추나요법, 괄사요법, 골타요법, 근육, 관절 교정으로 구조적 이상을 제거해서 만성통증 질환과 내과질환, 신경계 질환까지 치료합니다.

진료 :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경력 : 중국 북경 중의약 대학 졸업
중국 북경 동직문 병원 인턴, 레지던트 근무.

보험 : 각종보험 취급.

나음 한의원 (657)325-4000
6281 Beach Blvd. #117 Buena Park CA 90621

에릭 나 투자스케치

성공하는 투자의 첫 시작 - 대체 투자(1)

에릭 나
EMP 파이낸셜 대표

부동산 투자는 일반적으로 싱글 패밀리 하우스나 상업용 건물, 또는 아파트를 매입해서 렌트를 주고 훗날에 가격상승이 있으면 매물을 매매하고 차익을 남기는 것이 전형적인 부동산 투자로 우리는 알고 있다.

또 조금 더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오래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동산 또는 싱글 하우스를 구매해서 내부에 구조를 바꾸고 새집처럼 리모델링을 하고 높은 가격으로 되 파는 것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부동산투자가 투자자에게 가장 많은 이득을 가져오는지 궁금하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다. 부동산을 투자하는 지역, 종류, 방법, 세금, 또는 시간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새로 건설중인 아파트, 오피스를 아파트나 콘도로 리모델링 하는 것들도 정말 많이 볼 수 있다. 아무래도 현재 오피스의 공실율이 늘어나고 아파트는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많은 건물주들이 발 빠르게 전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곳 저곳에서 호텔도 건설되고 규모가 거대한 쇼핑센터들도 들어서는 것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돈 많이 벌겠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저런 것을 투자할까, 아님 어떤 부동산 개발자 들이 할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저러한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점이 들기도 한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있다"이다. 그것이 바로 대체 투자인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에 일반 우리 같은 투자자들도 소규모의 투자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게 시큐어리티 상품으로 나와 있다. 현재 진행중인 예를 들어 보자. Inland라는 대규모 부동산 회사에서 팬데믹때 문을 닫은 대형 상업용 건 물(K-Mart)를 아주 낮은 가격에 구입을 해서 마트 대신 그 건물안에 창고 스토리지로 바꾸는 프로젝트이다. 스토리지 창고는 지난 20년에 미국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가격이 상승한 부동산의 하나이다. 프로젝트 기간은 3년에서 4년으로 공사가 벌써 시작되었다. 스토리지 창고로 전환하고 창고에 80%-90% 정도 렌트가 차면 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현재 Inland에서 IRR(내부 수익률)을 매년 15%-18%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나는 이러한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미국에서 공신력 있은 대형 부동산들이 개발을 하고 남는 이익을 내 투자 지분에 따라서 받으면 되는 것이다. 다른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295세대에 아파트를 새로 건설중인 것도 있다. 이것은 IRR(내부 수익률)을 매면 16%에서 19%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부동산 프로젝트는 금융감독 위원회에 관리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여러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은 낫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전혀 엄두를 못 내었던 이러한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에 공신력이 있는 대형 부동산에서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소규모로 투자를 해서 좋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면 이 또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방법 중에 한 옵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MP WEALTH MANAGEMENT, LLC

▲ 213-215-5473 erah@empfn.com

차 변호사의 교통사고 칼럼

속도보다 중요한 방향

▶문 : 비보호좌회전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누구의 잘못인가요?

▶답 :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과실 비율은 100:0, 50:50, 0:100 등 대부분 3가지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과실 여부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과실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방향'입니다. 흔히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고 하듯이, 교통사고 과실 여부에 있어 중요한 것 또한 속도가 아닌 방향입니다. 간혹 한인들 가운데 상대 차량이 너무 빠른 속도로 왔다며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교통사고에서 과실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속도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첫째, **비보호좌회전에서 사고 난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부분 좌회전하던 차에 과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좌회전은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비보호'), 직진하는 차량에 우선권(right of way)이 있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이 거의 무조건 양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억울한 경우가 LA 한인타운의 올림픽 같은 곳에서 러시아워 때 발생하는 비보호좌회전 교통사고입니다. 중앙선을 기준으로 첫 두 개 차선의 차량이 양보해서 좌회전했는데, 마지막 3차선의 차가 양보하지 않고 급하게 지나다가 사고 발생한 경우에도 잘못은 여전히 좌회전하던 차에 있습니다. 먼저 가라고 양보해 준 두 사람을 원망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파란불이나 노란불이 아닌 빨간불로 바뀐 직후에 좌회전할 때인데, 증인이나 블랙박스처럼 당시의 상황을 입증해 줄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알렉스 차
Personal Inju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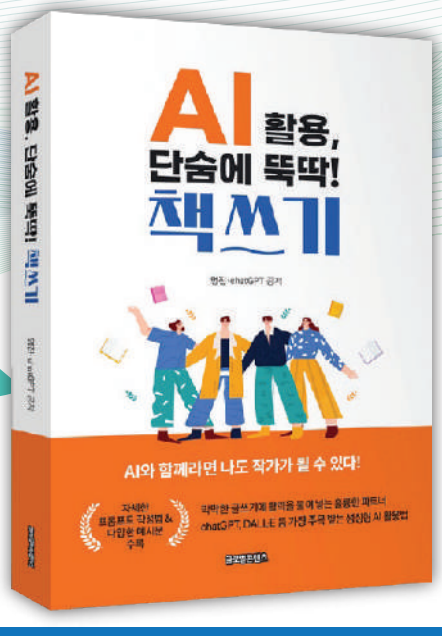
둘째, **4거리이지만, 2개 방향에 스톱 사인이 있는 "Two Way Stop"의 경우**입니다. 이때도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스톱 사인에서 막 진입한 차량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로 우리 손님 가운데 LA 남쪽에서 웨스턴 애버뉴 남쪽으로 직진하던 중 스톱 사인이 있는 106가에서 진입한 차를 친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직진하던 차량이 진입하던 차의 옆을 치었지만, 과실은 분명 진입하던 차에 있습니다.

끝으로, **앞차의 뒤를 받는 추돌사고(Rear-end collision)**입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과실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뒤차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면 앞차가 후진할 때, 앞차가 부주의하게 차선을 변경했을 때, 앞차의 제동등(brake lamp)에 결함에 있을 때 등으로 이때는 앞차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구의 과실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객관적인 규칙(rule)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규칙을 잘 지키며 안전운행하여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213-351-3513 www.alexchalaw.com

명진(이성숙) 작가와 함께하는
미주 Digital 창작 교실
1기 수강안내



AI와 함께라면 나도 작가가 될 수 있다!

AI를 활용하여 실용문 쓰기
문학적 글쓰기, 글감포착하기, 문체와 스타일 개발, 글의 구조설계, 다양한 시제 사용, 좋은 문장 쓰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이름 석자와 당신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1기 공동 문집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 수강료 : $450(3개월)
» 개강 : 2024년 9월 3일(화)
» 기간 : 2024년 9월~2025년 2월(6개월)
» 등록마감 : 2024년 8월 17일(토)
» 수업방법 : Zoom 격주 월2회(화요일)
(PST 8:00PM~9:30PM)
※수강인원이 미달되면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213-820-3850(김재권) / 010-9025-0518(명진) | lifemed333@gmail.com / essaycien@gmail.com
562-217-7080(Stephen Son) : f2kstephen@hotmail.com

무공해 청정지역 강원도 먹거리만을 고집하는

㈜강원수출 Gangwon Export Co., Ltd.

감자바우

강원도 GANGWON PROVINCE

7월 전품목

40~70% 파격세일

김치류 제외

속초식 명태회 비빔냉면

780g

~~$12.40~~ → $6.20

김치 왕교자

490g

~~$7~~ → $3

양념 소불고기

1.5 Lbs

~~$19.88~~ → $9.94

바삭 현미 누룽지

330g

~~$9.90~~ → $4.95

생더덕 무침

400g

~~$20.50~~ → $10.25

찹쌀 약과

350g/1pk

~~$6.80~~ → $3.40

삶은 뚝딱 시래기

300g

~~$4.80~~ → $2.40

메밀 국수

850g

~~$13.10~~ → $6.55

멸치 육수 한알

180g

~~$20.50~~ → $10.25

이외에도 다양한 품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량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두르세요.

EBT 손님 환영합니다.

www.gamjabow.com
GAMJABOW
GANGWON-DO SPECIAL GOODS

문의. (323)272-4354
1032 Crenshaw Blvd. Ste C, LA, CA 90019

LG 에어컨
Life's Good

에어컨 세계판매 1등!

Lic#. 1021077

대한민국 대표 에어컨

에어컨 구입할 때, 겨울철 난방까지 생각하세요!

시시사철 상쾌한 바람... 더위에도 추위에도

300만불 보험 가입 전문업체

조용한 에어컨

냉·난방 겸용 에어컨 / 공기정화 / 제습기능

4계절 냉·난방!

- 냉방. 난방. 제습 한번에 ok.
- 초절전형 전기료 SAVING (Energy Star)
- 쾌적하게 숙면 할 수 있는 조용한 에어컨

TAX CREDIT Eligible Energy 효율이 높은 모델에 한하여 Federal Tax Credit 신청가능하니 회계사와 협의 바랍니다.

단 하나뿐인!!

스텐드형 에어컨!

상업용, 가정용

Covers 1500sq.ft.
23 x 71 x 17"

FLOOR STANDING

LG Inverter

LF427HV

Single Zone Floor Standing

42,000 BTU Cooling & heating

SINGLE-Wall Mount

LG Inverter

LS090HXV, LS120HXV

Single Zone Wall-Mount

9,000~12,000 BTU Cooling & heating

LS180HEV, LS240HEV1

Mega Single Zone Wall-Mount

18,000~24,000 BTU Cooling & heating

LS307HV3, LS360HV3

Single Zone Wall-Mount

30,000~36,000 BTU Cooling & heating

SINGLE-Art Cool Mirror

LG Inverter

LA090HSV~LA240HSV

Single Zone Wall-Mount

9,000~24,000 BTU Cooling & heating

SINGLE-Art Cool Gallery

LG Inverter

LA090HVP, LA120HVP

Single Zone Wall-Mount

9,000~12,000 BTU Cooling & heating

커머셜 냉장고 냉동고

Multi-Wall Mount

LG Inverter

Multi Zone Wall Mount

18,000~54,000 BTU Cooling & heating

SINGLE-Ceiling Cassette

LG Inverter

SINGLE Ceiling Cassette

18,000~42,000 BTU Cooling & heating

LG 에어컨 공식 대리점 크레딧카드 받습니다

정식라이센스 업체 (LIC# 1021077)

SK쿨링 213.364.4000

845 S. Grand View St.
L.A., CA 90057

김준철

- 월간 문화예술전문지
〈쿨투라〉 미주지사장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 역임
- 〈시대문학〉 시부문 신인상,
〈쿨투라〉 미술평론 신인상 수상
쿨투라 해외문화상 수상,
비영리문화예술재단 〈나무달〉 대표
- 시집 〈꽃의 깃털은 눈이 부시다〉
〈바람은 새의 기억을 읽는다〉
〈슬픔의 모서리는 뭉뚝하다〉
- 전자 시집 〈달고 쓰고 맵고 짠〉

김준철의 한 문장의 생각 코너 소개

영화, 시, 소설, 드라마, 신문, 잡지 등등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문장들 속에서 한 문장을 꺼내서 조금 더 생각을 넓히고 깊이를 더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너는 더 소중해. 그러니 더이상 자기를 고문하지 마라.”

아주 세밀한 대사들의 의미들이 문장 안으로 파고들어 더욱 단련시킬 것이라는 필자의 믿음을 무너지게 해

한야 야나기하라 작가의 ‘리틀라이프’ 소설에 나오는 대사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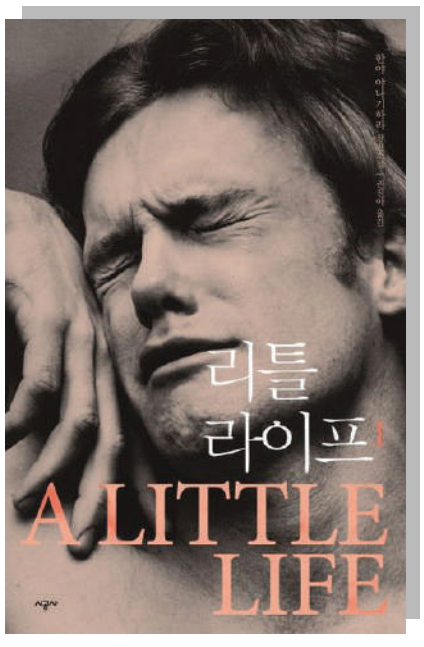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2권으로 출간되었고 어마어마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2권을 합하여 천 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지만 책을 넘기는 속도감은 아쉬움을 안겨줄 정도였다.

지난 2015년 출간되어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많은 언론사에서 ‘올해의 책’에 꼽혔고 맨부커상과 전미도서상 최종 후보에도 올랐던 소설이다.

특별히 작가인 한야 야나기하라는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아버지는 일본계 미국인, 어머니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이미 오래전에 화제가 되었고 또 그만큼의 인정을 받았던 작품이 근래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며 오열하는 영상 올리기가 유행하면서 미국을 포함 한국에서까지 베스트셀러에 등극하게 되었다.

아주 기초적인 시작의 줄거리를 보자면 몸이 조금 불편한 주드라는 한 남자는 3명의 근사한 친구들이 있다. 너무나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걱정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긴 시간을 지나오며 알게 되는 비밀과 반전 그리고 충격은 많은 이들에게 인생의 한 권이 되기도 하고 절대 읽지 말아야 하는 책이라는 별명으로 기억에 남게 만들기도 한다.



“내가 좋은 친구여서야. 난 친구들을 사랑하고 걱정해. 그리고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

디즈니 영화나 동화 같은데 나올법한 대사인데 이 대사만으로도 진정한 친구와 우정이란 뭘까?

난 주변 친구들에게 어떤 존재일까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기도 하다.

아주 세밀한 세팅과 세세한 대사들의 의미들은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더욱 읽는 사람이 무장해제를 하고 문장 안으로 파고들게 만든다.

이 책을 읽어가며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벌어지는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나 사건들이나 자신을 더욱 단련시킬 것이라는 오랜 세월 가지고 있던 필자의 믿음을 맥없이 무너지게 했다는 것이다.

그런 고통이나 기억은 언젠가 모두 끝났다고 안심하며 멀쩡하게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고 모든 것이 평범하게 보일 때도 숨을 죽이고 우리의 삶 한구석에서 우리 노려보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런 느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력감이 필자도 오열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자신의 이름 혹은 불리고 있는 호칭으로 굳건히 이 작은 삶을 영위한다고 그리 썩 나쁜 것은 아닌 것 같다. 정말 무엇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한번 읽어보시길 권한다.

treeandmoon2022@gmail.com

녹색 기억

김준철

기억은 숨을 쉬며
그 밤, 살아났다

게으른 의식의 불감증에 걸린 듯
더디게 흐르는 시간 속, 어둠의 발톱은
기억이 가진 흉터를 깊숙이 자르며
얇은 벼루 위, 먹의
측량 되어지지 않는 깊이에 잠겨 허우적대는
절름발이 행인을 닮아갔다

하나의 동굴로부터
번식되어져 나오는
미결 처리된 사람들은
자꾸만 꺼져 내리는
어깨 추켜세우며
아직 채 밝지 않은 하늘에
손 내밀어 생채기를 냈다

온전한 어둠의 숨을 내쉴 수 없는,
한쪽 기억이 그늘져 버린 절름발이 밤으로,
먹을 갈수록 엷어지는 어둠으로

그 엷은 어둠의
녹색 기억으로,

내가 먹을 갈 때면
흉터는 기억을 그린다

예전에 한참 불면증으로 힘들 때, 새벽이면 늘 먹을 갈았다. 벼루에 적당량을 물을 담고 한참 먹을 갈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방안 가득 먹향이 배어 나오는 것이 참 좋았다. 그때, 그 먹빛 속에서 느낀 불완전했던 젊은 날의 초상과 불안한 삶 속의 상처들의 아득함을 적어냈던 것 같다.

그 얇은 벼루 속, 깊이를 측량할 수 없던 그 어떤 밤보다 더 짙은 밤의 색.

종종 그 밤의 먹향이 그립다.

송영 돌솥 설렁탕

송영 신메뉴 출시!

여름보양식 **삼계탕 개시**
$17.35 +Tax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의 맛!

설렁탕 한그릇으로
하루를 시작 하세요!

늘 푸른~ **푸짐 설렁탕**
도가니+섞어
$19.35 + Tax

화요일
1+1 스페셜
TOGO ONLY

[갈비탕 or 도가니탕 주문시 해장국 FREE]

$19.35 + Tax

- 표고 우거지 해장국
- 통큰 설렁탕 • 해장국
- 섞어 설렁탕 • 북어국
- 쇠고기 수육 • 육개장
- 갈비탕 • 도가니탕

다슬기 된장 판매합니다.

늘 통큰~ **푸짐 콤보해장국**
양+순대
$19.35 + Tax

213.277.1339

Uber Eats 딜리버리 합니다.

주 7일 오픈합니다
7:00AM ~ 10:00PM

단체주문 환영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 [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두 홀 연속 홀인원…US 시니어 오픈서 '역대급' 진기록

백투백 홀인원을 작성한 뒤 홀 커터에 사인하는 프랭크 벤셀 주니어. AP연합뉴스

56세 프랭크 벤셀 주니어 4번 이어 5번 홀도 에이스

US 시니어 오픈 골프 대회에 출전한 선수가 2개 홀 연속 홀인원이라는 진기록을 작성했다.

프랭크 벤셀 주니어(56)는 29일(한국 시간)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4번 홀(파3)과 5번 홀(파3)에서 내리 티샷한 볼이 홀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행운이 겹쳤다.

어떤 투어 공식 대회에서도 한 선수가 2개 홀 연속 홀인원을 기록한 적은 지금껏 없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는 한 선수가 하루에 홀인원 두 번을 한 사례가 세 차례 있지만 2개 홀 연속은 아니었다.

대회 코스에 파3 홀이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뉴포트 컨트리클럽은 4개의 파 3홀 가운데 2개를 4·5번 홀에 배치했다.

대회를 주관하는 미국골프협회(USGA)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미국에서는 3500라운드마다 겨우 한 번꼴로 홀인원이 나온다. 미국 홀인원 기록집에 홀인원 확률은 12만분의 1이며 한 차례 라운드에서 홀인원을 2번 할 확률은 6700만분의 1로 추정된다. 2개 홀 연속 홀인원 확률은 계산된 게 없다.

벤셀 주니어는 "첫 번째 홀인원 때는 언더파를 치겠다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홀인원을 하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생애 13번째와 14번째 홀인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그는 홀인원으로만 4타를 줄이고도 4오버파 74타를 적어낸 끝에 2라운드 합계 9오버파 149타로 컷을 통과하지 못했다.

벤셀 주니어는 PGA투어 에서 1998년에 6차례 출전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2021년 PGA 챔피언십에도 나간 적이 있다. 50세 이상이 출전하는 PGA 투어 챔피언스에는 지금까지 3번밖에 출전하지 못했다.

여름의 낭만은 스크린골프로 완성된다

장마 피해 나만의 감성으로 골프 즐기기
여름 메뉴·인테리어로 골퍼들 유혹
미슐랭 스테이크로 무장한 이색 공간도

스크린골프의 극성수기는 언제일까. 너무 더워서, 너무 추워서 필드에선 골프를 못 치는 여름과 겨울일 것이다. 요즘은 성수기가 따로 없다고 한다. 워낙 인기가 정착돼 계절 요인과 상관없이 올 사람은 온다는 것. 그래도 여름 골프의 낭만과 가장 어울리는 건 역시 스크린골프다. 비 오는 여름 시원한 방바닥에 누워 만화책 보는 게 최고라는 사람이 많듯 골퍼들은 스크린에서 나만의 '갬성(감성)' 가득한 여름을 즐긴다.

샷 한 번에 파인애플 셔벗 한 스푼

최신 기기 설치와 깔끔한 인테리어로 서울 서부권 '스골족'들의 성지로 떠오른 프렌즈스크린 염창점. 이곳에서 스윙 플레이트가 물결치듯 움직이는 새로운 시스템인 카카오VX 퀀텀으로 18홀 내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신선 라운드'를 즐겼다.

PC방이든 만화방이든 밥이 맛있어야 성공한다는 요즘, 스크린골프 시장에서도 맛집 경쟁이 치열하다. 방 넓고 골프채 좋은 매장을 찾는 골퍼만큼이나 음식 맛있는 매장을 먼저 찾는 골퍼도 많다고 한다. 과거 방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요새는 자체 조리하는 매장이 늘어나는 추세다. 심지어 100여 개 메뉴를 갖춘 스크린골프 그늘집 업체도 여럿 생겨났다.

떡볶이, 닭꼬치 등 요깃거리와 함께 계절에 맞게 과일 에이드와 파인애플 셔벗을 주문했다. 통파인애플을 자르고 속을 비워 그 안을 셔벗으로 채운 것. 한 스푼 뜨는 순간 웬만한 휴양지가 부럽지 않다.

서핑 콘셉트 즐기며 그물 향해 굿샷

파도를 타면서 골프를 할 순 없지만 서피비치에 온 기분을 내면서 골프를 즐길 순 있다. 쇼골프 도봉점에서다. 일반적인 연습장 타석 외에 골프존 스크린골프가 있는데, 바로 야외 스크린골프다. 비전 시뮬레이터의 레인지 버전으로 골프존 게임과 똑같이 플레이하되 룸에 앉아 있다가 순서가 되면 타석으로 나가서 그물을 향해 쏘는 방식이다. 보통의 스크린골프에선 느낄 수 없는 개방감에 압도된다. 볼의 궤적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면서 얼마나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니터에 나오는 선명한 골프존 화면으로 확인하면 된다.

미슐랭 스테이크와 골프·축구·야구의 만남

요즘 스크린골프장은 커피 원두에도 신경 쓴다. 전문 커피숍에서 쓰는 원두로 커피를 제공하거나 그 이상의 원두를 발굴하는 데에 노력을 쏟기도 한다. 입맛과 취향이 고객 유치의 키워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27년의 러브 스토리

창의적인 아이디어, 특별한 전략과 안목으로
27년째 클라이언트의 제품과 서비스, 철학을
고객의 언어와 감성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클라이언트를, 고객을 사랑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CPL의 러브스토리는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CPL
ADVERTISING
Est.1997

온•오프라인 광고 문의하세요

www.cplad.com email: info@cplad.com

엠마 스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과 3번째 호흡 … “그가 제 뮤즈”

3장 옴니버스 영화 ‘카인드 오브 카인드니스’ 감독 특유의 파격과 몸의 물질성 두드러져

제77회 칸국제영화제 공식기자회견에 참석한 제시 플레먼스(왼쪽부터),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엠마스톤. <칸 영화제 제공>

“그가 제 ‘뮤즈’에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과 세 번째 호흡을 맞춘 엠마 스톤의 명쾌한 정의였다. 지난 5월 칸 영화제의 ‘카인드 오브 카인드니스’ 공식 기자회견에서 “엠마는 당신의 뮤즈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엠마가 먼저 답했고 요르고스는 “그건 오래 전에 정해진 사실이다. 내가 그녀의 뮤즈”라고 부연했다.

엠마와 요르고스의 동행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엠마 스톤은 요르고스와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점심을 먹으며 당시 아이디어에 불과했던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The Favourite·2019)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영화로 만들어지기 몇 년 전이었다. ‘송곳니’(Dogtooth)를 본 상태였고 ‘더 랍스터’(The Robster)가 칸에 갔을 때였는데 그에게 마냥 끌려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엠마는 “그의 영화와는 달리 온화하고 대화하기 쉬운 사람이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 그가 창조한 캐릭터와 풀어내는 방식에 매료되었다. 사실 우리가 비슷한 취향을 가졌을 거라곤 상상도 못 했다”고 웃음지었다.

‘카인드 오브 카인드니스’(Kinds of Kindness)는 3장으로 구성된 옴니버스 영화다. 제목은 ‘친절의 종류’인데 영화는 불편함으로 무장한 친절밖에 없다. 스토리 전개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전에 나온 내용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엮여 있다. 인간의 조건과 인간 행동에 관해 탐구하며 정체성, 통제, 소속감, 자유롭고 싶은 욕망을 이야기한다. 영화 ‘가여운 것들’(Poor Things)로 2024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엠마 스톤과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 윌렘 데포가 다시 뭉쳤고 제시 플레먼스가 ‘요르고스 사단’에 새롭게 합류했다. 부하의 식사 메뉴와 섹스 여부까지 세밀하게 지배하려는 보스 레이몬드(윌렘 데포)와 복종을 거부하고 더 이상 지시를 받지 않게 되면서 자신과 현실에 대한 감각을 잃어가는 로버트(제시 플레먼스), 바다에서 실종된 줄 알았던 아내 리즈(엠마 스톤)가 되돌아왔는데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고 의문을 품는 경찰관 다니엘(제시 플레먼스), 죽은 자를 소생시키는 여성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리라는 예언을 믿고 특별한 사람을 필사적으로 찾아다니는 에밀리(엠마 스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요르고스 감독은 “시나리오 작업을 시작할 때 ‘칼리굴라’를 읽고 생각한 것이 첫 번째 영감이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자의 지배하려는 욕구에 관심이 갔다. 이내 현대 사회에서 누군가가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고, 결혼을 할 수 있는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사고가 나면 죽는지 등 다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하나의 스토리로만 구성된 장편 영화와 달리 옴니버스 영화는 첫 이야기에서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음 이야기로 가져올 수 있다. 더 복잡하지만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구조다. 3부작을 완성하는 과정에 같은 배우가 서로 다른 이야기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연기하는 아이디어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영화에서 유일한 공통분모는 세 편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인물 RMF(요르고스 스테파나코스)이다. 요르고스 감독은 RMF의 존재를 ‘미스터리’라고 표현하며 설명을 아꼈다. 크게 영화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는 듯하지만 엔딩 크레딧의 끝부분까지 지켜봐야 하는 인물이다. 1부 ‘RMF의 죽음’은 상사와 부하 사이에 존재하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흥미롭게 관찰한다. 엠마 스톤이 등장하는 부부 미스터리 2부 ‘R.M.F.가 날고 있다’는 감독 특유의 파격과 몸의 물질성이 어김없이 다뤄진다. 마지막으로 성적 순결에 집착하는 사이비 종교를 소재로 한 3부 ‘R.M.F.가 샌드위치를 먹는다’에서는 버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뒤틀린 성과 부서진 육체로 보여준다. 극장 개봉 중인 이 영화는 느릿한 전개로 인해 2시간44분이라는 긴 상영시간을 각오해야 한다.

한편, 엠마 스톤은 올 하반기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과 4번째 영화 ‘부고니아’(Bugonia) 촬영에 들어간다. 장준환 감독의 SF영화 ‘지구를 지켜라!’를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하는 작품이다. 엠마 스톤과 제시 플레먼스가 주연을 맡아 또 한번 기대를 갖게 하는 ‘요르고스 사단’ 출격이다.

<하은선 / 골든글로브협회(GGA)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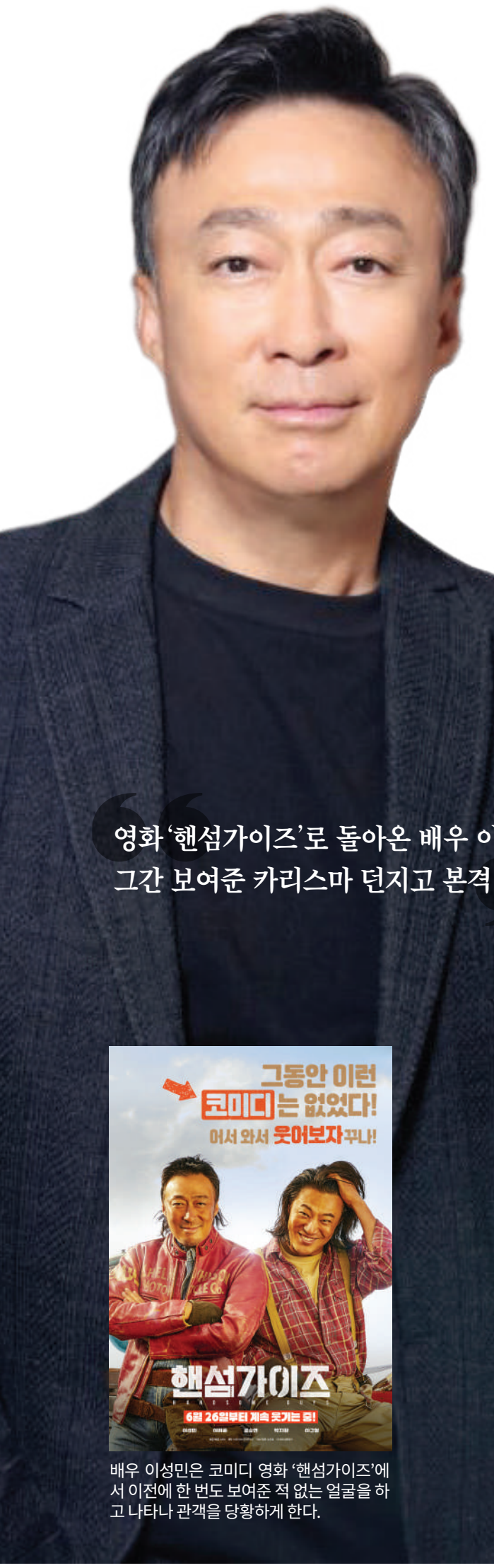
한국 영화 ‘지구를 지켜라!’의 할리우드 리메이크작 ‘부고니아’에 출연을 확정한 엠마 스톤. <서치라이트 픽처스 제공>

3장으로 구성된 옴니버스 영화 ‘카인드 오브 카인드니스’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에피소드의 주연으로 열연한 엠마 스톤. <서치라이트 픽처스 제공>

'핸섬가이즈' 히어로 **이성민** 유쾌한 인터뷰

"근엄한 회장님 아니라 웃기는 살인마 되고 싶다"

정체불명 목수 '재필' 역…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얼굴로 터프+코믹 연기
꽁지 머리에 허연 배 드러낸 채 열연…"미친 거 아냐 소리 저절로 나왔다"



영화 '핸섬가이즈'로 돌아온 배우 이성민
그간 보여준 카리스마 던지고 본격 코미디

배우 이성민은 코미디 영화 '핸섬가이즈'에서 이전에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얼굴을 하고 나타나 관객을 당황하게 한다.

"회장님 소리 그만 듣고 싶었어요."

배우 이성민(56)이 말한 회장님은 '재벌집 막내아들'(2022)의 진양철 회장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말엔 그가 최근에 연기한 캐릭터의 무게감이 담겨 있는 것 같다. '남산의 부장들'(2020)과 '형사록' 시리즈(2022·2023) 그리고 '서울의 봄'(2023) 등에서 이성민은 진중하고 묵직하고 심각했다. 물론 이 작품들에서 보여준 모습들 덕분에 그는 연기력을 상찬하는 온갖 수식어를 얻었다. 하지만 이성민은 연기하는 사람으로서 관객에게 매번 색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그 얼굴로 다시 사랑 받고 싶었다. 그래서 택한 게 '핸섬가이즈'(6월26일 공개)였다.

"이미지에 관한 고민은 전혀 없어요. 다만 대중에게 특정 캐릭터가 강하게 각인된다는 건 그 캐릭터가 사랑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또 다른 캐릭터로도 사랑 받고 싶은 거죠. 그게 이 영화였으면 하고, 이 작품에서 연기한 '재필'이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 바람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성민은 코미디 영화 '핸섬가이즈'에서 이전에 그가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얼굴을 하고 나타나 관객을 당황하게 한다. "우린 모두 미생이야"라고 말하던 오 과장의 인간미 넘치던 얼굴도, "임자 옆엔 내가 있잖아"라고 말하던 박통의 겁박하는 듯한 얼굴도, "밥알이 몇 개고?"라고 말하던 진 회장의 카리스마 가득한 얼굴도 없다. 시커멓게 탄 얼굴에 꽁지 머리, 우스꽝스러운 옷을 걸쳐 입고 얼굴을 구기며 "나는 터프한 미남 스타일"이라고 흰소리를 하는 정체불명의 남자만 있다. 경찰 불심검문을 당해 허연 배를 드러내고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이지 모든 걸 내려놓은 연기라는 게 실감이 된다…"

"당연히 지금껏 해온 것과 다른 결의 연기를 해보고 싶은 충동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모든 걸 내던지는 듯한 인물을 만나면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서 좋거든요. 배우들은 다들 이런 자유로움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요. 이 영화 예고편 나가고 나서 동료 배우들에게 연락이 많이 왔어요. 나도 이런 영화 하고 싶다고요."

재필과 상구는 착하고 순수하고 열정 있는 목수다. 열심히 일하고 착실히 돈을 모아 시골 마을에 집을 하나 사 이사 오게 된다. 문제는 이들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게 생겼다는 것. '핸섬가이즈'는 이 두 남자가 근처에 놀러 온 젊은이들과 묘한 인연으로 엮이게 되고 이들의 죽음에 우연찮게 얽혀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이성민은 "코미디 영화이니까 웃기는 게 제일 중요했다"며 "다만 찍는 사람들끼리 웃는 게 아니라 관객까지 웃게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아마 배우들은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현장에선 분명 너무 웃겼는데 관객은 냉소를 보낼 때요. 전 그걸 알고 있었으니까 정말 다양한 버전의 연기를 했습니다. 뭐가 통할지 모르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양한 연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결정하는 건 감독의 몫이죠. 감독님이 최종 결정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몇 몇 장면은 저 스스로도 '미친 거 아냐'라고 할 정도인 걸 고르셨더라고요.(웃음)" 이성민에게 코미디 연기가 도전이었느냐고 했더니 그는 "모든 연기는 도전"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성민의 연기는 이번에도 역시나 빼어나다. 그런데 '핸섬가이즈'에서 더 볼 만한 건 이성민을 중심으로 한 배우들의 앙상블이다. 특히 상구를 연기한 이희준과 호흡은 극 중 오랜 기간 함께 일을 해온 재필과 상구처럼 탁탁 들어맞는 듯한 느낌을 준다. 실제로 두 배우는 '남산의 부장들'에서 함께 연기한 적이 있고, 앞서 영화·드라마에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전 함께 극단 생활을 하며 무대에서 합을 맞춘 적이 있다.

"저흰 서로 너무 잘 알아요. 전 그 친구가 어떻게 인물을 만들어 가는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고 있죠. 서로 선을 넘지 않고 각자 포지션을 지키면서 연기하는 것에 훈련이 잘 돼 있어서 이번에도 역시 호흡이 좋았습니다. 저희가 함께 연극할 때 웃긴 걸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좋은 앙상블이 나왔을 거예요."

두 배우의 열연과 남동협 감독의 꼼꼼한 각본 그리고 눈치 보지 않고 내지르는 연출이 더해지면서 '핸섬가이즈'는 러닝 타임 101분 간 관객을 들었다 놨다 웃기는 데 성공한다. 근래 보기 드물게 완성도가 높은 코미디 영화이고, 웃음 타율 역시 이례적으로 높은 작품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이성민은 이번 영화를 두고 "너무 마음에 든다"는 말을 수 차례 했다. 그러면서 "이 작품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영화가 한동안 제 대표작이 됐으면 해요. 회장님이 아니라 전기톱을 든 살인마로 불리고 싶습니다.(웃음) 솔직히 흥행 잘 됐으면 좋겠어요." 민망하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며 이렇게 말한 이성민은 그러면서도 다시 자신감 있게 몇 마디를 덧붙였다. "시간 순삭은 확실해요. 무조건이에요. 극장 나설 때 절대 짜증 안 나실 겁니다. 유쾌하게 나갈 수 있으실 거예요." <뉴시스>

새 드라마 2편 **제작발표회** 스케치

한채영 “예쁜 계모 역할…진짜 기대되네요”

◎배우 한채영이 처음으로 연속극에 도전한다.

한채영은 17일 KBS 2TV 일일극 ‘스캔들’ 제작발표회에서 “연속극은 처음이다. 제안을 받고 고민 됐지만, 선뜻 하겠다고 했다. 캐릭터와 극본이 스펙터클하고 얽히고 설킨 내용이 재미있어서 도전하고 싶었다”며 “‘문정인’은 예쁜 계모인데 매력있고, 예전의 순수한 마음도 갖고 있다. 나에게 도전이지만, 기대가 많이 되고 재미있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

“긴 호흡의 드라마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 부담되고 걱정됐다”며 “악역을 안 해 본 건 아니지만, 제대로 된 악역은 이번이 처음이다. 촬영할 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니 스트레스 해소가 되더라”고 했다.

이 드라마는 세상을 가지고 싶었던 여자와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건 여자가 펼치는 운명의 스캔들이다. 한채영은 제작사 정인엔터테인먼트 대표 ‘문정인'을 맡는다. ‘백설아’(한보름) 아버지와 결혼, 남편의 전 재산을 가로챈 뒤 드라마를 설립해 새 삶을 시작한다.

한채영은 “한보름씨와 붙는 장면은 아직 없었다”면서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너 정말 천사처럼 생겼다’고 했다. 우리 드라마는 ‘빌런과 선한 역 둘 다 예쁘네’ 싶었다”며 웃었다. “첫 촬영 때 둘 다 긴장했다”며 “나도 나름대로 포스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름씨도 만만치 않다. 앞으로 대립하는 장면을 기대해달라”고 청했다.

한보름도 “아직 겹치는 신이 많이 없지만, 선배님과 첫 촬영을 함께 했다. 연기할 때 포스를 느꼈다. 친해지고 싶은데, 선배님이 정말 아름답고 연예인 같아서 다가가기 어렵더라. 내가 복수를 해야 하는데, 팬심을 누르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최지영 PD는 “‘백설공주’ 이야기를 살짝 비틀었다. 백설아라는 이름도 거기서 나왔다. 백설공주에서 아름다운 계모가 친딸을 내쫓고 왕국을 차지하지 않느냐. 그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계모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 악행을 저지르다 사필귀정으로 끝난다. 우리 드라마는 그렇게만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백설공주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드라마를 따라가면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우 이정은과 그룹 ‘에이핑크’ 정은지가 2인 1역에 도전했다.

이정은은 13일 서울 신도림동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JTBC 주말극 ‘낮과 밤이 다른 그녀’ 제작발표회에서 “정은지씨와 2인 1역을 맡았다”며 “정은지씨 고향이 부산인데,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 사투리를 쓴다. 음성 파일을 보내줬고, 말투를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운동을 잘하는 캐릭터라서 움직임에서도 공통점을 가지려고 했다”고 털어놨다. “정은지씨가 아이돌 출신이지 않느냐”며 "극중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이 힘들었다. 녹화 끝나고 정은지씨 영상 보고,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안무 연습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은지는 “촬영하면서 이정은 선배가 나와 비슷한 결로 생각하는 게 느껴졌다. 선배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엄청 편했다. 결 자체가 원래 잘 맞는 느낌이었다. 물론 맞춘 것도 있지만 뜻밖의 행동, 말투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재미있었다”며 “선배님이 춤을 정말 잘 춘다. 평소 연기의 연장선으로 몸 쓰는 걸 연습하고, 춤을 계속 배워오더라. 내 춤도 몇 번 보고 다 추고, 덕분에 난 잘 묻어났다"고 부연했다.

6월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온 배우 한채영(왼쪽), 이정은(오른쪽).

이정은 “고향이 부산인 정은지 덕분에 부산 사투리 제대로 배웠죠”

이 드라마는 어느 날 갑자기 노년 타임에 갇힌 취준생 ‘이미진’(정은지)과 그녀에게 휘말린 검사 ‘계지웅’(최진혁)의 로맨틱 코미디다. 이정은은 미진 부캐릭터인 50대 여성 ‘임순’을 맡는다. 최근 세 사람은 웹예능 ‘짠한 형’에서 드라마를 홍보했다. 당시 이정은은 “정은지와 최진혁은 요즘 밀고 있는 커플”이라며 “내가 촉이 좋다. 둘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최진혁 역시 정은지에게 호감을 표시, 핑크빛 기류를 형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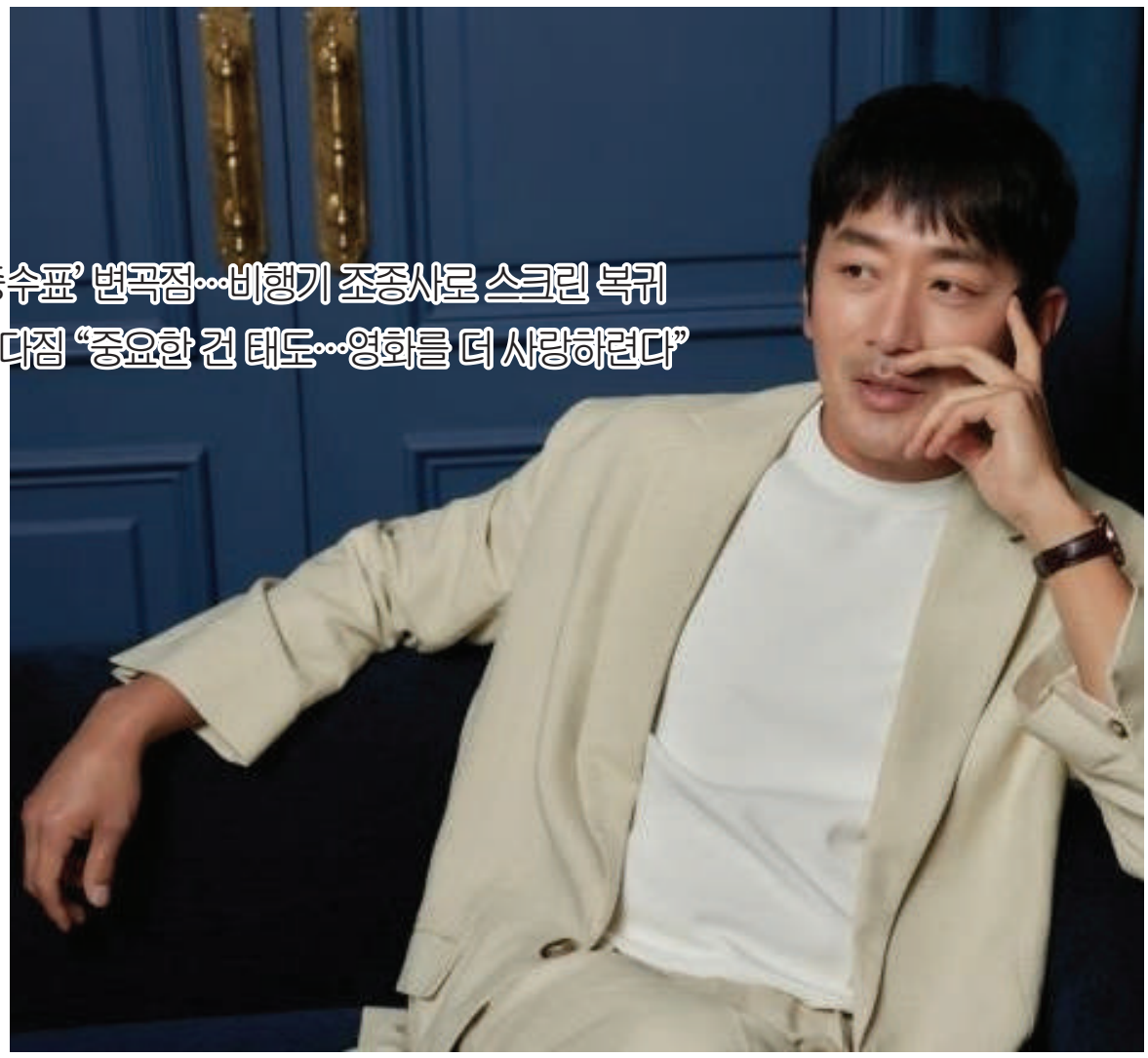
최진혁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때 녹화장 분위기가 좋았다.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 업 되는 게 있다”며 ‘2시간 만에 3병 정도를 마신 것 같다. 조금 많이 취해서 말장난하려고 ‘너나 건강해’라고 했는데,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미쳤구나’ 싶었다”고 털어놨다. “녹화 다음날 (신)동엽 형한테 전화가와 ‘그래, 은지랑 잘해봐’라고 하더라. ‘진짜 아니’라고 했더니 ‘뭘 아니야'라고 하더라”면서 “진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그런 말 자제하려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형민 PD도 케미를 자신했다. “주인공이 여성 두 분이라서 캐스팅할 때 미안함이 있었다. 온전하게 한 사람이 주인공을 하는 게 아니라서 살짝 경쟁할 수도 있지 않느냐”면서 “현장에서도 미안했는데, 두 사람은 전혀 그러지 않더라. 정은지는 ‘이정은씨와 함께 해 정말 좋았다’고 하고, 이정은도 ‘정은지는 정말 착하다’고 하더라. 현장에서 정말 (케미가) 좋았다”고 했다. <뉴시스>

영화 '하이재킹' 히어로 **하정우** 심기일전 인터뷰

"이전보다 더 뜨겁고 더 진지하게 연기하고파"

전작 부진으로 '흥행 보증수표' 변곡점…비행기 조종사로 스크린 복귀
초심으로 돌아가 꿋꿋한 다짐 "중요한 건 태도…영화를 더 사랑하련다"



코로나 사태 이전 배우 하정우(46)의 필모그래피는 화려하기 그지 없다. 그가 거둔 흥행 성적이나 그가 나온 영화 목록을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8년 '추격자' 이후 2010년대 한국영화의 얼굴이 누구였냐고 물으면 큰 이견 없이 그의 이름이 나올테니까.

그러나 코로나 사태와 함께 시작된 2020년대는 하정우에게 그리 호락호락한 시기가 아닌 것 같다.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이 큰 성공을 하긴 했으나 지난해 나온 영화 '비공식작전'과 '1947 보스톤'은 참패했다.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평가도 좋지 않았다. 이제 그는 코로나 사태 이후 세 번째 영화를 내놓는다. 재난 스릴러 ' 하이재킹'(6월21일 공개)이다. 하정우는 이 작품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필모그래피에 변곡점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는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했다.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때가 있었으니까 쉬어가는 시기도 있다고 생각해요. 흥행이 왜 안 됐을까, 여기에 과학적으로 혹은 분석적으로 접근하긴 힘들죠. 제가 생각하는 건 결국 태도입니다. '하이재킹'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 선택한 작품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연기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카메라 앞에 서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하이재킹'은 1971년 발생한 일어난 '대한항공 F27 납북 미수 사건'을 영화화했다. 하정우는 승객 안전을 위해 모든 걸 거는 비행기 조종사 '태인'을 연기했다. 하정우 특유의 유머나 넉살 같은 건 전혀 찾을 수 없고, 정직함과 듬직함 그리고 휴머니즘으로 가득 찬 인물이다. 이 또한 변화라면 변화일 것이다. "비행기 승객을 연기한 단역 배우 대부분은 얼굴이 거의 나오지도 않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기했어요. 연기 뿐만 아니라 새벽부터 촬영장에 나와 성심성의껏 리허설에 참여하셨죠. 그게 제가 말한 태도일 겁니다. 저 역시 주연 배우로서 솔선수범하면서 기본을 지켜나가고 싶었어요."

언제나 능수능란한 연기를 하기에 하정우와 초심이란 말은 언뜻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것 같았다. 그래서 다시 물을 수밖에 없었다. '당신이 말하는 초심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정우는 "영화를 향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더 뜨겁고 더 진지하게 연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흥행이 잘 안 된 작품에서 제가 덜 뜨겁고 덜 진지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 영화를 더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고 싶어요. 영화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정우는 "영화 외엔 내게 남는 게 별로 없다"며 "전 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라고 말하며 웃었다. 배우 황보라와 결혼한 동생이 최근 아들을 갖게 된 걸 언급한 것이다.

하정우는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영화가 지나고 있는 쉽지 않은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잘 버텨보려 한다고 했다. 힘든 시기임에도 하정우는 세 번째 연출작 '로비' 촬영을 모두 마치고 현재 후반 작업 중에 있다. '로비'를 올해 안에 선보이고 싶다고 한 하정우는 "다시 배우로서는 좀 더 마음을 열고 다양한 작품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를 겪었으니까, 제작비 거품도 많이 빠질 겁니다. 더 알토란 같은 작품이 기획 되겠죠. 편중됐던 이야기는 더 다양해질 테고요. 그때 전 제 기존 생각을 고수하고 고집하기보다는 모든 걸 다 열어 놓고 연기해볼 생각입니다."

VENUS ANTI-AGING CARE
비너스 엔티 에이징 케어
오~레오레
100년을 위한 삶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 준비하세요!
나에게 딱 맞는 호르몬 치료
•나만을 위해 맞춤제조 •호르몬 치료에 골든타임을 놓치지마세요
•백세시대 준비는 몸 안에서 부터
•생체 동일한 호르몬은 몸을 보호해줍니다(Bio-Identical Hormone)
IV 테라피
본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IV테라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IV테라피
건강한 몸, 또렷한 정신
치매치료신약
FDA에서 치료허락을 받은
새로나온 약 치매증새가
좋아지는 것을 경험해보세요!
바로 지금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213.739.1025
266 S. Harvard Blvd, #320
Los Angeles, CA 90004

스펙트럼
한달에 $29.99
핸드폰 1년무료
버라이즌 네트워크사용
+스펙트럼 핫스팟 사용
서상희 David Seo
esidential Connectivity Specialist
(310)713-8266

RADIOSEOUL
www.Radioseoul1650.com
시니어 스페셜 방송
소망의 시간
라디오서울 AM1650
(유튜브 & 앱)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재방송 오후 5시)

실버시티보험
A division of HUB International

License# 0757776

아버지, 어머니

메디케어 어려우시죠?

실버시티보험을 만나면 혜택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무료 상담

메디케어 헬스 플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Annie Lee
이 애니
(818) 633-0692
Lic.#0F94321

Annie Myung Sim
심 명숙
(714) 333-5161
Lic.#0F67828

Angela Chang
장 안젤라
(323) 707-4242
Lic.#0B84924

Benjamin Moon
문 벤자민
(213) 800-2993
Lic.#0645833

B. J. Park
박 범자
(213) 595-6065
Lic.#0C65066

Connie Kim
김 경미
(213) 321-0302
Lic.#0K85152

Cindy Lee
이 찬용
(909) 967-9793
Lic.#0171045

Daniel Jung
정 다니엘
(213) 999-2829
Lic.#0D60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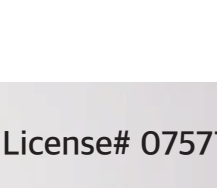
Esther Choi
최 윤경
(213) 393-1611
Lic.#0B51453

Gary Moon
문 게리
(213) 505-2420
Lic.#0F92634

Hanna Gu
구 현화
(213) 454-8164
Lic.#0M64324

Hee Ran Kim
김 희란
(818) 751-4433
Lic.#0I25013

Helen Park
박 헬렌
(213) 500-9393
Lic.#0B81853



Hyun Ja Han
한 현자
(760) 780-5990
Lic.#0G72353

In Ho Paik
백 인호
(213) 446-7341
Lic.#0A38972

Jae Myeong Shin
신 재명
(714) 900-1599
Lic.#0H097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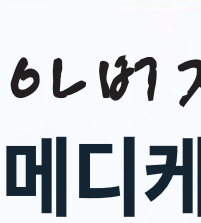
Jin Sil Lee
이 진실
(310) 803-0666
Lic.#0C19190

Joanne Hong
홍 조앤
(818) 606-9486
Lic.#0H98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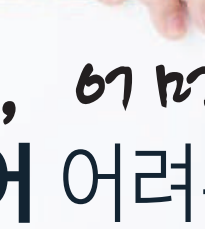
Kyungah Chu
추 경아
(310) 941-1155
Lic.#0D35285

Michelle Kim
김 미옥
(562) 219-6770
Lic.#0K52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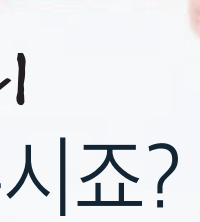
Misun Cha
차 미선
(213) 505-2087
Lic.#0I45353



Miyoung Hong
홍 미영
(714) 715-6345
Lic.#0672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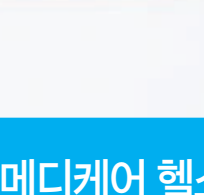
Nataly Han
한 나탈리
(213) 675-7898
Lic.#0E35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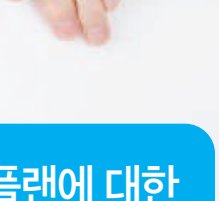
Norman Cho
조 남태
(213) 700-2599
Lic.#0571988

Sang Moo Shin
신 상무
(562) 756-6407
Lic.#0643522

Settia Kim
김 희자
(626) 348-7944
Lic.#0F36240



Stacy Joe
조 스테이시
(310) 738-6703
Lic.#0E44925



Sumi Lee
이 수미
(213) 302-6191
Lic.#0I29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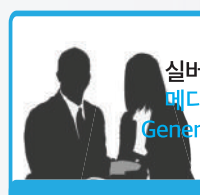
Sussy Kim
김 성원
(562) 833-1885
Lic.#0812107

Tom Chang
장 탐
(909) 702-2882
Lic.#0K98380

Yoosun Vaughn
민 유선
(626) 500-7006
Lic.#0G83038

Young Seon Paik
백 영선
(714) 875-2243
Lic.#0C18047

Yong Suk Won
원 용석
(213) 200-3941
Lic.#0G76626



실버시티보험에서 함께 할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와
General Agency를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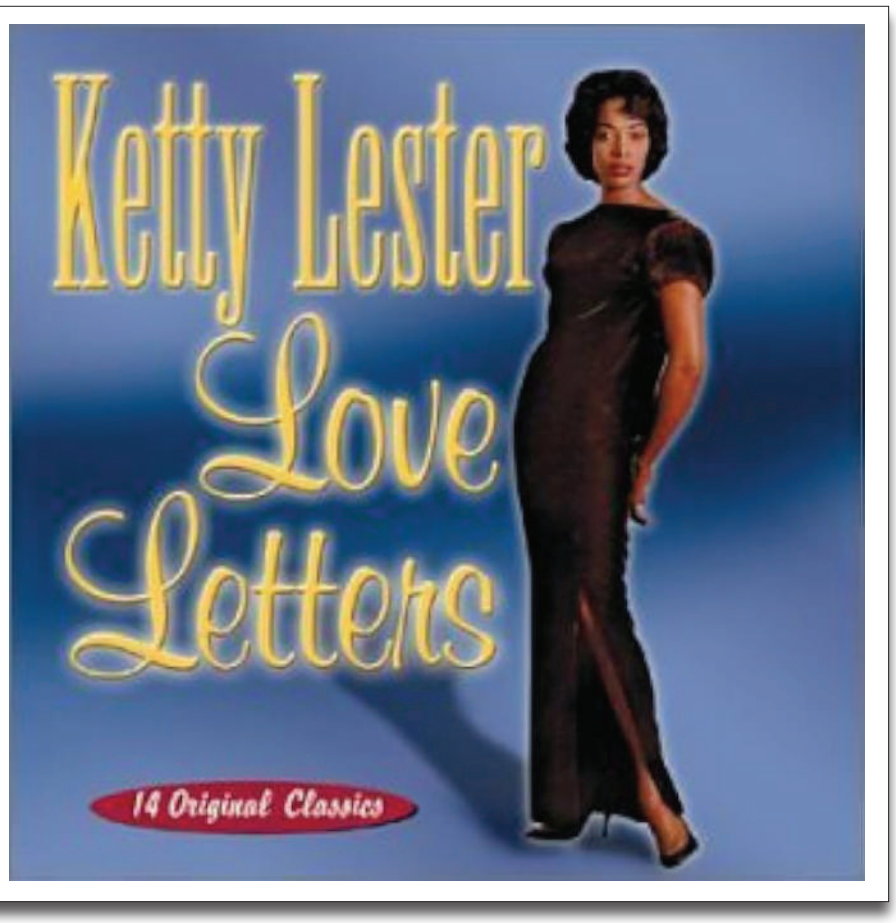
메디케어 에이전트 모집

우리는 귀하의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메디케어 상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귀하의 지역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상품으로 제한됩니다. 모든 옵션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Medicare.gov 또는 1-800-MEDICARE에 연락하십시오.

오늘 저녁 **이 노래 한 곡**

♪Love Letters

Ketty Lester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기만의 기억과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한 소절의 가사에 그녀와 나의 추억이 담기고, 한 음절의 멜로디에 그이와 나의 그림이 묻어져 버린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는 그런 노래 한 곡 음악 한 곡을 이 지면에 담아 본다.
H매거진이 추천 하는 이 노래 한 곡, 오늘 저녁 와인이나 차 한잔 하며 유튜브나 스트리밍앱 더 나아가서 음반을 구입해 들어보며 기억과 함께 쉬는 시간을 권한다.

Love letters straight from your heart
당신의 마음 그대로 솔직하게 쓰여진 사랑의 편지들

Keep us so near while apart
떨어져 있는 동안 우리를 가까이 두세요

I'm not alone in the night
난 이 밤에 혼자가 아닙니다

When I can have all the love you write
당신이 쓰는 모든 사랑을 내가 가질 수 있을 때

I memorize every line
나는 한줄 한줄 모두 외웁니다

And I kiss the name that you sign
그리고 당신이 서명한 이름에 키스합니다

And, darling, then I read again right from the start
그리고, 내 사랑, 하고는 처음부터 다시 읽게 됩니다

Love letters straight from your heart
당신의 마음 그대로부터 솔직하게 쓰여진 사랑의 편지들

I memorize every line
나는 한줄 한줄 모두 외웁니다

And I kiss the name that you sign
그리고 당신이 서명한 이름에 키스합니다

And, darlin,' then I read again right from the start
그리고, 내사랑, 그럼 처음부터 다시 읽게 된 거지

Love letters straight from your heart
당신의 마음 그대로 쓰여진 사랑의 편지들

엘비스 프레슬리를 비롯한 수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 해서 발표한 사랑노래의 진수, 명곡 재즈 풍으로 끈적끈적하게 부른 케티 레스터의 원곡이 요즘말로 띵곡이다.
아내와 또는 애인과 오늘 저녁 와인 한잔하며 이 곡을 되풀이 해서 들어 보면 어떨까?
케티 레스터는 1934년 8월 16일 아칸소 주 호프에서 레보이다 프리슨으로 태어났다. 그녀의 부모님은 결국 총 15명의 자녀를 갖게 된 농부들이었다. 어린 아이였을 때, 레스터는 처음에 교회에서 노래를 불렀고, 나중에는 학교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며 장학금을 받았고, 1950년대 초에는 도시의 퍼플 어니언 클럽에서 “케티 레스터”라는 이름으로 공연하기 시작했다. 이후에 캡 캘러웨이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가수로서 유럽과 남미를 순회 공연을 했다. 1961년에 싱글 “Love Letters” b/w “I'm a Fool to Want You”를 발표했다.
링컨 마요르가의 드문 피아노 편곡과 얼 파머가 드럼을 연주한 레스터의 “Love Letters” 녹음은 1962년 초에 하여 발표한 후 빌보드 핫 100에서 5위로 상승했다. 이 음반은 또한 R&B 차트에서 2위, 영국 싱글 차트에서 4위에 오르며 100만 장 이상 팔렸고, RIAA로부터 골드 디스크를 수여 받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진 한 장**

"국밥 한 그릇 주세요"

엄마가 끓여 주시던 '콩나물 국밥'

아침 한끼 안 먹고 학교를 가면
우리 엄마는 큰일 났다고 하셨다.

자식의 하루도 당신의 하루도
아침 한끼 굶겨 보낸 그 큰 일로
속 앓이를 하시는 그 사랑으로 채우셨다.

엄마가 끓여 주시던
그 콩나물 국밥 한 그릇 먹고 싶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과 함께 설명 또는 하고 싶은 말을 작성하여 보내 주시면 격주 화요일마다 한 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H매거진 이 사진 한 장에 응모해주신 분 들께 감사합니다.
선정되신 분께서는 **3731 Wilshire Blvd. #1000 LOS ANGELES**로 **7월 25일까지 ID지참 방문**하셔서 소정의 상품(라디오서울 대나무 도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실 곳 e-mail** | **mkh@tvhankook.com**
H매거진 이 사진 한 장 담당자 앞

※ 사진 주제와 소재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인물사진과 같이 초상권, 저작권에 저촉되는 사진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블루앵커 재정칼럼

암보험의 필요성 : 드라마가 보여주는 현실

주보윤
재정보험 전문 에이전트

19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인기 드라마 중 “세상 끝까지”와 “가을 동화”가 있다. “가을 동화”의 송혜교와 “세상 끝까지”의 김희선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바로 암으로 죽어가는 두 여자 주인공의 모습이다. 당시 드라마에서는 극적인 엔딩을 위해 암이라는 소재를 자주 사용했다. 서정적인 배경 뒤로, 남자 주인공이 애절하게 우는 모습을 보며 함께 슬퍼했던 기억, 다들 있을 것이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33년째 암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드라마에서 암이 단골 소재로 사용된 것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암,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운 병임은 확실하다. 10여년 전, 유명 미국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적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가슴을 제거한 일이 크게 기사화된 적이 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암투병 과정을 보고 경험한 그녀이기에 가능한 결정이었던 것이다. 그만큼 암은 괴롭고 힘든 병이었다.

하지만 최근 드라마를 보면 암에 걸린 주인공이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암이라는 병을 소재로 삼아 코믹하게 극을 전개하거나, 암 앞에서도 담담하게 치료를 받으며 활기차게 살아가는 주인공을 그린 드라마가 많다. 이는 암이 치료 가능하고 완치 가능한 병으로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다. 드라마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 암 학회(American Cancer Society)에 따르면, 미국인의 암 사망률이 30년 전보다 약 32%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암의 5년 생존율이 70%를 넘는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이제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 보다는 암 투병 기간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크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미국에서 암에 걸리게 되면 대부분의 치료나 수술은 의료보험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암 투병 기간 동안 환자는 이전과 같은 경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발생하는 생활비, 주택 모기지, 교육비 등은 계속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암보험, 특히 암 진단 보장 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암 진단 보장 보험은 암 진단을 받기만 하면, 암의 경중에 상관없이 계약된 보상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치료비 뿐만 아니라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암 투병 중 발생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

암보험은 가입 절차가 간편하다. 피검사나 소변 검사 없이도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지병이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격도 합리적이다. 5만불의 보험금에 가입할 경우 30세는 약 22달러,40세는 39달러, 50세는 62달러, 60세는 97달러 정도이다. 커피 몇 잔 값, 점심 한 끼 값으로 평생 암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문제를 덜고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것이다.

암은 드라마 속 뿐 아니라 현실에서 누구에게든지 발생할 수 있는 병이 되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간단한 절차로 가입 가능한 암 진단 보장 보험은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 (213) 663-3152 boyunjoo@Blueanchorins.com

엔젤라오의 건강한 힐링타임

식초의 비상한 능력 디톡스, 다이어트는 물론 혈당 관리까지

천연 발효 식초는 인류의 역사에서 건강에 기여도가 높은 식품입니다. 음식의 맛과 향을 좋게 해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화, 디톡스, 다이어트, 미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진짜 웰빙 푸드라고 부르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초의 디톡스와 다이어트의 효능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시지만 식초가 고지혈증 특히 당뇨에 효능이 있다는 것은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혈당 수치도 중요하지만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 즉 혈당 스파이크도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식사 후 혈당이 빠르게 오른 후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피로감과 졸음이 몰려오는 것을 말하는데 한 숟가락의 식초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식초를 물에 희석하여 꾸준히 섭취하였을 때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아지는데 도움이 되는 천연 혈당 억제 음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당분의 체내 흡수를 더디게 만들어 식후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합니다. 또한 식초에는 초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젖산을 분해해 피로를 해소하고 지방을 분해해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체중 조절은 혈당 개선에 기여가 큰 요소입니다. 식초에는 또 구연산을 비롯한 다양한 유기산,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해 인체의 면역력 증강, 콜레스테롤 억제, 혈압 강하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다양한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희 케이힐링의 유명한 명품 천연 발효 식초는 케미컬 성분이 전혀 없는 100% 천연 재료를 대사관 쉐프 출신이자 발효 장인이 만들어 한번 드셔 본 분들은 그 맛에 칭찬이 자자한 제품입니다.

유자 식초는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사용하시면 향긋한 유자향이 매력적인 샐러드가 되며, 오미자 식초는 요리나 음료로 사용하시면 고급진 맛을 내며, ABC 식초는 음료로 사용하시면 똥배가 쏙 빠지는 다이어트 식초입니다.

케이힐링 대표 엔젤라 오
Doctor of Naturopathy

▲ 323-730-8880 올림픽 갤러리아 2층

LICENSE NUMBER OH00486

무엇이든
함께 하면 **기쁨**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친구

UNI & good friend
INSURANCE SERVICES

유니 굿프렌드 보험

함께 일하실 경험있는 **보험에이전트**를 찾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hr@ugfriend.com으로
Resume 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HEAD OFFICE (LA)
3580 Wilshire Blvd., Suite 151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8-7979 **Fax.** 213-674-4383

ORANGE COUNTY OFFICE
6281 Beach Blvd., Suite 307 Buena Park, CA 90621
Tel. 714-276-1133

VIRGINIA OFFICE
9001 Braddock Rd. Suite 390 SpringField, VA 22151
Tel. 703-256-0707

SAN DIEGO OFFICE
7655 Clairemont Mesa Blvd., Suite 308 San Diego, CA 92111
Tel. 213-388-7979

LIFE | HEALTH | AUTO | HOME | BUSINESS | WORKER'S COMP. | RETIREMENT

상담 전화 (213)739-2877 www.askjiyun.com
(7월 16일 - 7월 29일)

지윤철학원

쥐띠 -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해지는

운수 : 주위의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변화를 자제하고 안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 :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후회할 일이 생기니 주의해야 합니다.

애정 : 서오해를 부르는 일들이 연달아서 생기기 쉬울 때입니다. 스스로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96, 84, 72, 60, 48, 36년생은 19, 22, 23, 27일 길일. 17, 20, 26, 29일 주의.

소띠 - 지혜롭게 잘 피해가야

운수 :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거나 피곤하고 짜증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피해가야 할 것입니다.

금전 : 큰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니 마음을 비우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 합니다. 현상 유지에 만족하면서 지나가세요.

애정 : 미안한 생각이 들다가도 너무 몰아치면 미안한 생각이 사라지고 화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나침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97, 85, 73, 61, 49, 37년생은 16, 20, 23, 28일 길일. 18, 21, 24, 27일 주의.

범띠 -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고

운수 : 시작도 하기 전에 미리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사고로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습니다.

금전 : 곳곳에 손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뒤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고 그 누구와도 돈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정 : 더 가게 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마음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7, 21, 26, 29일 길일. 16, 19, 22, 28일 주의.

토끼띠 - 해결의 실마리를

운수 : 무엇이든지 도전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망설이지 말고 내 의지대로 밀고 나가세요.

금전 : 말이 오가던 매매나 계약 등의 일이 변경될 수가 있겠습니다. 멀리 내다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애정 : 자신의 밝은 미소가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게 합니다. 미소가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8, 21, 22, 25일 길일. 17, 20, 23, 29일 주의.

용띠 -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운수 : 소낙비가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마음의 비가 오락가락하니 하루에도 열두 번도 더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금전 : 당분간은 큰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보낸다는 생각으로 현상 유지를 하는 데 신경 써야겠습니다.

애정 : 인연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세요.

00, 88, 76, 64, 52, 40년생은 19, 20, 23, 25일 길일. 21, 22, 24, 29일 주의.

뱀띠 - 한 단계 발전하게

운수 : 새로운 시작으로 한 단계 발전하게 됩니다. 너무 넘치거나 지나치지만 않으면 매사 순조롭고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금전 : 예상외의 수입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최상의 시기이니 바쁘지만, 보람이 있겠습니다.

애정 : 기회가 생기거나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좋은 결혼 상대를 만날 수 있는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주위를 살펴보도록 하세요.

01, 89, 77, 65, 53, 41년생은 17, 20, 24, 27일 길일. 19, 21, 22, 25일 주의.

말띠 - 미리 낮춰서 바라면

운수 : 멀리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에서 찾으세요. 봄을 찾으려고 짚신이 닳도록 돌아다녔는데 정작 집 앞 매화 가지에 봄이 있는 격입니다.

금전 : 원하는 것을 미리 낮춰서 바라면 큰 실망이 없습니다. 기대치가 크면 허망해지고 답답해집니다.

애정 : 의미도 방향도 잃은 채로 보내기 쉽습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방황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6, 18, 25, 28일 길일. 20, 23, 24, 26일 주의.

양띠 -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고

운수 :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획의 차질이 생기고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할 수 있으나 결과는 좋습니다.

금전 : 섬들어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단 매사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합니다.

애정 :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둑이 터지는 것처럼 그동안 억지로 막아두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991, 79, 67, 55, 43, 31년생은 16, 17, 22, 26일 길일. 21, 23, 24, 27일 주의.

원숭이띠 - 큰 고기는 넓은 물에서 살아야

운수 : 큰 물고기는 넓은 물에서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금전 :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금전운이 좋아서 자금 회전도 잘 되겠습니다.

애정 :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잘 표현해 보세요. 직설적인 표현보다 오히려 이러한 표현이 상대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0, 21, 23, 27일 길일. 16, 22, 25, 28일 주의.

닭띠 - 활력과 의욕을 되찾는

운수 : 남보다 더 바쁘게 뛰어다녀야 할 때입니다. 직업과 관련해서 좋은 일이 있거나 이동수가 있겠습니다.

금전 : 생활의 활력과 의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정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애정 :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기다리던 사람과 반가운 재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6, 19, 24, 28일 길일. 17, 23, 26, 29일 주의.

개띠 - 더 힘껏 노력해야

운수 : 방심하기 쉬운 주입니다.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옛말처럼 더 힘껏 노력해야 합니다.

금전 : 소현재의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사 안일한 태도는 통하지 않는 때이니 태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애정 : 보편적인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상대가 몰라주는 홀로 하는 사랑은 좀처럼 대우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결국 지치게 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7, 25, 26, 29일 길일. 16, 18, 24, 27일 주의.

돼지띠 - 무엇보다도 솔직해야

운수 : 무엇보다도 솔직해야 합니다. 언행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 점수를 쌓게 될 것입니다.

금전 : 기대하고 바라던 것을 이룰 기회가 다가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일의 규모는 더 크게 벌이지 마세요.

애정 : 양보다는 실, 실보다는 분위기나 느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음료수 한잔을 마셔도 이왕이면 분위기 있는 곳으로 가보세요.

95, 83, 71, 59, 47, 35년생은 18, 22, 23, 26일 길일. 16, 19, 25, 28일 주의.

韓美服熙

미희 한복
샘플 세일

7/10(수) ~ 7/20(토)
10AM TO 5PM

3461 WEST 8TH ST.
LOS ANGELES, CA 90005

(213) 388-3377

샘플 세일

Starting at
40% off!

고전한복
모던한복
돌복
여자한복
남자한복

놀라운 행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USA Today가 선정한 라스베가스 외 지역 #1 베스트 카지노, Yaamava' Resort & Casino at San Manuel은
짜릿한 경품행사 및 엔터테인먼트 등 멈추지 않는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4주간 8 PORSCHES!

야마바가 2024 Porsche Macan 2대를 7월 매주 목요일마다 경품으로 드립니다! 한 달간 언제든지 게임을 즐기시고 럭셔리한 포르쉐에 당첨되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PREMIUM PROFIT

야마바가 이번 7월, 행운의 주인공 클럽 세라노 멤버 한 분께 $100,000 캐쉬와 $100,000 Free Play 게임 크레딧을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에 무료로 가입하시고, 야마바만의 특별한 리워드와 혜택도 누려보세요. 한 달간 언제든지 게임을 즐기시기만 해도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YAAMAVA'
RESORT & CASINO
AT SAN MANUEL

LA에서 단 70마일 거리

777 SAN MANUEL BLVD., HIGHLAND, CA 92346 | 800-359-2464 | YAAMAVA.COM |

카지노 입장은 21세 이상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800-GAMBLER.